연구보고 RR 2015-13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Ⅵ)

– 학교, 사회 적응 과정 분석 및 정책 방안 –

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2015

연구책임자

강 구 섭(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김 현 철(성균관대학교)

이 향 규(한양대학교)

한 만 길(한국교육개발원)

연 구 조 원

박 성 철(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머리말

탈북청소년은 이전에 생활하였던 곳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남한사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학업 공백, 사회적 차이, 가정의 지원 미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적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사회 및 학교 적응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응 방안을 모색하여 이들의 원만한 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적응 지원 측면에서 뿐 아니라 통일 후 북한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및 학교 적응 문제를 '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2010년의 기초연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차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2015년의 5차 조사에서는 1주기 종단연구 마지막 연구로서 전체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1주기 조사 연구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다양한 유형의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전체 탈북학생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한국 입국 전후의 경험, 학교급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탈북청소년의 적응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학교 및 가정 등 전체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설문 조사와 심층면접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연구를 추진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5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직무대행 **윤종혁**

연구요약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을 조사·분석하는 연구로서 첫째,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 과정의 심층 조사·분석, 둘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셋째, 탈북청소년의 적응 과정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하여 관련 연구의 활성화 기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에 실시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년 간 실시하는 연구의 5차 조사이다. 탈북청소년의 사회 및 학교 적응 상황을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양적조사 결과 분석은 크게 횡단 및 종단 분석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횡단분석은 5차년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실시하였고, 종단분석은 1~5차 전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응답자의 배경변인과 5차에 걸쳐 실시된 종단연구 조사 시기 간의 상호작용과 응답자 배경변인 및 종단연구 조사시기의 주효과 분석(two-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다변량 검정을 실시하였다.

1주기 마지막 조사인 2015년의 질적 연구는 지금까지 조사에 참여한 패널을 대상으로 5년간의 생활을 종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학생, 학부모, 교사 인터뷰 녹취록 등의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과 가족의 삶의 궤적을 재구성하고 지난 5년 간 있었던 삶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 양적 조사 결과

5차년도 양적 조사의 횡단분석 결과, 첫째, 전체 학생에서 북한출생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중국출생 학생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둘째, 가족 현황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모-동거, 부-부재의 비율이 응답자의 43.60%에 이르고 있고,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38.95%로 나타났다. 셋째, 교과 이해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국어과에 대한 이해도(대부분 이해하거나 거의 이해)는 60.52%로 높은 반면, 영어, 수학과의 경우에는 각각 25.97%, 24.67%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자신의 출신배경 공개 현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피차별 경험의 비율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1~5차년도 조사의 종단분석 결과, 첫째, 조사 차수별로 탈북학생이 인식하는 '가족 유대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차 조사시기에 상승되었다가 4, 5차 조사시기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국출생 학생의 경우 북한출생 학생보다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 영역의 교사의 심리적지지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와 배경 변인의 상호작용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5차 조사시기에 4차 조사시기보다 다소 상승하였으나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영역 변수 중에서 수업이해정도에서 북한출생 학생의 경우 3, 4차 조사에서 감소하다가 5차 조사에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출생 학생의 경우 2,3,4차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5차 조사에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질적 조사 결과

본 연구의 질적 연구를 통해 발견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학생의 적응, 적응 과정 개념은 남한사회 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남한 사회, 학교가 요구하는 가치, 지식, 태도의 습득을 넘어 탈북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인식과 태도, 능력을 습득해 가는 장기적인 관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학업부진을 극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학업 성취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이수하도록 하는 동시에 탈북학생의 낮은 학업성취 수준이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관계” 형성을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탈북학생 학부모에 대한 지원은 탈북학부모에게 남한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학부모이자 부모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이해와 가치를 습득하여 자녀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지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 탈북청소년 적응 과정 특성 종합

탈북청소년의 적응 과정을 북한출생(중국 경유자 포함) 탈북학생과 중국출생 탈북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은 대체로 유사한 적응 과정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출생 탈북학생이 다소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국 전 상황 측면에서, 양측 탈북학생은 대체로 유사한 환경 특성에 놓여 있는 가운데 북한출생 탈북학생이 다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 환경 측면에서 양측이 공통적으로 낙후된 상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출생 탈북학생들은

신분노출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가정상황 측면에서 부모와의 이산 경험과 이로 인해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이산 경험이 더 많았다.

남한입국 후 적응 환경 측면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중국출생 탈북학생은 사회, 학교, 가정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지만 신분공개의 어려움, 가정환경 상황으로 인해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환경 측면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은 중국출생 탈북학생과 비교할 때 아버지 부재 상황이 더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북한출생 학생 가정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응 영역 측면에서, 학습이나 사회 영역에서는 양측이 유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심리, 관계 영역 등에서는 심리적 어려움, 출신배경 공개의 부담 등으로 인해 북한출생 탈북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언

1주기 연구의 종합 결과, 탈북청소년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출신 배경과 그에 따른 특성으로 인해 남한에서 일반 학생의 경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탈북학생의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 과정의 지원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탈북학생의 사회 및 학교 적응 지원 방안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습 측면에서 학습부진 완화를 통한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각 학년 및 학교급 별로 해당 수준에서 반드시 학습을 해야 하는 내용과 수준을 선정한 후 해당 학년에서 이에 대한 완벽한 학습이 이뤄지게 하는 방식으로 기초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학생의 학습동기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업에서 성취를 경험함으로써 학업동기를 제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학습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 적응 측면에서 탈북학생 가운데 체계적인 심리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학생의 심리 정서적 안정 지원 관련,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비롯해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크고 작은 성취를 경험하게 하는 가운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안정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 적응 측면에서, 탈북학생의 학교 내 관계의 형성 및 긍정적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탈북학생이 자신의 출신배경 공개 관련,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적응 관련, 탈북학생이 학교 내에서 원만한 관계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여 피차별 의식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로교육 관련, 탈북학생의 진로설정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 지원 관련, 탈북학생 학부모가 가정에서 요구되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탈북학부모가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차원에서, 탈북학생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탈북학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의 다양한 자체 활동을 통해 남한사회와 소통·교류하는 가운데 자체적인 이미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출생 탈북학생이 남한 사회 및 학교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 정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 5
3. 연구 방법 ····· 10
4. 1~4차 조사 결과 요약 ····· 12

Ⅱ. 조사 설계 / 19

1. 연구 모형 및 조사 영역 ····· 21
2. 양적 조사 설계 ····· 27
3. 질적 조사 설계 ····· 36

Ⅲ. 양적 조사 결과 분석 / 41

1. 5차 조사 결과 횡단 분석 ····· 43
2. 1~5차 조사 결과 종단 분석 ····· 70
3. 소결 ····· 87

Ⅳ. 질적 조사 결과 분석 / 89

1. 중학생의 사례 ····· 91
2. 고등학생의 사례 ····· 126
3. 대학생의 사례 ····· 142
4. 소결 ····· 156

Ⅴ.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 과정의 특성 / 161

1. 남한 입국 전 상황 ····· 163
2. 남한 입국 후 적응 환경: 사회, 학교, 가정 ····· 166
3. 영역별 적응 과정 특성 ····· 169
4. 종합 ····· 171

Ⅵ. 결 론 / 173

1. 요약 ····· 175
2. 정책 제언 ····· 179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187

참고문헌 ····· 191

Abstract ····· 193

부 록 ····· 195

부록1 학생용 설문지 ····· 197
부록2 고교졸업 1년차용 설문지 ····· 219
부록3 담임교사용 설문지 ····· 241
부록4 학생평가용 설문지 ····· 245

표 목 차

〈표 Ⅰ-1〉 탈북청소년 교육종단연구 조사 및 분석 내용 개요 ····· 6
〈표 Ⅰ-2〉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연차별 연구 계획 개요 ····· 7
〈표 Ⅰ-3〉 2011년 조사 패널 구성 ····· 12
〈표 Ⅱ-1〉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조사영역 ····· 24
〈표 Ⅱ-2〉 탈북청소년 교육종단연구 학생용 조사지 문항 ····· 27
〈표 Ⅱ-3〉 5차 조사 신규 개발 조사 문항(졸업 1년차용) 주요 내용 ····· 30
〈표 Ⅱ-4〉 패널 모집단의 시도별 재학 현황(2011년 4월 기준) ····· 33
〈표 Ⅱ-5〉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패널 설계 ····· 34
〈표 Ⅱ-6〉 조사시기별 응답자수와 응답률 ····· 34
〈표 Ⅱ-7〉 조사시기별 조사 참여 현황 ····· 35
〈표 Ⅱ-8〉 조사시기별 학년별 응답자수 ····· 36
〈표 Ⅱ-9〉 심층면접 질문지 내용 ····· 37
〈표 Ⅱ-10〉 2015년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질적 연구 대상자 ····· 39
〈표 Ⅱ-11〉 질적 조사 담당 전문 면접원 ····· 40
〈표 Ⅲ-1〉 출생국 학교급 학년별 성별 분포 ····· 44
〈표 Ⅲ-2〉 출생연도별 학년 분포 ····· 45
〈표 Ⅲ-3〉 탈북학생 가정유형 ····· 46
〈표 Ⅲ-4〉 탈북학생 가족 현황 ····· 46
〈표 Ⅲ-5〉 현재 부모의 직업 ····· 47
〈표 Ⅲ-6〉 부모와의 이산 기간(개월) ····· 47
〈표 Ⅲ-7〉 가계 소득 ····· 48
〈표 Ⅲ-8〉 탈북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 ····· 48
〈표 Ⅲ-9〉 가족의 정서적 지지 수준에 대한 인식 ····· 49
〈표 Ⅲ-10〉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가족(중복응답) ····· 49
〈표 Ⅲ-11〉 탈북학생의 담임선생님에 대한 인식 ····· 50
〈표 Ⅲ-12〉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교사 유무 ····· 50
〈표 Ⅲ-13〉 친한 친구 수 ····· 51
〈표 Ⅲ-14〉 탈북학생의 교과 이해 수준 ····· 51
〈표 Ⅲ-15〉 학습에 대한 태도 인식 ····· 52
〈표 Ⅲ-16〉 교육지원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 52
〈표 Ⅲ-17〉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여부 ····· 53
〈표 Ⅲ-18〉 방과후 교육활동 지도 교사 유형 ····· 53

〈표 Ⅲ-19〉 학교의 교육지원과 출생지역 및 학교급의 상호작용분석(이원분산 분석) ····· 54
〈표 Ⅲ-20〉 내재적 학습동기와 출생지 및 학교급의 상호작용 분석(이원분산 분석) ····· 55
〈표 Ⅲ-21〉 출신배경 공개 현황 ····· 56
〈표 Ⅲ-22〉 출신배경 공개 희망 여부 ····· 56
〈표 Ⅲ-23〉 차별 경험 ····· 57
〈표 Ⅲ-24〉 차별의 주체(중복응답) ····· 57
〈표 Ⅲ-25〉 차별 경험의 유형(재학생) ····· 58
〈표 Ⅲ-26〉 차별 경험의 유형(졸업생) ····· 58
〈표 Ⅲ-27〉 공적 자기개념과 출생지 및 학교급의 상호작용(이원분산 분석) ····· 59
〈표 Ⅲ-28〉 주관적 안녕감과 출생지 및 학교급의 상호작용(이원분산 분석) ····· 60
〈표 Ⅲ-29〉 희망 학력 취득 정도 ····· 61
〈표 Ⅲ-30〉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 계획 ····· 61
〈표 Ⅲ-31〉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졸업 후 진로 계획 ····· 61
〈표 Ⅲ-32〉 고등학생의 미래 직업 결정 여부 ····· 62
〈표 Ⅲ-33〉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 ····· 62
〈표 Ⅲ-34〉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도움 유무 ····· 63
〈표 Ⅲ-35〉 고3 학생의 진학정보 취득 경로 ····· 63
〈표 Ⅲ-36〉 취업 희망 고3 학생의 취업정보 취득 경로 ····· 64
〈표 Ⅲ-37〉 고교 졸업 후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 ····· 64
〈표 Ⅲ-38〉 진로진학 계획과 출생지 및 학교급의 상호작용(이원분산 분석) ····· 65
〈표 Ⅲ-39〉 고교 졸업 후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 ····· 66
〈표 Ⅲ-40〉 지난 1학기 동안의 대학생활 ····· 66
〈표 Ⅲ-41〉 대학생활의 어려움 ····· 67
〈표 Ⅲ-42〉 대학생활을 위한 필요 지원 ····· 67
〈표 Ⅲ-43〉 취업을 결정한 이유 ····· 68
〈표 Ⅲ-44〉 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 68
〈표 Ⅲ-45〉 일자리 만족도 ····· 69
〈표 Ⅲ-46〉 직장생활의 어려움 ····· 69
〈표 Ⅲ-47〉 가정영역 변수의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 간의 상호작용 분석 ····· 70
〈표 Ⅲ-48〉 가정영역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의 주효과 분석 ····· 71
〈표 Ⅲ-49〉 가정영역 변수에 대한 배경변인의 주효과 분석 ····· 71
〈표 Ⅲ-50〉 학교영역 변수의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 간의 상호작용 분석 ····· 72
〈표 Ⅲ-51〉 학교영역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의 주효과 분석 ····· 72
〈표 Ⅲ-52〉 학교영역 변수에 대한 배경변인의 주효과 분석 ····· 73
〈표 Ⅲ-53〉 학습영역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 간의 상호작용 분석 ····· 73
〈표 Ⅲ-54〉 학습영역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의 주효과 분석 ····· 74
〈표 Ⅲ-55〉 학습영역 변수의 배경변인별 주효과 분석 ····· 75

〈표 Ⅲ-56〉 관계영역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의 주효과 분석 ····· 76
〈표 Ⅲ-57〉 심리영역 변수의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 간의 상호작용 분석 ····· 77
〈표 Ⅲ-59〉 심리영역 변수에 대한 배경변인의 주효과 분석 ····· 78
〈표 Ⅲ-60〉 사회영역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 간의 상호작용 분석 ····· 78
〈표 Ⅲ-61〉 사회영역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의 주효과 분석 ····· 79
〈표 Ⅲ-62〉 사회영역 변수에 대한 배경변인의 주효과 분석 ····· 79
〈표 Ⅲ-63〉 가정영역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의 상관관계 ····· 80
〈표 Ⅲ-64〉 학교영역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의 상관관계 ····· 81
〈표 Ⅲ-65〉 학습영역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의 상관관계 ····· 82
〈표 Ⅲ-66〉 관계영역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의 상관관계 ····· 84
〈표 Ⅲ-67〉 심리영역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의 상관관계 ····· 85
〈표 Ⅲ-68〉 사회영역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의 상관관계 ····· 86
〈표 Ⅴ-1〉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남한 입국 전 거주 환경의 특성 ····· 164
〈표 Ⅴ-2〉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남한 입국 전 가정 상황의 특성 ····· 164
〈표 Ⅴ-3〉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남한 입국 전 교육 경험의 특성 ····· 165
〈표 Ⅴ-4〉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남한 입국 과정의 특성 ····· 166
〈표 Ⅴ-5〉 남한 입국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이 경험하는 사회환경의 특성 ····· 167
〈표 Ⅴ-6〉 남한 입국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이 경험하는 학교환경의 특성 ····· 168
〈표 Ⅴ-7〉 남한 입국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이 경험하는 가정환경의 특성 ····· 168
〈표 Ⅴ-8〉 남한 입국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학습영역 적응과정의 특성 ····· 169
〈표 Ⅴ-9〉 남한 입국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심리영역 적응과정의 특성 ····· 170
〈표 Ⅴ-10〉 남한 입국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관계영역 적응과정의 특성 ····· 170
〈표 Ⅴ-11〉 남한 입국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사회영역 적응과정의 특성 ····· 171

그 림 목 차

[그림 Ⅱ-1]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연구모형 ····· 23

PAR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1~4차 조사 결과 요약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남북한 통일을 위한 각 분야의 준비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탈북청소년의 사회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교육 분야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은 남북한의 사회적 격차, 교육공백에 따른 학업부진 및 남북한 교육의 차이, 가정환경의 차이[1]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에서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2] 이를 위해 교육 분야에서 국내 입국 탈북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3]

그동안 탈북청소년의 사회 및 학교 적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가 수행되었다.[4]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탈북청소년의 적응 관련 문제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5] 연구를 통해 발견한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주로 '결과' 측면에서 다룸으로써 그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6]. 이에 따라 탈북청소년 개인의 개별적 특성에 입각하여 적응 및 과정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심층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7]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탈북청소년의 적응 실태와 현황을 '과정(Process)'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가 계획·실시되었다[8].

2010년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총 5차에 걸쳐 실시하는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목적은 첫째,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 적응 과정을 이해하고, 둘째, 연구 결과를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3), 2013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p.45, 이수정(2009), 북한이탈청소년 현황과 대책: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p.18.

2)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 p.3,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I), p.3.

3)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V), p.3, 인용

4)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 p.3, 수정인용,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V), p.4, 수정인용

5)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V), p.3, 인용

6)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V), p.4, 인용

7)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V), p.3.

8)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V), p.4, 인용.

바탕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셋째, 탈북청소년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추후 탈북청소년 교육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9]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의 연구 목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축적된 결과로 파악하고, 그러한 '과정'의 변화 추이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10] 조사대상 탈북청소년으로 구성된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5년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접하는 사건, 경험이 그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 방식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11]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개인, 가정, 사회 등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이기영, 2001; 정병호, 2002; 길은배 외, 2003; 김미숙, 2004; 정병호 외, 2007; 백혜정 외, 2006; 김경준 외, 2008; 한만길 외, 2010; 한만길 외, 2011).[12]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탈북청소년들의 적응 문제를 '결과' 측면에서 다룸으로써 본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13]

둘째,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사회 및 학교 적응 '과정' 에 대한 종단 분석을 통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14] 출생국, 입국시기, 가정환경 등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을 과정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탈북청소년을 동질적인 성격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전체 집단에 대해 정형화된 지원을 제공하던 기존의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15]

셋째,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 관련 연구를 위한 광범위한 자료를 축적하여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 적응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16] 이를 위해 다양한 후속연구 추진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1주기 연구 최종 종료 후 적절한 시점에 데이터를 공개하여 다양한 후속연구 추진을 촉진한다.[17]

---

9)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3.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4, 인용.

10)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4,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3, 재인용,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3, 수정인용,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4, 수정인용.

11)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4, 수정인용,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4, 수정인용.

12) 한만길(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Ⅰ), p258,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4,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4, 재인용,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4, 수정인용

13)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4,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4, 수정,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4, 수정인용,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4, 수정인용.

14)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4, 수정인용

15)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5, 수정,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4, 수정인용

16) 한만길(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Ⅰ), p 195,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5, 수정인용,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4, 수정인용,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5, 수정인용.

2 연구 내용

가. 연구내용 개요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적응 과정'을 시계열 방식으로 분석하여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18]

본 연구에서 '탈북청소년'의 개념은 '부모 중 한쪽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북한 혹은 제3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입국한 학령기 청소년'을 의미한다.[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입국한 자, 즉 북한에서 출생하여 생활한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제3국, 대체로 중국에서 만난 현지인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남한에 동반 입국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20] 이러한 중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법에 근거하여 볼 때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또한 북한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교육 부분에서 체계적 지원의 필요를 가지고 있다.[21] 이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게도 각종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북한출생자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22]

본 연구는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한 2011년 당시 초등 4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5개년 동안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이들의 재학 학교급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학교 및 사회 적응 현황의 특성을 '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한다.[23]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조사 내용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7)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5, 수정,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4, 수정인용,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5, 수정인용.

18)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5, 수정 인용.

19)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26,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19, 수정,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5, 수정인용,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6, 수정 인용.

20) 교육부(2014), 탈북학생 통계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4. 7. 25. 교육부

21) 국가인권위원회(2013), 탈북청소년 교육원 실태조사, 국가인권위, 2013. p. 225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5, 수정인용

23)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5, 수정인용

〈표 Ⅰ-1〉 탈북청소년 교육종단연구 조사 및 분석 내용 개요

영역	내용
탈북청소년 배경 특성	• 배경 요인 • 북한, 제3국 경험 • 탈북과정 경험
탈북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환경 특성	• 가족구성, 부모의 교육 지원 등 가정환경의 변화 요소 • 학교여건, 학습,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 관련 •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징과 그 변화에 대한 자료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 적응 요인 특성	• 학습 및 심리 적응 요인 특성 • 관계 및 사회 적응 요인 특성 • 교육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나. 연차별 연구내용 개요

1) 연차별 연구 계획

총 5년으로 계획된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추진을 위해 우선 2010년에 연구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이후 2011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5차례의 조사 분석을 실시한다. 매년 동일한 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양적 및 질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조사 패널이 순차적으로 진급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조사지 보완 및 추가 조사 문항의 개발을 실시한다. 총 6개년으로 구성된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Ⅰ-2〉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연차별 연구 계획 개요

연도	조사차수	주요 계획	비고
2010년	기초연구	• 선행연구 분석 • 연구모형 설계 • 조사항목 선정 • 조사지 구성(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	
2011년	1차 조사	• 조사지 보완 및 확정 • 패널 구성 • 양적 및 질적 조사 실시(초등, 중학) • 조사자료 분석	
2012년	2차 조사	• 패널관리 • 조사지 보완 및 추가 개발 • 양적 및 질적 조사 실시(초·중·고) • 심리검사 실시(초·중·고) • 조사자료 분석	
2013년	3차 조사	• 패널관리 • 조사지 보완 및 추가 개발 • 양적 및 질적 조사 실시(초·중·고) • 조사자료 분석	조사지 보완 및 추가 개발
2014년	4차 조사	• 패널관리 • 조사지 보완 및 추가 개발 • 양적 및 질적 조사 실시(중·고) • 조사자료 분석	조사지 보완 및 추가 개발
2015년	5차 조사	• 패널관리 • 조사지 보완 및 추가 개발 • 양적 및 질적 조사 실시(중·고, 졸업 1년차) • 조사자료 분석	조사지 보완 및 추가 개발

2) 2010년 기초연구 :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설계[24)]

2010년도에는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25)]

- ○ 조사대상 규모파악
- ○ 연구모형 설계
- ○ 조사지개발 및 조사방법 설계
- ○ 심층면접 계획수립
- ○ 패널 구성 및 유지 방법 설계
- ○ 예비조사 실시 및 분석

24)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6,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6, 재인용

25)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7 재인용,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8, 재인용.

3) 2011~2015년 :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조사 및 분석[26)]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본 조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개년 동안 실시한다.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한국 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들의 학교 및 사회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조사 및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27)]

○ 탈북청소년의 한국 입국 전 경험과 그 영향
○ 가족 구성, 부모의 교육적 지원 등 가정환경
○ 학습,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
○ 심리·정서적 특성 요인

상기 내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학습, 관계, 심리, 사회 등 탈북청소년의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28)]

○ 학업 성취 변화 양상과 영향 요인
○ 학습, 심리, 관계, 사회적응의 변화 양상 및 영향 요인
○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가정의 영향 요인 분석
○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교환경 영향 요인 분석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 교육지원 프로그램 참여 현황 및 효과
○ 탈북청소년의 적응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를 통해 축적한 자료를 추후 학계에 공개하여 후속 연구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후속연구 활성화를 위한 조사자료 DB 구축 및 관리방안
○ 학술대회 등을 통한 후속연구 활성화 방안

26)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6-7,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7-8, 재인용
27)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8 수정 보완,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8, 재인용.
28)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8 수정 보완,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9, 재인용.

다. 2015년 연구내용 :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Ⅵ)

2015년 연구는 본 종단연구의 5년차 조사이다. 이전의 1~4차 조사에 참여한 탈북학생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29] 이후 제5차 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1~4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30]

1) 패널 구성 및 조사 실시

■ 설문지 보완 및 조사지 개발

5차 조사에서는 2014년도의 4차 조사에서 활용한 조사지를 보완하여 5차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우선, 중·고등학교 재학 학생용 조사지를 수정하였고 졸업1년차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교육종단연구 졸업1년차용 조사지를 참조하여 졸업 1년차(대학진학자, 대학진학준비자, 취업자, 취업준비자)용 조사지를 신규 개발하였다.

■ 탈북학생 재학현황 전수 조사 및 제5차 조사 실시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 패널(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31] 이를 통해 1~4차 조사에 참여한 패널을 대상으로 종단연구 제5차 조사를 실시하였다.[32] 조사는 제4차 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원이 패널 대상 학생의 재학 학교에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졸업 1년차의 경우 대상자에 대한 개별 연락 및 접촉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제5차 심층면접 실시[33]

설문조사와 함께 종단연구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학생 담임교사로 구성된 15개 그룹, 총 4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은 1~4차 조사의 심층면접 참여자 가운데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4차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한 심층면접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을 실시하였다.

---

29)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8 수정보완,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9, 수정 인용.
30)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9 수정보완
31)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10, 수정보완
32)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9 수정보완,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10, 수정 보완.
33)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9 수정보완,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10, 수정 보완.

2) 5차 조사 결과 분석

■ 양적 결과 분석

5차 조사 결과에 대한 횡단 분석과 함께 1~5차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 질적 조사 결과 및 적응 과정의 영향 요인 분석

5차년도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 및 학교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34] 또한 1~5차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적응 과정의 특성 및 차이, 주요 영향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35]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샵, 양적 및 질적 조사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전체 탈북청소년의 적응 과정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양적 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개별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다 심층파악하기 위해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36] 이러한 양적 및 질적 조사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 적응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각 연구방법의 개요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문헌연구

연구 실시를 위해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 교육 관련 종단연구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본 조사 연구를 위한 조사 문항 개발에 참조하였다.

나. 전문가 협의회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실시를 위해 연구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진 회의,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 패널 유지, 조사지 개발, 통계 분석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

34)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9,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11, 수정인용,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9 수정보완.

35)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9,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11, 수정인용,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10, 수정 보완.

36)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11, 수정 보완.

다. 워크샵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최종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총 5차에 걸쳐 실시된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성과와 보완점, 연구를 통해 수집한 양적 및 질적 자료의 적절성, 향후 활용 방안 등을 탐색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양적 및 질적 자료 검토, 관련 연구 고찰,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실시방안 탐색 등을 추진하였다.

라. 양적 조사

본 조사는 1~4 조사에 1회 이상 참여한 패널 4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실시를 위하여 먼저 패널에 대한 연락을 실시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패널 학생에게 직접 연락을 실시한 것과 달리 5차 조사에서는 4차 조사에 참여한 패널 학생의 학교 재학 정보를 토대로 소재를 파악하였다. 우선 2014년 재학 학교로 전화, 공문 등을 통해 학생의 진급 유무 및 진급 학년을 파악하였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급한 학생의 경우 이동한 학교나 기타 소재 정보를 파악한 후 해당 학교에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소재를 파악하였다. 졸업 1년차의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계속적인 연구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조사 대상 학생에 대한 명단을 파악하였고 확인한 패널 대상 자료를 토대로 탈북학생 재학학교를 방문하여 종단연구 양적 조사를 실시하였다[37]. 동시에 담임교사를 통해 기초학력 자료를 수집하였다. 졸업 1년차 학생에 대해서는 대상자와의 사전 연락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확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질적 조사

질적 조사는 탈북학생 15명과 학생의 학부모, 교사 각 15명씩 총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1~4차 조사에서 실시한 전체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던 6명의 학생과 3회 이상 참여하였던 5명, 2회 이상 참여하였던 4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올해가 1주기 마지막 조사의 해라는 것을 감안하여 새로운 조사대상자는 추가하지 않았다. 선정된 질적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양적 연구로 파악하기 어려운 가정 및 학교에서의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은 지난 1~4차 조사에서 실시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가운데 5차 면담 과정에서 개인별 특성과 그 형성 배경, 적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하여 종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7)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12, 수정 보완.

4 1~4차 조사 결과 요약[38)]

가. 2011년 제1차 조사 결과

2011년도에 실시한 1차 연구에서는 1) 종단연구 패널 구성 및 조사 실시, 2)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 종단연구의 중요한 변화지표 제안 등을 추진하였다.[39)] 각 연구내용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패널 구성 및 조사시행

1주기 조사의 패널 구성을 위해 1차년도에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탈북학생 재학현황 통계 결과(2011년도 4월 1일자)를 토대로 전국 35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 872명과 그들의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872명 중에서 종단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거나 추후 구두로 동의한 경우의 탈북학생만 최종 패널로 구성하였다. 최종 패널은 146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학생 330명과 87개 중학교의 1, 2, 3학년 학생 131명 등 총 461명이다. 심층면접은 학년과 출생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461명 중에서 31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 학생의 보호자 31명과 교사 26명도 함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표 Ⅰ-3〉 2011년 조사 패널 구성

학년	전체 모집단(명)			패널 집단(명)			모집단 대비 비율(%)		
	태어난 곳		전체	태어난 곳		전체	태어난 곳		전체
	북한	중국		북한	중국		북한	중국	
초4	83	118	201	51	67	118	61.4%	56.8%	58.7%
초5	102	121	223	47	85	132	46.1%	70.2%	59.2%
중6	81	79	160	29	51	80	35.8%	64.6%	50.0%
중1	71	10	81	43	6	49	60.6%	60.0%	60.5%
중2	87	1	88	42	0	42	48.3%	0.0%	47.7%
중3	117	2	119	40	0	40	34.2%	0.0%	33.6%
합계	541	331	872	252	209	461	46.6%	63.1%	52.9%

출처: 한만길(2013), p.51

38) pp.10~15의 내용은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p.12~19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39)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 117 참조

2) 양적 조사 분석 결과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패널로 구성된 461명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학교급에 따른 학생들의 적응양상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중학생과 비교할 때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는 높고, 외재적 동기는 낮았다. 중학생은 한국생활 만족도가 현저히 낮고, 스트레스는 매우 높았으며 주관적 안녕감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교사와의 친밀성이 낮고, 앞으로의 한국생활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적응 정도 측면에서 학년이 낮아질수록,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생활 만족감, 학교생활 만족감이 높은 학생이 입국 후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가족이 미리 와 있던 경우에 적응 정도가 더 높았으며,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적응 정도가 높아졌다.

자아존중감이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성취경험, 교우관계,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진로 성숙도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학교 성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이 남한 입국 과정의 경험 관련, 북한이나 중국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학생이 입국 후에도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과거 경험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관계 측면에서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일수록 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업지원 정도와 교육에 대한 관심도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질적 조사 분석 결과

탈북청소년들의 정체성은 출생지와 정착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국에 있을 때는 탈북민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탈북민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출생 학생은 자신을 중국 사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북한 출생이 아니라는 것으로 자신을 차별화 하였고, 북한출생 학생은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들의 적응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특수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탈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과 재회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 상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들은 부모의 무관

심이나 과도한 기대에 상처받고, 부모를 자랑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갈등을 겪었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 지지, 격려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편입 초기에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2012년 제2차 조사 결과[40)]

1) 패널 구성 및 조사 실시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257명의 학생이 양적 조사에 참여하였다. 257명은 초등학교 5, 6학년 154명, 중학교 1, 2, 3학년 77명, 고등학교 1학년 26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심층면접은 탈북청소년들의 적응수준에 따라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하였고 그들의 부모(30명)와 담임교사(30명)를 포함하여 총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양적 조사 분석 결과

양적 조사 결과, 교사에 대한 인식의 긍정도 측면은 1차 조사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학생용 설문 응답에서 '부모가 담임교사와 상담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0.0%에서 70.9%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거나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다'라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교우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배경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5%에서 10.5%로 낮아져 출신배경에 따른 경험은 긍정적인 변화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습동기는 1차 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내재적 동기보다 외재적 동기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수업이해도에서는 국어와 영어 과목의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수학 과목에서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 경험과 학습효능감은 1차 조사에 비해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학교생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신체 및 심리적 측면에서 1차 조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효능감 그리고 진로의식도 향상되었다. 진로 의식과 관련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여 진로의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0)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한국교육개발원.

3) 질적 조사 분석 결과

질적 조사 결과,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모두 학생이 학교 및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교사의 관심과 지지, 배려가 학생이 적응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년은 지나야 학교문화에 동화되고, 친구관계나 학습적인 면에서도 편해진다고 응답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 1년 정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적응 초기에 친구관계 형성을 중요한 적응 문제로 인식하였다.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은 초기에는 1년이면 충분하지만,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내용의 난이도도 높아져서 기초학력의 보충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 2013년 제3차 조사 결과[41)]

1) 패널 구성 및 조사 실시

3차 조사에서는 2011년 1차 조사에 참여한 본 패널 4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패널 보충을 위해 조사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총 438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1차 조사에만 참여한 학생은 81명이었고, 1~2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은 164명, 3차 조사에만 참여한 학생(보충패널)은 193명이었다. 질적 연구는 양적 조사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30명을 선정하였는데 제 2차년도에 실시한 양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응점수가 낮은 학생 10명, 높은 학생 10명, 그리고 2012년 심층면접대상자 10명의 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30명의 학생과 해당 학생의 교사, 학부모 각 3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총 90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양적 조사 결과와 질적 조사 결과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혼합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양적 조사 분석 결과

양적 조사 결과, 첫째, 탈북학생의 학습적응 수준은 연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즉, 내재적 학습동기, 수업 태도 및 준비, 준법의식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국어와 수학 교과 수업이해 정도는 연차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영어 교과의 수업이해정도는 계속 유사한 수준을 보이

41)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음.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만족도 역시 연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수준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더 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둘째, 탈북학생의 관계적응 요인은 연차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관계적응과 관련하여 '친한 친구수'가 5명에서 10명, 10명에서 20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 학생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교우 관계가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심리건강 적응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및 우울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안녕감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응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진학 수준에서 대학까지 진학하겠다는 응답비율이 연차적으로 증가하였고,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대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질적 조사 분석 결과

질적 조사 결과, 첫째, 탈북학생의 소통경험은 성장의 출발점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학생들은 자기에게 적합한 소통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 친구가 없어 아무와도 놀지 못하다가, 소위 '나쁜 친구'를 사귀어 가출하였던 경험이 있지만 이후 '성실한 친구'를 만나 학교생활을 잘하는 사례와 같이 탈북학생의 소통과 적응은 과정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탈북학생 적응에서 건강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경험하는 불안감, 우울감이 학생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탈북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잘 하려면 심리적 지지자의 도움과 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환경에서 문화충격을 경험하고 심리적 열등감을 느끼면서 혼자 버티기에 어려울 때, 옆에서 이해해주고 응원해 주는 지지자가 있을 경우 학생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탈북청소년의 적응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긍정적 태도와 적극적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적절한 교육환경과 학습기회가 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지지적인 교사나 자신에게 개인적 관심을 가져주는 교사가 있는 경우 학생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탈북학생의 성장과정은 "탈북학생"이라는 단일한 관점에서 파악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고유한 자기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학교안팎의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폭넓게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진보를 이루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2014년 제4차 조사 결과[42)]

1) 패널 구성 및 조사 실시

4차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횡단분석을 실시하는 동시에 1차~4차 조사까지 전체 조사에 참여한 학생(110명)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응답자의 배경변인과 4차에 걸쳐 실시된 종단연구 조사 시기 간의 상호작용, 응답자 배경변인 및 종단연구 조사시기의 주효과 분석(two-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 20명과 그들의 교사, 학부모 각 20명, 총 60명에 대한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적 조사 방법으로는 양적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심층면담 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혼합분석을 실시하였다.

2) 양적 조사 분석 결과

4차 조사 결과, 첫째, 시간이 경과하면서 학교급 간에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조사 차수별로 탈북학생이 인식하는 '가족 유대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피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족의 유대감'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 관련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의 주효과 분석 결과, 조사 차수가 늘어날수록 '학습활동'과 '학교 만족도'가 점차 늘어났고, 중국출생 학생의 '학습활동' 참여가 더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 1차 조사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패널이 중학생이 되면서 내재적 학습동기와 수업이해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1차 조사 당시 중학생이었던 패널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내재적 학습동기와 수업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업이해 정도'는 낮아지고, '수업 태도 및 준비' 또한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관계영역에서 저학년, 중국출신, 학교 재학경험자의 경우 출신 공개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중국출생 보다 북한출생, 피차별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의 스트레스 및 우울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배경변인과 탈북 후 한국입국까지의 기간, 입국 이후 한국 거주 기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탈북 후 입국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교사의 심리적 지지에 대한 인식은 낮았고 입국 후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입국 이후 기간이 길수록 '교우관계', '출신 공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음

3) 질적 조사 분석 결과

질적 조사 결과, 탈북학생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출신 배경과 관련된 특별한 “특성”,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나이 또래 일반 한국학생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 고민과 갈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적응 관련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탈북학생은 중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머니의 중국체류가 길어지면서 여러 명의 아버지와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경우, 아버지 없이 한부모 어머니와 사는 경우, 북한의 원가족이 그대로 이주해온 경우 등 중층적 가족관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성에서 북한에서 일반적이라고 판단되는 자녀교육 방식, 즉 자녀를 “북한식”으로 훈육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 시기에 있는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북한 혹은 중국 배경에 기반을 둔 정체성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양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보다 이러한 특성을 일종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모두 포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탈북학생은 진로 선택에 있어서 일반학생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였는데, 특별전형 방식을 이용해 4년제 대학에 진학함으로서,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따라가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상황, 능력을 고려해 취업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PART

II

조사 설계

1. 연구 모형 및 조사 영역
2. 양적 조사 설계
3. 질적 조사 설계

Ⅱ 조사 설계[43)]

1 연구 모형 및 조사 영역

가. 연구 모형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연구 모형은 기본적으로 2010년에 실시한 기초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1년의 제1차 조사에서 설계·확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제5차 조사 역시 1차 조사와 동일한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그림 Ⅱ-1] 참조).[44)]

연구 모형은 투입-과정-결과 모형으로 구성하였고 조사항목은 불변요인과 시계열적 가변요인으로 나뉜다.[45)] 불변요인은 원칙적으로 1회만 조사하였고, 시계열적 가변요인은 매년 조사하였다.[46)] 시계열적 가변요인에 포함된 변인들은 연구모형 및 방향, 연구의 주제에 따라 과정변인 뿐 아니라 결과변인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47)]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적응 과정을 나타내는 변인을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였다.[48)] 적응변인은 학습적응, 관계적응, 심리적응, 사회적응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적응변인은 기초연구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 적응을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총 10개의 요인(학교적응, 수업이해, 진로의식, 학습효능감, 성취경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교우관계, 시민의식, 한국에 대한 인식)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타당도와 신뢰도를 재검토하여 4개 영역으로 유목화한 것이다(한만길 외, 2010).[49)] 연구 모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50)]

---

43) 동일한 조사설계 방식에 입각하여 반복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본 연구의 특성상 Ⅱ장은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의 pp. 23~42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44) 한만길(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Ⅰ), p205,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59,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70,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15, 재인용,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23, 수정 인용.

45)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59,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70,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15, 수정인용

46)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59,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70,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15, 재인용

47)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59,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70,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15, 수정

48)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59,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70,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15, 재인용

1) 투입 : 입국 전 경험

투입변인은 성별, 연령, 출생지, 거주지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으로 탈북청소년의 북한 경험과 탈북과정 경험으로 구성하였다.[51] 북한에서의 경험은 출신지역, 교육연한, 가족구성, 부모의 직업 등을 포함하고, 탈북과정에서의 경험은 탈북시기, 제3국 체류 지역 및 기간, 체류환경, 제3국 교육연한, 동반가족, 한국입국 시기 등으로 구성하였다.[52]

2) 과정 : 가정 및 학교 환경

과정변인은 크게 가정요인과 학교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가정요인은 거주지, 가족구성,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심리적 적응, 부모의 적응행동, 부모의 교육지원, 부모의 학업성취기대, 가족유대감 등을 포함하였다.[53] 학교요인은 학교기본정보, 담임교사의 특징, 학교의 교육지원제도 등을 조사하였다.[54] 특히 1:1 멘토링 운영, 문화체험 활동, 방과후활동 등 학교의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여 학교 교육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연구할 수 있게 하였다.[55]

3) 결과 : 적응변인

결과변인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학습적응, 관계적응, 심리적응, 사회적응 등으로 구성하였다.[56] 학습적응은 학습동기, 수업태도 및 준비, 수업이해적응, 성취경험, 학교만족도, 성적 등을 포함하였고, 관계적응은 한국친구 수, 북한친구 수, 교우관계, 출신 공개 여부, 학습

---

49)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60,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71,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18, 재인용

50) 한만길(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Ⅰ), p204,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59,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70,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15, 재인용

51) 한만길(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Ⅰ), p199,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59,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70,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15, 재인용

52) 한만길(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Ⅰ), p221-224,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59,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70,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16, 수정 인용, 강구섭(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Ⅴ), p.24, 수정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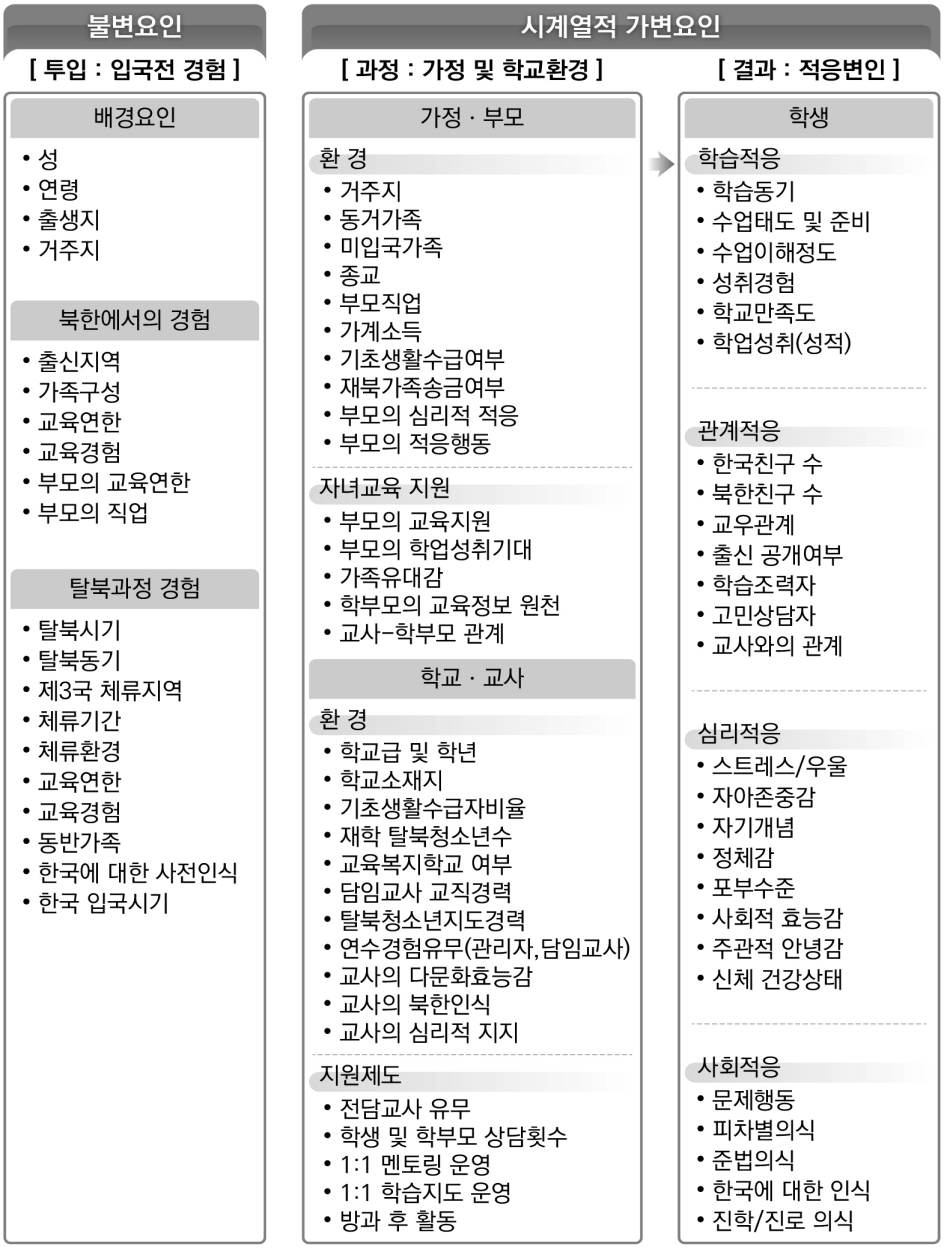
53) 한만길(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Ⅰ), p199-200,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59,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70,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16, 재인용

54) 한만길(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Ⅰ), p200,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59,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70,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16, 재인용

55) 한만길(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Ⅰ), p200,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59,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70,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16, 재인용

56) 한만길(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Ⅰ), p200,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Ⅱ), p.60,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Ⅲ), p.71,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16, 재인용

조력자, 고민상담자, 교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심리적응은 신체 건강상태, 스트레스/우울, 자아존중감, 자기개념, 정체감, 포부수준, 사회적 효능감, 주관적 안녕감 등을 포함하였고, 사회적응은 진로의식, 문제행동, 피차별 의식, 준법의식, 한국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하였다.



[그림 Ⅱ-1]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연구모형

출처: 한만길(2013), p.17

나. 조사 영역

본 연구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 적응 과정을 심층적·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방안 수립에 사용하고 후속 연구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방식으로 조사 영역 및 내용을 구성하였다. 조사 항목 및 항목별 조사방법은 〈표 Ⅱ-1〉와 같다.[57]

〈표 Ⅱ-1〉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조사영역

영역	변인	조사방법					비고
		학생설문	부모설문	교사설문	학교조사	심층면접	
인구통계 요인	• 학생의 학년·성별	√				√	1차년도 조사
	• 학생의 연령·출생지	√	√			√	
	• 부모의 성별·연령		√			√	
	• 교사의 성별·연령 • 교직 경험·재직 경력			√		√	
북한에서의 경험	• 학교생활 경험 • 북한에 대한 자유연상	√	√			√	
	• 출신지역 • 가족 수·가족구성 • 재학여부·재학기간 • 학교 성적	√	√			√	
	• 부모의 교육수준·직업		√			√	
탈북 과정 경험	• 체류 경험 • 중국 학교생활 경험 • 탈북경험에 대한 자유 연상	√				√	
	• 탈북시기·제3국 체류 지역 • 중국 재학 유무·기간 • 중국 학교 성적 • 입국 시기·동반 가족 • 부모와 동반 불가 이유 • 기 정착 가족·가족 구성 • 한국에 대한 정보·원천	√	√			√	
	• 부모의 탈북시기·동기 • 부모의 입국시기 • 부모와의 이산기간		√			√	

57) 한만길(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 p221-224,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 p.60-64,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I), p.73-76,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18, 재인용

영역	변인	조사방법					비고
		학생설문	부모설문	교사설문	학교조사	심층면접	
가정/부모	• 부모에 대한 자유연상	√				√	
	• 부모의 학업성취 기대 • 가족유대감·동거가족 • 미입국 가족·구성 • 부모의 교육지원	√	√			√	
	• 학생 첫 정착지·이사 • 부모의 종교·직업 • 가계소득·수급여부 • 재북가족송금여부		√			√	종단 조사
	• 부모의 스트레스 우울 • 부모자아존중·안녕감 • 부모의 사회적 효능감 • 부모의 피차별의식 • 부모의 재교육여부 • 부모의 정보원천 • 부모한국·북한친구수 • 한국에 대한 인식		√			√	
학교/교사	• 교사의 심리적지지	√				√	종단 조사
	• 멘토링 여부·담당교사 • 방과후 학습 장소 내용	√		√			
	• 학교유형·설립유형 • 학교소재지 • 기초생활수급자 수 • 탈북학생 수 • 교육복투지정 여부 • 전담교사 유무 • 탈북학생지원예산				√		
	• 학습부진 지도·교사 • 학생학부모 상담 지원 • 상담한 학부모			√		√	
	• 탈북학생지도경험경력 • 교사연수 유무·기간 • 연수 도움 정도 • 교사의 다문화효능감 • 교사의 북한인식			√		√	
	• 교사-학생 상담 회수	√	√			√	

영역	변인	조사방법					비고
		학생설문	부모설문	교사설문	학교조사	심층면접	
학습	• 내재적·도구적동기 • 부과된 학습동기 • 학습효능감·성취경험 • 학교만족도 • 학교·학습 자유연상	√				√	종단 조사
	• 수업태도 및 준비 • 수업이해·협력학습	√		√		√	
	• 사교육 여부·사교육비		√	√		√	
심리	• 스트레스/우울 • 자아존중감 • 사회적·공적 자기개념 • 정체감·안녕감 • 사회적 효능감	√				√	
	• 신체 건강상태 • 교육포부 수준	√	√	√		√	
관계	• 교우관계	√		√		√	
	• 출신공개여부·희망	√				√	
	• 한국·북한친구 수 • 학습조력·고민상담자	√	√			√	
사회적응	• 진학·진로계획 • 피차별의식·차별자 • 차별내용·준법의식 • 한국에 대한 인식	√		√		√	

출처: 한만길(2013), pp. 18~21, 강구섭(2014), pp.27-30 수정

2 양적 조사 설계[58)]

가. 양적 조사 문항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이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은 탈북청소년들의 생활 전반에 대해 자신의 상태를 정량, 정성 혹은 자유 기술 형태로 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59)] 조사지 문항은 〈표 Ⅱ-2〉에 제시하였다.[60)] 5차년도 조사에서는 3, 4차년도 연구와 동일하게 학부모 대상 양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 및 교사 대상 설문조사만 실시하였다. 이는 지난 1, 2차년도 조사 실시 결과, 학부모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연구 여건 상 시간과 비용 소요가 큰 탈북학부모 대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3, 4차 년도와 동일하게 학부모 조사문항 관련 필수 문항을 선정하여 학생용 또는 교사용 조사지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부모 관련, 교육수준, 북한에서의 부모 직업, 현 부모의 직업, 가구소득 등에 관한 문항은 학생용 조사지에 추가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문항은 교사용 조사지에 추가하였다.

〈표 Ⅱ-2〉 탈북청소년 교육종단연구 학생용 조사지 문항

영역	변인	문항번호
인구통계요인	• 학교/학년/반/번호/담임선생님 성함	1.
	• 성별	2.
	• 출생년도	3.
	• 출생지	4.
가족 구성	• 미입국가족 유무 및 구성	5. 1)
	• 초기 가족 구성	5. 2)
	• 현재 가족 구성	5. 3)
	• 부모 이산 기간	6.
	• 현재 부의 직업	7.
	• 현재 모의 직업	8.
	• 현재 가족 월평균 소득	9.

58) 출처: 강구섭(2014), pp.31 수정 보완

59)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 p.77,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I), p.64,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22, 재인용

60) 한만길(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 p227 표 수정,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 p.77-79,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I), p.65-66,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22, 재인용

영역	변인	문항번호
북한에서의 경험	• 북한 거주 경험	10. 1)~4)
	• 북한 학교 재학 경험	11. 1)~5)
	• 북한에 대한 자유연상	12.
중국에서의 경험	• 중국 체류 경험	13. 1)~4)
	• 중국 학교 재학 경험	14. 1)~5)
	• 중국에 대한 자유연상	15.
탈북과정경험	• 한국에 대한 사전 정보	16. 1)~9)
	• 탈북 과정에 대한 자유연상	17.
	• 한국 도착에 대한 자유연상	18.
가정/부모	• 부모의 교육지원	19. 1)~5)
	• 가족유대감	20. 1)~4)
학교/교사	• 심리적 지지 가족	20–1)
	• 담임교사유대감	21. 1)~3)
	• 멘토 교사 유무	22.
	• 방과후 학교 참여 유무	23.
	• 방과후 학교 담당 교사	23–1)
	• 방과후 학교 학습 내용	23–2)
	• 방과후 학교 학습 시간(4차 조사 추가 문항)	23–3)
	• 복지관 학습 유무	24.
	• 복지관 학습 내용	24–1)
	• 복지관 학습 시간(4차 조사 추가 문항)	24–2)
	• 학원 학습 유무	25.
	• 학원 유형	25–1)
	• 학원 학습 시간	25–2)
	• 기타 학습 유무	26.
	• 기타 학습 장소	26–1)
	• 기타 학습 시간(4차 조사 추가 문항)	26–2)
	• 교육지원 유무 및 도움 정도 (1:1 멘토링, 부진한 과목에 대한 학습지도, 문화체험 활동)	27. 1)~3)
학습적응	• 내재적 학습동기	28. 1)~3)
	• 도구적 학습동기	28. 4)~6)
	• 부과된 학습동기	28. 7)~8)

영역	변인	문항번호
학습적응	• 수업태도 및 준비	29. 1)~5)
	• 과목별 수업 이해 적응(국어, 수학, 영어)	30. 1)~3)
	• 학습효능감	31. 1)~4)
	• 성취경험	32. 1)~4)
	• 학교만족도	33. 1)~6)
신체·심리적응	• 신체 건강상태	34.
	• 스트레스/우울	35. 1)~10)
	• 자아존중감	36. 1)~5)
	• 자기개념	37. 1)~4)
	• 사회적 효능감	38. 1)~4)
	• 주관적 안녕감	39. 1)~6)
관계적응	• 교우관계	40. 1)~3)
	• 친한친구 수	41.
	• 출신공개 여부	42.
	• 출신공개 희망	43.
	• 학습조력자	44.
	• 고민상담자	45.
사회적응	• 진학 희망 수준(5차 조사 추가 문항)	46.
	• 진학·진로계획(2차 조사 추가 문항)	47. 1)~4)
	• 피차별의식	48.
	• 차별자	48–1)
	• 차별내용	48–2)
	• 준법의식	49. 1)~3)
	• 한국에 대한 인식	50. 1)~4)
1년 전과 비교	• 1년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정도	51. 1)~10)
장래 직업	• 장래 직업 결정 여부	52.
	• 장래 희망직업(3차 조사 추가 문항)	52–1)
	• 직업 희망 이유(3차 조사 추가 문항)	52–2)
	• 진로 관련 유의미 타자(4차 조사 추가 문항)	52–3)
고등학교 이후 진로	• 진로 관련 경험	53. 1)~5)
	• 졸업 후 계획(3차 조사 추가 문항)	54.
	• 대학 전공 선택 여부(3차 조사 추가 문항)	54–1)
	• 대학 희망 전공(3차 조사 추가 문항)	54–1)
	• 전공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3차 조사 추가 문항)	54–2)

영역	변인	문항번호
고3(대입준비반)	• 고3이 된 이후 진로 관련 경험(4차 조사 추가 문항)	55. 1)~5)
	•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4차 조사 추가 문항)	56. 1)~10)
	• 진학 관련 정보 습득 경로(4차 조사 추가 문항)	57.
고3(취업준비반)	• 고3이 된 이후 진로 관련 경험(4차 조사 추가 문항)	58. 1)~5)
	• 취업하려는 이유(4차 조사 추가 문항)	59.
	• 취업 관련 정보 습득 경로(4차 조사 추가 문항)	60.

출처: 한만길(2013), p.22-25의 표를 2015년 조사항목에 맞춰 수정 보완함.

5차년도 조사에서는 고교 졸업1년차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졸업1년차용 조사지를 신규 개발하였다. 졸업1년차용 조사지는 기존 학생용 조사 내용 가운데 가정/부모, 신체 및 심리적응, 관계적응, 사회적응 영역의 조사 내용 이외에 대학진학·대학 진학 준비, 취업·취업준비 등의 상황에 있는 조사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즉, 조사대상자 가운데 대학생의 경우 희망 진로, 대학에서의 학습 및 생활 상황, 대학 소속감, 대학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 대학생활 관련 추후 계획,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조사지를 구성하였고 대학진학 준비자의 경우, 진학희망 전공, 전공선택 시 우선순위, 대학 진학의 이유, 진학정보 습득 경로, 대학 진학 준비 방법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한 이유, 취업준비 경험, 추업정보 습득 경로, 현재 취업중인 직장 생활 관련 내용, 직장생활의 어려움, 향후 계획 등으로 구성하였고, 취업준비자 대상 문항의 경우 장래희망 직업, 장래희망직업 선택의 이유, 희망직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인물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표 Ⅱ-3〉 참조).

〈표 Ⅱ-3〉 5차 조사 신규 개발 조사 문항(졸업 1년차용) 주요 내용

영역	변인	문항번호
인구통계요인	• 소속기관(학교/직장/학원)	1. 1 -1)
	• 성별	2.
	• 출생년도	3.
	• 출생지	4.
가정/부모	• 가족유대감	5.
	• 심리적 지지 가족	6.

영역	변인	문항번호
신체·심리적응	• 신체 건강상태	7.
	• 스트레스/우울	8. 1)~10)
	• 자아존중감	9. 1)~5)
	• 자기개념	10. 1)~4)
	• 사회적 효능감	11. 1)~4)
	• 주관적 안녕감	12. 1)~6)
관계적응	• 교우관계	13. 1)~3)
	• 친한친구 수	14.
	• 출신공개 여부	15.
	• 출신공개 희망	16.
	• 고민상담자	17.
사회적응	• 진학·진로계획	18. 1)~4)
	• 피차별의식	19.
	• 차별자	19-1)
	• 차별내용	19-2)
	• 준법의식	20. 1)~3)
	• 한국에 대한 인식	21. 1)~4)
1년 전과 비교	• 1년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정도	22. 1)~10)
장래 직업	• 장래 직업 결정 여부	23.
	• 장래 희망직업	23-1)
	• 직업 희망 이유	23-2)
	• 진로 관련 유의미 타자	23-3)
학습 태도	• 수업 질문	24-1)
	• 논리적 주장	24-2)
	• 학습 도전	24-3)
	• 자발적 글쓰기 연습	24-4)
	• 자료 검색	24-5)
	• 자발적 학습	24-6)
	• 실수의 인정	24-7)
	• 피드백 요청	24-8)
수업 중 활동	• 토론 참여	25-1)
	• 질문	25-2)
	• 팀 프로젝트 참여	25-3)
	• 발표	25-4)
	• 수업 준비	25-5)

영역	변인	문항번호
수업 참여	• 결석	26-1)
	• 지각	26-2)
	• 과제물 기한 엄수 여부	26-3)
	• 수업 중 수면	26-4)
	• 수업 중 잡담	26-5)
	• 출석 후 결석	26-6)
	• 수업 중 음악 청취	26-7)
	• 수업 중 인터넷 검색	26-8)
	• 수업 중 문자	26-9)
	• 시험 중 부정행위	26-10)
	• 과제물 표절	26-11)
	• 과제물 타인 작성	26-12)
	• 대리 출석	26-13)
대학 생활 인식	• 학과(학부) 소속감	27-1)
	• 대학 소속감	27-2)
	• 학과(학부) 자존감	27-3)
	• 대학 자존감	27-4)
	• 학과(학부) 소외감	27-5)
	• 동료 학생간 친근 여부	27-6)
	• 자퇴 희망	27-7)
	• 친구 교제	27-8)
	• 대학생활 활동	27-9)
대학 생활 평가	• 대학에 다니는 이유	28-1)
	• 수업 및 과제의 난이도	28-2)
	• 학습의 열심	28-3)
	• 다양한 활동의 여부	28-4)
	• 시간의 효율적 사용	28-5)
	• 대학교육에 대한 회의	28-6)
	• 대학 학습 흥미	28-7)
	• 대학 내 심리적 동조 친구	28-8)
대학 활동 계획	• 편입 계획	29-1)
	• 전과 계획	29-2)
	• 희망 진로 변경	29-3)
	• 휴학 계획	29-4)
	• 자퇴 계획	29-5)
	• 근로(아르바이트) 계획(학비)	29-6)
	• 국제 교류프로그램 참가	29-7)
	• 유학 계획	29-8)
	• 주전공 이외 전공 선택	29-9)
대학 중 어려운 점	• 기초 학습 능력 부족	30. 1)
	• 한국 사회 지식 부족	30. 2)
	• 대학 생활 지식 부족	30. 3)
	• 친구 교제 어려움	30. 4)

나. 조사 대상자

1) 조사 패널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2011년도에 실시된 1차년도 조사 당시 조사대상자 집단(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에 재학 학생, 872명)을 패널 모집단으로 구성하였다.[61)]

〈표 Ⅱ-4〉 패널 모집단의 시도별 재학 현황(2011년 4월 기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합계	중학교 합계	전체합계	시·도별 비율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53	70	56	35	25	42	179	102	281	32.2%
부산	11	12	12	3	1	6	35	10	45	5.2%
대구	11	9	4	2	2	1	24	5	29	3.3%
인천	34	28	19	6	9	16	81	31	112	12.9%
광주	7	4	1	4	2	1	12	7	19	2.2%
대전	1	1	0	0	3	2	2	5	7	0.8%
울산	2	2	1	1	2	1	5	4	9	1.1%
경기	48	55	32	22	29	31	135	82	217	24.8%
강원	4	3	5	1	3	2	12	6	18	2.1%
충북	1	6	5	1	2	2	12	5	17	1.9%
충남	5	7	8	2	2	3	20	7	27	3.1%
전북	1	2	5	1	1	3	8	5	13	1.5%
전남	3	4	1	3	0	2	8	5	13	1.5%
경북	8	8	6	0	3	3	22	6	28	3.2%
경남	11	11	5	0	2	3	27	5	32	3.7%
제주	1	1	0	0	2	1	2	3	5	0.5%
계	201	223	160	81	88	119	584	288	872	100%

출처: 이향규(2011), p. 26.

1차년도 조사대상자인 초등 4학년 이상 중학 3학년 이하 학생들은 5년 후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시점에 다다르며 일부는 조기에 학교를 떠나 학교 밖에서 생활을 할 것으로 추정하였다.[62)] 이러한 다양한 경우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되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학령기 청소년들에 초점을 맞추어

61)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 p.53,55,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I), p.63,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25, 재인용

62)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 p.56,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I), p.66,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26, 수정 인용

연구를 진행하였다.[63]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패널 설계 개요를 제시하면 〈표 Ⅱ-5〉와 같다.[64]

〈표 Ⅱ-5〉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패널 설계

<table>
<tr><th rowspan="2">연차</th><th colspan="3">초등학교</th><th colspan="3">중학교</th><th colspan="3">고등학교</th><th colspan="5">중도 이탈/졸업 1년차</th></tr>
<tr><th>4</th><th>5</th><th>6</th><th>1</th><th>2</th><th>3</th><th>1</th><th>2</th><th>3</th><th>1년</th><th>2년</th><th>3년</th><th>4년</th><th>5년</th></tr>
<tr><td>2011</td><td colspan="6">1차 조사 및 분석 (6개 학년 코호트)</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2012</td><td></td><td colspan="5">2차 조사 및 분석</td><td></td><td></td><td>학교밖
청소년</td><td></td><td></td><td></td><td></td></tr>
<tr><td>2013</td><td></td><td></td><td colspan="5">3차 조사 및 분석</td><td></td><td>학교밖 청소년</td><td></td><td></td><td></td><td></td></tr>
<tr><td>2014</td><td></td><td></td><td></td><td colspan="5">4차 조사 및 분석</td><td colspan="3">학교밖 청소년</td><td></td><td></td></tr>
<tr><td>2015</td><td></td><td></td><td></td><td></td><td colspan="5">5차 조사 및 분석(졸업1년차)</td><td></td><td colspan="3">학교 밖 청소년</td><td></td></tr>
</table>

※ 2015년 조사에서 빗금친 부분은 정규학교 재학생 패널 가운데 일부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입학이나 취업 등으로 진로 1년차로 편입하므로, 이 집단과 신규 발생한 학교밖 청소년 집단이 진로1년차에서 겹칠 수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출처: 한만길(2013), p.27

2) 조사 대상자 선정

다음 〈표 Ⅱ-6〉에는 조사시기별 응답자수와 응답률을 제시하였다. 1차 조사는 총 87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461명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52.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461명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 257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55.7%의 응답률을 보였다. 3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참여한 461명과 추적이 불가능한 패널을 보충하기 위해서 1차 조사 비참여자 중에서 보충패널 193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4차 조사에서도 보충패널 139명을 추가 조사대상자로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에 실시한 제5차 조사는 2010년부터 시작한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마지막 조사이기 때문에 2014년도 조사 당시 구축한 패널, 총 48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규패널 보충을 하지 않았다.

〈표 Ⅱ-6〉 조사시기별 응답자수와 응답률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5차 조사
응답수	461 (52.9%)	257 (55.7%)	438 (67.0%)	487 (61.4%)	415(85.2%)
무응답수	411 (47.1%)	204 (44.3%)	216 (33.0%)	306 (38.6%)	72(14.8%)
총 표본수	872 (100.0%)	461 (100.0%)	654 (100.0%)	793 (100.0%)	487 (100.0%)

주: 괄호 속은 조사시기별 응답과 무응답의 백분율

63)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 p.57,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I), p.66,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27, 재인용

64) 이향규(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 p.57, 이강주(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I), p.67,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27, 재인용

다음 〈표 Ⅱ-7〉에서는 탈북종단연구 DB에 포함된 전체 표본의 조사시기별 조사 참여 현황을 제시하였다. 1차 조사부터 5차 조사 까지 각각 461명, 257명, 438명, 487명, 415명이 참여하였는데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461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차 조사는 2차 조사에 참여한 257명 외에 추가로 193명을 조사하였다. 4차 조사는 3차 조사에 참여한 438명 이외에 추가로 139명을 조사를 실시하였다. 5차 조사는 4차 조사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Ⅱ-7〉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의 숫자는 각 조사시기별 참여자 수이며, 무색으로 처리된 부분의 숫자는 비참여자 수이다.

〈표 Ⅱ-7〉 조사시기별 조사 참여 현황

<table>
<tr><th>1차 조사</th><th>2차 조사</th><th>3차 조사</th><th>4차 조사</th><th>5차 조사</th></tr>
<tr><td rowspan="12">461</td><td rowspan="6">257</td><td rowspan="3">164</td><td rowspan="2">110</td><td>96</td></tr>
<tr><td>14</td></tr>
<tr><td>54</td><td>54</td></tr>
<tr><td rowspan="3">93</td><td rowspan="2">34</td><td>28</td></tr>
<tr><td>6</td></tr>
<tr><td>59</td><td>59</td></tr>
<tr><td rowspan="6">204</td><td rowspan="3">81</td><td rowspan="2">48</td><td>45</td></tr>
<tr><td>3</td></tr>
<tr><td>33</td><td>33</td></tr>
<tr><td rowspan="3">123</td><td rowspan="2">24</td><td>20</td></tr>
<tr><td>4</td></tr>
<tr><td>99</td><td>99</td></tr>
<tr><td rowspan="9">411</td><td rowspan="9">543</td><td rowspan="3">193</td><td rowspan="2">132</td><td>109</td></tr>
<tr><td>23</td></tr>
<tr><td>61</td><td>61</td></tr>
<tr><td rowspan="3">332</td><td rowspan="2">139</td><td>119</td></tr>
<tr><td>20</td></tr>
<tr><td>262</td><td>262</td></tr>
<tr><td>872</td><td>1,004</td><td>986</td><td>1,055</td><td>1,055</td></tr>
</table>

〈표 Ⅱ-7〉의 조사참여자와 비참여자를 합산한 전체 수는 조사 대상 학년 학생의 전체 숫자를 의미함. 2015년도의 경우 추가 패널을 확보하지 않고 2014년에도 참여하였던 패널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2014년도와 동일함.

다음 〈표 Ⅱ-8〉에서는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1~5차)의 학년별 응답자수를 제시하였다. 5차 조사에는 중학교 2학년 97명, 3학년 116명, 고등학교 1학년 74명, 2학년 45명, 3학년 51명, 졸업 1년차 32명이 참여하였다.

〈표 Ⅱ-8〉 조사시기별 학년별 응답자수

구분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졸1	합계
1차	111	127	77	47	39	38					461
2차		69	85	34	25	18	26				257
3차			118	93	74	48	46	62			438
4차				104	120	87	49	55	72		487
5차					97	116	74	45	51	32	415

다. 양적 조사 결과 분석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양적 조사 결과 분석은 크게 횡단분석과 종단분석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횡단분석은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중2~고3 학생 385명의 조사 결과와 졸업1년차 대상자 32명의 조사결과를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연도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종단분석은 1차 조사 부터 5차 조사까지 전체 조사에 참여한 학생 96명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종단분석은 21개 문항의 응답결과에 대한 응답자의 배경변인과 5차에 걸쳐 실시된 종단연구 조사 시기 간의 상호작용, 응답자 배경변인 및 종단연구 조사시기의 주효과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응답자 배경변인을 피험자간 요인(between- subjects factor)으로 하고 조사 시기를 피험자내 요인(within-subjects factor)으로 하는 이원분산분석(two-way Analysis of Variance)과 이에 따른 다변량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21개 문항의 응답결과와 탈북이후 국내 입국까지의 기간과 입국이후 기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의 해석은 검정통계량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만 시도하였다.

3 질적 조사 설계

가. 조사 내용

지난 5년 동안 매해 시행한 질적 연구의 목적은 그 전년도의 양적, 질적 연구 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되어 구체화되었다. 즉 처음 실시한 2010년도 질적 연구는 예비조사 성격으로 6년간의 종단연구 수행을 위한 기본 설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1년도는 정착기간별 탈북학생 적응변화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주목하였고, 2012년도는 2011년 연구결과에 따라 특히 '관계

망' 형성 및 변화와 학교급별 진학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2013년에는 2011년부터 1,2,3차에 걸쳐서 이미 면접한 대상자들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2011년에 실시했던 면접의 대상자들을 동일하게 2013년에 다시 면접함으로써, 지난 2년 동안 가정과 학교생활의 환경적 변화, 그리고 개인별 심리 정서적·사회적 적응변화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에는 2011년과 2012년, 2013년도에 질적 조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추적 조사하여 개별학생들의 성장 변화과정을 기술하였다. 특히 이들의 출신지 정체성과 가족과의 관계가 자신을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5년 질적 연구는, 1주기 5년간 종단연구의 마지막 조사이므로, 우선 지난 4년간 매년 질적 연구에 참여했던 6명의 학생들을 면접하여 5년에 걸친 인터뷰를 완료하였다. 2015년 질적 조사 대상자는 학생 15명과 그 부모 및 교사(대학생의 경우 친구 등 유의미한 타자) 등 총 45명으로 하였다. 대상 학생들은 모두 지금까지 종단연구에 2번 이상 참여한 학생들로서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이 한국사회 정착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국사회나 통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탈북청소년 교육종단연구 질적 연구 내용 및 방법의 기본토대는 이미 2010년 탈북청소년 교육종단연구 설계를 위해 시행된 예비조사를 통해서 설계되었다. 조사내용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다.[65)]

〈표 Ⅱ-9〉 심층면접 질문지 내용

대상	심층면담 내용	
학생, 학부모	1. 북한에서의 생활 - 북에서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 북에서의 학교생활 - 전반적인 고향에 대한 이해 2. 탈북동기 및 탈북(입국)과정 - 탈북시기 및 탈북동기 - 탈북동반가족 - 중국 및 제3국에서의 생활 - 입국 전 한국사회에 대한 생각 - 한국문화를 접한 요소 - 북에 남겨둔 가족 연락망, 송금여부 3. 입국초기 교육 (하나원 재원시) - 학교생활 -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 북한 및 중국학교와 차이점 - 교사/교우와의 관계 - 남한생활에 대해 기대하는 점	7. 방과후 교육활동 - 지역교육기관 교사/교우와의관계 - 교육지원의 효과 8. 꿈, 진로 - 진로진학에 대한 생각 - 적응정도에 대한 자기 평가 - 미래의 꿈, 하고 싶은 일 - 현재의 고민, 어려운 일 9. 한국 사회에 대한 생각 - 한국 사회에 대한 생각 - 한국에서 성공한 삶 - 한국 사회의 적응 10. 북한 사회에 대한 생각 - 북한에 대한 기억 - 남한에서 본 북한 11. 통일에 대한 생각 - 통일 희망 여부, 이유

65)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47, 수정인용

대상	심층면담 내용	
학생, 학부모	4. 하나원 퇴소 후 문화충격 – 정착지의 생활과 적응 – 문화적 충격 5. 학교생활 – 학교 입학과정(조언자) – 입학시 학년배치 과정 – 출신공개 여부(정체성) – 학교생활의 즐거운 점/어려운 점 – 북한학교와 차이점 – 학업 및 수업 이해도 – 교사/교우관계 –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6. 가정생활 – 현 가족관계(동거인) – 부모직업/부모에 대한 불만(학생) – 부모의 역할 – 부모/자녀관계	– 통일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12. 내 삶의 주요한 선택들 – 인생의 고비 선택의 문제 – 과거 고비에 대한 선택 13. 탈북 출신 공개 여부 – 탈북 출신 공개 여부 – 공개 유무관, 이유 – 남자친구(여자친구)공개 여부 14. 기타 – 가족관계 변화 – 자신에 대한 이해 – 행복의 기준 – 회고적 기억 – 앞으로의 계획, 꿈, 희망 *9~14는 1주기 연구의 종합 분석을 위해 2015년 추가
교사	1. 교사의 일반 정보 – 탈북청소년을 지도해 본 경험 유무 – 탈북청소년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2. 탈북청소년에 관한 정보 – 학생의 인적 및 가족사항 – 학생의 특성 – 학생의 학업능력, 교우관계, 수업태도 3. 탈북청소년 지도 및 지원 상황 – 지도 방법 및 방향성 – 학교 특별 지원 – 학습향상을 위한 특별지도 여부 – 지도시 어려운 점 – 지도시 보람을 느꼈던 점	4. 탈북청소년 학부모와의 관계성 – 학부모 면담 횟수 및 내용 – 학부모의 특징 – 학부모 상담시 어려운 점 5. 북한에 대한 의식, 가치관 –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 탈북청소년 교육관련 연수, 통일교육 등 교외 활동 참여 여부 – 탈북청소년의 특징 파악 6. 교육적 지원 개선 방향 – 학교 적응을 위한 교사, 학교, 사회의 지원방향 및 개선점

출처: 강구섭(2014), pp.38–39, 수정

나. 조사 대상자

2015년 5차 조사에서는 학생 15명, 학부모(어머니) 15명, 교사 12명,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담임교사가 없으므로 학생이 언급한 유의미한 타자(언니, 친구, 멘티학생)를 면접하였다. 2015년 면접 학생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① 2011년부터 매년 질적 조사에 참가하였던 학생 6명(2015년 포함 총 5회)

②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회 이상 질적 연구에 참석한 대상자 9명

2011년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은 2015년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1년차(대학생)가 되었다. 15명 가운데 중학교 학생이 7명 (중2 1명, 중3 6명) 고등학생 학생이 5명, 대학교 학생이 3명이었다. 중학생 7명 중 4명은 중국에서 출생한 학생이고 나머지 3명은 북한에서 출생한 학생이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모두 북한 출생 학생이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5년에서 10년간 거주한 학생들로 한국사회에 장기간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면접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Ⅱ-10〉 2015년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질적 연구 대상자

	현학년	sid	출생지	이름 (가명)	성별	출생 년도	입국 년도	이전면접년도
1	중2	219	중국	이혁범	남	2000	2007	12,13,14
2	중3	358	북한	강 혁	남	2000	2009	11,13,14
3	중3	221	북한	최희석	남	1999	2007	11,12,13,14
4	중3	175	중국	이현미	여	2000	2008	11,12,14
5	중3	410	중국	김 현	남	1999	2010	12,14
6	중3	316	중국	권영철	남	1999	2007	12,14
7	중3	140	중국	김기현	남	1999	2010	11,13
8	고1	389	북한	김영우	남	1998	2007	11,12,13,14
9	고2	278	북한	이혜선	여	1998	2007	11,12,13,14
10	고2	277	북한	조은향	여	1996	2008	12,13,14
11	고2	459	북한	고성훈	남	1995	2005	12,13,14
12	고3	337	북한	백철민	남	1996	2009	11,13
13	대1	247	북한	장은하	여	1995	2006	11,12,13,14
14	대1	298	북한	채연화	여	1995	2008	11,12,13,14
15	대1	290	북한	강철우	남	1994	2010	11,12,13,14

다. 조사 방법

면접은 전문면접원 3명이 학생의 가정과 학교, 기타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수행하였다. 전문면접원은 모두 인류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로 종단연구를 실시 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터뷰를 담당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와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어 있었다. 전문면접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Ⅱ-11〉 질적 조사 담당 전문 면접원

이름	성별	전공	학위	연구참여기간	면접대상자
박재홍	남	문화인류학	석사	2011-2015	김영우, 백철민, 장은하, 채연화, 강철우
명수민	남	교육학 (교육인류학)	석사	2011-2015	강혁, 최희석, 김현, 권영철, 김기현
정은지	여	문화인류학 상담심리	석사	2011-2015	이혁범, 이현미, 이혜선, 조은향, 고성춘,

면접원은 면접 진행 전에 KEDI의 생명윤리심의(IRB) 규정에 따라 연구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는 설명서를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면접대상자에게 면접 진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에 면접을 진행하였다.

라. 질적 조사 결과 분석

1주기 마지막 조사인 2015년 질적 연구 결과는 심층면담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의 면담자료를 참고하여 5년간의 생활을 종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1차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인터뷰 녹취록 등의 면담 자료를 숙독한 후, 학생과 가족이 한국에 오게 된 기본적인 삶의 궤적을 재구성하고, 특히 지난 5년 간 있었던 삶의 변화를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기본적인 면담 내용인 학습적응 영역(수업이해, 학습효능감, 성취경험, 학교만족도 등), 신체·심리적응 영역(신체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관계적응 영역(교우관계), 사회적응 영역(진학진로계획, 한국생활만족도)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면담 대상 학생들은 모두 10대 중후반의 청소년기로, 개인의 삶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시기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자신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 학교나 진로에 대한 생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변화하는지, 대상자의 생각이나 행동이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올해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있으므로 고교 졸업이후의 진학과 진로과정, 정규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진입한 졸업1년차로서 한국사회 정착에 대한 자기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PART III

양적 조사 결과 분석

1. 5차 조사 결과 횡단 분석
2. 1~5차 조사 결과 종단 분석
3. 소결

Ⅲ 양적 조사 결과 분석

1 5차 조사 결과 횡단 분석

가. 인구 통계학적 분포

1) 출생국, 학교급, 학년별 성별 분포

5차년도 조사 참여자의 출생국, 학교급 및 학년, 성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북한출생은 243명, 중국출생은 172명으로 북한출생이 중국출생보다 다소 많았다. 학교급별 현황을 보면 중학교 단계에서는 북한출생이 84명, 중국출생이 129명으로 중국출생 학생이 45명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북한출생이 129명, 중국출생이 44명으로 북한출생 학생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1년차 32명은 모두 북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는 재학생은 남학생 187명, 여학생 196명, 졸업생은 남성 21명 여성 11명이었고, 전체적으로는 남성 208명, 여성 209명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4차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북한출생 학생은 50명, 중국출생 학생은 15명이 적었다(〈표 Ⅲ-1〉 참조). 전체적으로 낮은 학년 단계에서 중국출생 학생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교육지원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 출생국 학교급 학년별 성별 분포

구분	2014 조사자						2015 조사자					
	북한출생			중국출생			북한출생			중국출생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초4	–	–	–	–	–	–	–	–	–	–	–	–
초5	–	–	–	–	–	–	–	–	–	–	–	–
초6	–	–	–	–	–	–	–	–	–	–	–	–
중1	19	27	46	25	29	54	–	–	–	–	–	–
중2	17	23	40	43	35	78	20	25	45	25	27	52
중3	21	17	38	20	28	48	16	23	39	44	33	77
고1	26	18	44	3	2	5	20	15	35	15	24	39
고2	24	31	55	0	0	0	23	18	41	2	2	4
고3	42	28	70	1	1	2	22	29	51	0	0	0
졸	–	–	–	–	–	–	21	11	32	0	0	0
계	149	144	293	92	95	187	122	121	243	86	86	172
전체	480						417(무응답 여성 2명 포함)					

2) 출생연도별 학년 분포

출생연도별 학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37.9%(146명)가 자신의 연령에 해당하는 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 전체 214명 가운데 42.5%(91명)가 자신의 연령에 해당하는 학년에 다니고 있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170명 가운데 32.4%(55명)가 자신의 해당 연령 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다. 자신의 연령에 해당하거나 1년 낮은 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는 중학생은 186명(86.9%), 고등학생은 116명(68.2%)이었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자기 연령 학년보다 낮은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학년에 재학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전체 51명 가운데 7명(13.7%)만 자신의 연령에 해당하였고, 적정 연령 학년에 재학 중인 비율이 가장 높은 학년은 중3(48.3%)이었다(〈표 Ⅲ-2〉 참조).

〈표 Ⅲ-2〉 출생연도별 학년 분포

구분	중2		중 3		고1		고2		고3		졸업생		전체	
	N	%	N	%	N	%	N	%	N	%	N	%	N	%
1991년생 (만24세)											1	3.1	1	0.2
1992년생 (만23세)											2	6.3	2	0.5
1993년생 (만22세)											1	3.1	1	0.2
1994년생 (만21세)									4	7.8	16	50.0	20	4.8
1995년생 (만20세)							3	6.7	18	35.3	3	9.4	24	5.8
1996년생 (만19세)					2	2.7	18	40.0	21	41.2	9	28.1	50	12.0
1997년생 (만18세)					7	9.5	11	24.4	7	13.7			25	6.0
1998년생 (만17세)	2	2.0	8	6.9	29	39.2	13	28.9	1	2.0			53	12.7
1999년생 (만16세)	14	14.1	51	44.0	35	47.3							100	24.0
2000년생 (만15세)	44	44.4	56	48.3	1	1.4							101	24.2
2001년생 (만14세)	35	35.4	1	0.9									36	8.6
2002년생 (만13세)	4	4.0											4	1.0
전체	99	100	116	100	74	100	45	100	51	100	32	100	417	100

나. 가정환경

1) 가족 구성 현황

가족 구성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95%(200명)가 양쪽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 출생 탈북학생은 45.50%(96명), 중국출생 탈북학생은 59.30%(102명)가 부모와 동거하여 중국출생 학생의 양쪽 부모 동거비율이 북한출생 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모-동거, 부-부재에 해당하는 경우는 북한출생 학생의 43.60%(92명),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38.95%(67명)로 나타나 전체 학생의 41.30% (159명)가 모-동거의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출생 탈북학생 가운데 3.79%는 모-부재, 부-동거, 7.11%는 부모 모두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3〉 참조).

〈표 Ⅲ-3〉 탈북학생 가정유형

가정유형	태어난 곳			전체
	북한	중국	모름/무응답	
모-동거, 부-동거	96	102	2	200
	45.50%	59.30%	100%	51.95%
모-동거, 부-부재	92	67	0	159
	43.60%	38.95%	0.0%	41.30%
모-부재, 부-동거	8	3	0	11
	3.79%	1.74%	0.0%	2.86%
모-부재, 부-부재	15	0	0	15
	7.11%	0.0%	0.0%	3.90%
전체	211	172	2	385
	100%	100%	100%	100%

탈북학생의 가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어머니가 있는 비율이 3.36%(14명), 아버지가 있는 비율이 15.8%(66명)로 나타났다. 반면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가족이 된 경우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45.80%(191명), 아버지가 27.82%(116명)으로 나타나 새롭게 가정이 재편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거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86.81%(362명), 아버지가 51.32%(214명)로 나타났다(〈표 Ⅲ-4〉 참조).

〈표 Ⅲ-4〉 탈북학생 가족 현황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중복응답)		남한에 들어와서 처음 가족이 된 사람(중복응답)		현재 동거자(중복응답)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없음	159	38.13	145	34.77	2	0.48
어머니	14	3.36	191	45.80	362	86.81
아버지	66	15.83	116	27.82	214	51.32
언니(누나)	13	3.12	27	6.47	43	10.31
오빠(형)	16	3.84	18	4.32	36	8.63
남동생	12	2.88	17	4.08	71	17.03
여동생	15	3.60	32	7.67	69	16.55
할아버지	61	14.63	8	1.92	10	2.40
할머니	77	18.47	23	5.52	38	9.11
친척	137	32.85	21	5.04	12	2.88
기타	15	3.60	6	1.44	8	1.92
전체 응답자	417	100.00	417	100.00	417	100.00

2) 경제 현황

현재 부모의 직업 현황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인 경우가 어머니 38.18%(147명), 24.15%(93명)으로 나타났고, 직업이 없는 경우도 어머니 31.17%(120명), 아버지 12.99%(50명)으로 나타났다(〈표 Ⅲ-5〉 참조).

〈표 Ⅲ-5〉 현재 부모의 직업

	부		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①직업이없다.	50	12.99	120	31.17
②단순노무직(가사도우미,청소원,배달원,건설일용직등)	73	18.96	50	12.99
③서비스직(식당종업원,판매원,간병인등)	20	5.19	97	25.19
④기능직(전기,기계,자동차정비등)	73	18.96	28	7.27
⑤사무직(비서,경리,일반사무직원등)	21	5.45	32	8.31
⑥전문관리직(관리자,교수,교사,의사등)	6	1.56	10	2.60
⑦기타	13	3.38	18	4.68
⑧아버지(어머니) 없음	69	17.92	4	1.04
⑨무응답	60	15.58	26	6.75
전체	385	100.00	385	100

부모와 떨어져 있던 기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해당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인 147명의 부모와의 평균 이산 기간은 약 55.84개월(4.6년)로 나타났고 북한출생의 경우 5년 내외, 중국 출생의 경우 4.2년으로 북한출생의 경우가 부모와 떨어져 있던 기간이 다소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관련 응답자 170명의 평균 소득은 18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191만원, 북한은 185만원으로 중국출생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 부모와의 이산 기간(개월)

출생지	빈도	평균	표준편차
북한	81	60.27	47.41
중국	66	50.41	34.84
전체	147	55.84	42.38

〈표 Ⅲ-7〉 가계 소득

출생지	빈도	평균	표준편차
북한	93	185.75	117.25
중국	77	191.68	91.52
전체	170(명)	188.44(만원)	106.11

3) 가정의 지원 현황

탈북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를 파악한 결과, '부모님이 잘하라고 격려하는 말을 해 주신다'라는 항목에서는 64.42%(248명)가 높은 긍정 응답(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율을 나타냈지만, '학교공부와 숙제를 확인하신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15.07%가 낮은 긍정 응답(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율을 나타내, 부모로부터 학습과 관련된 심리적 지원은 받고 있지만 학업에 필요한 실제적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8〉 참조).

〈표 Ⅲ-8〉 탈북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전체
1) 학교공부와 숙제를 확인하신다	62	118	144	47	11	3	385
	16.1	30.65	37.4	12.21	2.86	0.78	100.0%
2) 공부를 직접 가르쳐 주신다	75	173	94	32	8	3	385
	19.48	44.94	24.42	8.31	2.08	0.78	100.0%
3) 준비물을 챙겨주신다	37	83	111	107	44	3	385
	9.61	21.56	28.83	27.79	11.43	0.78	100.0%
4)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신다	23	75	141	102	41	3	385
	5.97	19.48	36.62	26.49	10.65	0.78	100.0%
5) 잘하라고 격려하는 말을 해 주신다	17	22	95	156	92	3	385
	4.42	5.71	24.68	40.52	23.9	0.78	100.0%

가족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한다, 가족은 나를 잘 칭찬한다. 가족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등에 대한 긍정적 응답(그렇다, 매우그렇다)이 48.31~52.99%로 나타나 대체로 절반가량이 가족의 정서적 지원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9〉 참조).

〈표 Ⅲ-9〉 가족의 정서적 지지 수준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1)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한다	빈도	10	27	141	150	54	3	385
	백분율	2.6	7.01	36.62	38.96	14.03	0.78	100
2) 가족은 나를 자주 칭찬한다	빈도	13	35	141	136	57	3	385
	백분율	3.38	9.09	36.62	35.32	14.81	0.78	100
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과 상의한다	빈도	23	64	113	130	52	3	385
	백분율	5.97	16.62	29.35	33.77	13.51	0.78	100
4) 나는 가족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빈도	17	45	134	118	68	3	385
	백분율	4.42	11.69	34.81	30.65	17.66	0.78	100

탈북학생의 마음 놓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70.13%(270명), 아버지가 21.30%(82명), 언니(누나)가 11.95%(46명)로 나타나 주 대화상대는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0〉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가족(중복응답)

가족	빈도	백분율
①어머니	270	70.13
②아버지	82	21.30
③언니(누나)	46	11.95
④오빠(형)	15	3.90
⑤동생	28	7.27
⑥할머니	18	4.68
⑦할아버지	2	0.52
⑧친척들	13	3.38
⑨ 없다	65	16.88

다. 학교생활

1)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 인식

탈북학생의 담임교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내 기분을 이해하면서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는 항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3.76%(284명)가 긍정 응답(그렇다, 매우 그렇다)을 하였고, ‘나의 조그만 행동에도 칭찬해 주신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60%(231명)가 , ‘나를 잘 가르쳐 주

신다'의 질문에 대해서는 77.92%(300명)가 긍정 응답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담임교사를 통해 도움이 되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Ⅲ-11〉 참조).

〈표 Ⅲ-11〉 탈북학생의 담임선생님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 선생님은 내 기분을 이해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신다	빈도	1	7	93	186	98	385
	백분율	0.26	1.82	24.16	48.31	25.45	100%
2) 선생님은 나의 조그만 행동에도 칭찬을 해 주신다	빈도	3	14	137	164	67	385
	백분율	0.78	3.64	35.58	42.6	17.4	100%
3) 선생님은 나를 잘 가르쳐 주신다	빈도	2	5	78	197	103	385
	백분율	0.52	1.3	20.26	51.17	26.75	100%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53%(260명)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에 '예'라고 응답하였지만 '아니오' 라는 응답도 32.4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표 Ⅲ-12〉 참조).

〈표 Ⅲ-12〉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교사 유무

여러분은 학교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전체
260	125	385
67.53	32.47	100.0%

중등학교 재학패널의 친한 친구수를 물어보는 문항에서, '5~10명'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31.43%(12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3~4명'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25.45%(98명)로 나타났다. 1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4.02%(131명)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탈북학생의 90.01%가 학교에 친한 친구가 3명 이상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한 친구가 없다는 응답은 1.56%(6명)이었다. 졸업생의 경우 5~10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5%(1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Ⅲ-13〉 참조).

〈표 Ⅲ-13〉 친한 친구 수

여러분은 주변에 친한 친구가 몇 명 쯤 있나요?								
	없다	1~2명	3~4명	5~10명	10~20명	20~30명	30명이상	전체
재학생	6	29	98	121	60	24	47	385
	1.56	7.53	25.45	31.43	15.58	6.23	12.21	100.0%
졸업생	0	4	10	12	3	0	3	32
	0.00	12.5	31.25	37.5	9.38	0.00	9.38	100.0%

2) 학업 현황

탈북학생의 주요 교과 수업 이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국어 과목은 전체 응답자의 60.52%(233명)가 '대부분 이해하거나 거의 다 이해함'이라고 응답하였고, 영어의 경우 25.97%(100명), 수학의 경우 24.67%(95명)가 '대부분 이해하거나 거의 다 이해함'이라고 응답하였다. '거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별로 이해 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국어과의 경우 9.35%(36명), 영어과의 경우 37.94%(146명), 수학과의 경우 44.91%(173명)로 나타나 수학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4〉 참조).

〈표 Ⅲ-14〉 탈북학생의 교과 이해 수준

학교에서 다음 과목의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목	학교급	거의 이해 못함	별로 이해 못함	반쯤 이해함	대부분 이해함	거의 다 이해함	전체
국어	전체	8	28	116	168	65	385
		2.08	7.27	30.13	43.64	16.88	100.00%
영어	전체	50	96	139	75	25	385
		13	24.94	36.1	19.48	6.49	100.00%
수학	전체	59	114	117	68	27	385
		15.3	29.61	30.39	17.66	7.01	100.00%

탈북학생의 학습에 대한 태도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학습 내용 중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2.08%(85명)가 긍정응답('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을 보였고 27.79%(107명)는 부정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긍정응답 보다 부정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다. '학교에서 내준 과제물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에 대한 긍정응답('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비율은 38.44%(148명)으로 부정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의 비율(16.11%, 62명)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배운 내용들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4.15%(93명)는 긍정응답('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을 보였고 24.41%(94명)는 부정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긍정응답과 부정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Ⅲ-15〉 참조).

〈표 Ⅲ-15〉 학습에 대한 태도 인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 학습내용 중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해 할 자신이 있다.	21	86	193	68	17	385
	5.45	22.34	50.13	17.66	4.42	100.00%
2)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25	95	179	66	20	385
	6.49	24.68	46.49	17.14	5.19	100.00%
3) 학교에서 내준 과제물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13	49	175	119	29	385
	3.38	12.73	45.45	30.91	7.53	100.00%
4) 배운 내용들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5	69	198	73	20	385
	6.49	17.92	51.43	18.96	5.19	100.00%

3) 교육지원 현황

학교를 통한 교육지원의 도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79%(143명)는 교사의 1대1 멘토링 지도에 대해 '약간 혹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부진한 과목에 대한 학습지도에서는 43.51%(114명)가 '약간 혹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문화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전체의 54.06%(153명)가 '약간 혹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의 교육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6〉 참조).

〈표 Ⅲ-16〉 교육지원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여러분은 학교에서 받은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지원이 각각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1:1멘토링 (선생님의1대1지도)	9	20	89	100	43	261
	3.45	7.66	34.10	38.31	16.48	100%
부진한 과목에 대한 학습지도	1	20	127	84	30	262
	0.38	7.63	48.47	32.06	11.45	100%
문화체험활동	2	13	115	93	60	283
	0.71	4.59	40.64	32.86	21.20	100%

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9%(146명)가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7〉 참조).

〈표 Ⅲ-17〉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여부

여러분은 학교에서 공부를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방과후에 학교에서 선생님과 공부하나요?		
예	아니오	전체
146	239	385
37.9	62.1	100.00%

'방과후 교육활동을 누구와 하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85명)가 '다른반 선생님'이라고 응답하였고 '담임교사'는 14.4%(21명), '학교 밖 선생님'이 21.23%(31명)로 나타나 방과후 교육활동이 담임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에 의해 진행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8〉 참조).

〈표 Ⅲ-18〉 방과후 교육활동 지도 교사 유형

방과후에 어느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시나요?				
담임선생님	다른 반 선생님	학교 밖 외부 선생님	기타	전체
21	85	31	9	146
14.4	58.2	21.23	6.16	100.00%

4) 학교환경에 대한 출생지와 학교급을 변수로 하는 이원분산 분석

2015년도 5차 조사 자료를 토대로 출생지(북한, 중국)와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을 설명변수로 하는 이원분석이 실시되었으며, 분석의 결과, 출생지나 학교급의 주효과나 출생지와 학교급의 상호작용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경우에는 각각의 평균이 산출되고 분석결과가 해석되었다.

다음 〈표 Ⅲ-19〉에는 1: 1 멘토링(선생님의 1대 1 지도), 부진한 과목에 대한 학습지도, 문화체험 활동 등 학교의 교육지원을 종속변수로 하고 출생지와 학교급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분산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출생지와 학교급의 상호작용은 학교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출생 학생은 학교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나 중국출생 학생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출생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9〉 학교의 교육지원과 출생지역 및 학교급의 상호작용분석(이원분산 분석)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3	39.1651836	13.0550612	5.44	0.0011
Error	379	909.4701515	2.3996574		
Corrected Total	382	948.6353351			
R-Square	Coeff Var	Root MSE	Mean		
0.041286	61.8879	1.549083	2.503046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출생지	1	18.65862019	18.65862019	7.78	0.0056
학교급	1	10.52540976	10.52540976	4.39	0.0369
출생지*학교급	1	23.22725169	23.22725169	9.68	0.0020

	중			고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북한	84	2.54	1.51	127	2.53	1.55
중국	129	2.74	1.59	43	1.64	1.51

담임교사, 멘토교사, 방과후 활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출생지와 학교급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생지와 학교급의 상호작용은 담임교사, 멘토교사, 방과후 활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출생지, 학교급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습동기에 대한 출생지와 학교급을 변수로 하는 이원분산 분석

다음 〈표 Ⅲ-20〉에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새로운 지식을 알고 싶어서, 어려운 공부를 잘 해 냈을 때 기분이 좋아서 등으로 측정된 학습의 내재적 동기를 종속변수로 하고 출생지와 학교급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분산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출생지와 학교급의 상호작용은 학습의 내재적 동기에 대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출생 학생은 학습의 내재적 동기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높아졌으나 중국출생 학생은 반대로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학습의 내재적 동기가 낮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출생 고등학생의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20〉 내재적 학습동기와 출생지 및 학교급의 상호작용 분석(이원분산 분석)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3	4.358797	1.4529323	2.05	0.1061
Error	379	268.2933643	0.7078981		
Corrected Total	382	272.6521613			
R-Square	Coeff Var	Root MSE	Mean		
0.015987	27.40166	0.841367	3.070496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출생지	1	2.65463741	2.65463741	3.75	0.0535
학교급	1	3.45108669	3.45108669	4.88	0.0278
출생지*학교급	1	3.27324735	3.27324735	4.62	0.0322

	중			고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북한	84	2.99	0.85	127	3.20	0.77
중국	129	3.07	0.89	43	2.87	0.88

도구적 학습동기, 수업태도, 수업이해 적응, 학습효능감, 성취경험, 학교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출생지와 학교급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생지와 학교급의 상호작용은 도구적 학습동기, 수업태도, 수업이해 적응, 학습효능감, 성취경험, 학교만족도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출생지, 학교급 간에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심리·사회적 적응 양태

1) 출신배경 공개 현황

‘자신이 탈북배경을 갖고 있는 것을 학교 친구들이 알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응답자의 39.29%(151명)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모른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40.00%(154명)로 나타났다. 2011년 1차 조사에서 ‘알고 있다’는 45.5%, ‘모른다’는 32.6%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안다’의 응답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66]. 졸업 1년차의 경우, ‘안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59.38%(19명)으로 나타났다.

66) 한만길(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p. 72.

〈표 Ⅲ-21〉 출신배경 공개 현황

학교친구들은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안다	모른다	잘 모르겠다	전체
재학생	151	154	80	385
	39.22	40.00	20.78	100.00%
졸업생	19	9	4	32
	59.38	28.13	12.50	100.00%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18.44%(71명)는 '알리겠다'로 응답하였고, 58.44%(225명)는 '알리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여 출신배경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11년 1차 조사 결과, 출신배경을 '알리겠다'가 11.2%, '알리지 않겠다'가 66.9%로 나타나 1차 조사 결과보다는 출신배경 공개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조금 증가하였다.[67] 졸업생의 경우 '알리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3.13%(17명)로 나타났다(〈표 Ⅲ-22〉 참조).

〈표 Ⅲ-22〉 출신배경 공개 희망 여부

만일 다른 학교에 전학 간다면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리겠습니까?				
	알리겠다	알리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	전체
재학생	71	225	89	385
	18.44	58.44	23.12	100.00%
졸업생	17	11	4	32
	53.13	34.38	12.50	100.00%

2) 차별 경험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1.17%(43명)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88.83%(342명)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2011년 조사 결과(예 19.7%, 아니오 80.3%)와 비교할 때 '차별 경험을 가지고 있다'의 비율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68] 졸업 1년차의 경우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12.50%(4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차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신배경 공개의사의 비율은 다소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Ⅲ-23〉 참조).

67) 이향규(2011), P.106 참조
68) 이향규(2011), P.106 참조

〈표 Ⅲ-23〉 차별 경험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차별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전체
재학생	43	342	385
	11.17	88.83	100.00%
졸업생	4	28	32
	12.50	87.50	100.00%

‘차별을 당하였을 경우, 누가 차별을 하였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한국친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비율이 95.35%(41명)로 가장 높았고 ‘이웃’과 ‘학교교사’가 각각 6.98%(3명), 4.65%(2명)로 나타났다(〈표 Ⅲ-24〉 참조).

〈표 Ⅲ-24〉 차별의 주체(중복응답)

차별받은 경우, 누가 차별하였나요?					
	한국 친구들	학교 선생님	이웃	기타	응답자 수
재학생	41	2	3	0	43
	95.35%	4.65%	6.98%	0.00%	100.00%
졸업생	3	0	0	1	4
	75.00%	0.00%	0.00%	25.00%	100.00%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해 ‘놀린다’, ‘무시한다’는 항목의 ‘가끔 그런다, 자주 그런다’의 비율이 각각 74.42%(32명), 72.10%(31명)로 나타났다. ‘때리거나 밀친다’는 20.93%(9명)가 ‘가끔 그런다, 자주 그런다’라고 응답하였고, ‘욕한다’는 53.49%(23명), ‘안놀아준다’는 58.14%(25명)가 ‘가끔 그런다, 자주 그런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대체로 감정적 측면의 차별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5〉 참조).

〈표 Ⅲ-25〉 차별 경험의 유형(재학생)

구분	어떻게 차별을 받았나요?			
	그런 적 없다	가끔 그런다	자주 그런다	전체
1) 놀린다	11	26	6	43
	25.58%	60.47%	13.95%	100.00%
2) 때리거나 밀친다	34	6	3	43
	79.07%	13.95%	6.98%	100.00%
3) 무시한다	12	19	12	43
	27.91%	44.19%	27.91%	100.00%
4) 욕한다	20	18	5	43
	46.51%	41.86%	11.63%	100.00%
5) 안놀아준다	18	15	10	43
	41.86%	34.88%	23.26%	100.00%

〈표 Ⅲ-26〉 차별 경험의 유형(졸업생)

구분	어떻게 차별을 받았나요?			
	그런 적 없다	가끔 그런다	자주 그런다	전체
1) 놀린다	3	1	0	4
	75.00	25.00	0.00	100.00%
2) 무시한다	1	2	1	4
	25.00	44.19%	25.00	100.00%
3) 욕한다	2	2	0	4
	50.00	50.00	0.00	100.00%
4) 안 어울린다	3	0	1	4
	75.00	0.00	25.00	100.00%

3) 공적자기 개념에 대한 출생지와 학교급을 변수로 하는 이원분산 분석

다음 〈표 Ⅲ-27〉에는 '나는 아주 쉽게 당황한다',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될 때 불안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쓴다', '아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볼 때가 있다' 등으로 측정된 공적 자기개념을 종속변수로 하고 출생지와 학교급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분산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출생지와 학교급의 상호작용

은 공적 자기개념에 대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출생 학생은 공적 자기개념 문항에 대한 긍정의 응답이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낮았으나 중국출생 학생은 반대로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응답 점수가 높아졌다. 이를 통해 공적 북한출생 고등학생의 공적 자기개념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27〉 공적 자기개념과 출생지 및 학교급의 상호작용(이원분산 분석)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3	10.9760386	3.6586795	5.92	0.0006
Error	379	234.2011807	0.6179451		
Corrected Total	382	245.1772193			
R-Square	Coeff Var	Root MSE	Mean		
0.044768	25.63425	0.786095	3.06658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출생지	1	4.73736154	4.73736154	7.67	0.0059
학교급	1	2.2514345	2.25143450	3.64	0.0570
출생지*학교급	1	2.91289061	2.91289061	4.71	0.0305

	중			고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북한	84	3.26	0.81	127	3.15	0.74
중국	129	2.84	0.83	43	3.11	0.75

4)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출생지와 학교급을 변수로 하는 이원분산 분석

다음 〈표 Ⅲ-28〉에는 지난 1년간의 생활이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가치 있었다', '사람들과 친했다', '희망적이었다', '만족스럽다' 등으로 측정된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출생지와 학교급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분산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출생지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출생 학생들이 북한출생 학생들보다 공적 안녕감이 높았다. 이에 따라 북한출생 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28〉 주관적 안녕감과 출생지 및 학교급의 상호작용(이원분산 분석)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3	4.5453061	1.515102	2.86	0.037
Error	379	201.1104816	0.5306345		
Corrected Total	382	205.6557876			
R-Square	Coeff Var	Root MSE	Mean		
0.022102	19.31653	0.728447	3.771105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출생지	1	2.50141806	2.50141806	4.71	0.0305
학교급	1	1.49740613	1.49740613	2.82	0.0938
출생지*학교급	1	1.65878295	1.65878295	3.13	0.0779

	N	평균	표준편차
북한	211	3.69	0.70
중국	172	3.87	0.76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건강에 대한 자기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출생지와 학교급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생지와 학교급의 상호작용은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건강에 대한 자기인식에 대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출생지, 학교급 간에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계획

1) 학력 및 진로 인식

탈북학생이 희망하는 학력 취득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63.90%(246명)가 대학 졸업을 희망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희망이 18.18%(70명), 전문대학 졸업희망은 7.79%(30명)로 나타나, 대학졸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표 Ⅲ-29〉 참조).

〈표 Ⅲ-29〉 희망 학력 취득 정도

희망 학력 정도	빈도	백분율
중학교	7	1.82
고등학교	70	18.18
전문대학	30	7.79
대학교	246	63.90
대학원	32	8.31
전체	385	100.00

고등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대학진학이 67.06%(114명), 취업은 25.88%(44명)로 나타났다. 고3의 진로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학진학이 76.50%(39명), 취업이 19.60%(10명)으로 나타났다(〈표 Ⅲ-30〉, 〈표 Ⅲ-31〉 참조).

〈표 Ⅲ-30〉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 계획

진로 계획	빈도	백분율
대학 진학	114	67.06
취업	44	25.88
아직 결정하지 못함	12	7.06
전체	170	100.00

〈표 Ⅲ-31〉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졸업 후 진로 계획

진로 계획	빈도	백분율
대학 진학	39	76.5
취업	10	19.6
아직 결정하지 못함	2	3.9
전체	51	100.0

2) 미래 직업 결정 여부

미래 직업 결정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65%(195명)가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표 Ⅲ-32〉 참조).

〈표 Ⅲ-32〉 고등학생의 미래 직업 결정 여부

미래 직업 결정 여부	빈도	백분율
예	195	50.65
아니오	190	49.35
전체	385	100.00

본인이 결정한 희망직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69%(132명)가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를 1순위 이유로 응답하였고, 28.57%(52명)가 '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를 2순위 응답으로 제시하여 전반적으로 소질과 적성 혹은 발전 가능성을 진로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33〉 참조).

〈표 Ⅲ-33〉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

직업을 희망하는 이유	1순위		2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132	67.69	20	10.99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서	14	7.18	17	9.34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될 것 같아서	9	4.62	10	5.49
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15	7.69	52	28.57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	1.54	22	12.09
여가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 같아서	5	2.56	11	6.04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	1.03	7	3.85
창의성 및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	2.56	28	15.38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7	3.59	10	5.49
기타	3	1.54	5	2.75
전체	195	100.00	182	100.00

3)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경험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진학예정자는 '직업체험 프로그램'(51.77%), '대학교 및 학과 안내'(46.47%), '진로관련 검사'(44.12%)의 순으로 '매우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표 Ⅲ-34〉 참조).

〈표 Ⅲ-34〉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도움 유무

도움 유무	전혀 도움이 안된다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무응답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진로(진학) 관련상담	3	1.76	8	4.71	69	40.59	63	37.06	9	5.29	18	10.59	152	100
2) 진로관련검사 (전공적성검사 등)	2	1.18	9	5.29	75	44.12	64	37.65	11	6.47	9	5.29	161	100
3) 진로관련강연 (전문가, 선배 등)	4	2.35	8	4.71	78	45.88	58	34.12	9	5.29	13	7.65	157	100
4) 대학교및학과안내	0	0.00	6	3.53	71	41.76	62	36.47	17	10	14	8.24	156	100
5) 직업체험프로그램	3	1.76	6	3.53	57	33.53	63	37.06	25	14.71	16	9.41	154	100

고3 학생 가운데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진학 정보 취득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 혹은 학교 제공 진학정보를 통해 관련 얻는다.'는 비율이 51.28%(20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가 17.95%(7명), '친구나 선배로부터 정보를 얻는다.'가 10.26%(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Ⅲ-35〉 참조).

〈표 Ⅲ-35〉 고3 학생의 진학정보 취득 경로

진로정보 취득 경로	빈도	백분율
가족 혹은 친척에게서	3	7.69
친구나 선배에게서	4	10.26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선생님, 학교에서 주는 진학정보를 통해	20	51.28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7	17.95
진학관련 웹사이트 혹은 진학정보 제공기관을 통해	3	7.69
기타	1	2.56
합계	38	100.00

4) 취업희망 고3 학생의 진로 인식

고3 학생 가운데 졸업 후 진로로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진로 정보 취득 경로를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기관'(33.33%)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진로정보제공 전문기관'(25.00%)이 다음으로 나타났다(〈표 Ⅲ-36〉 참조).

〈표 Ⅲ-36〉 취업 희망 고3 학생의 취업정보 취득 경로

진로 정보 취득 경로	빈도	백분율
친구나 선배에게서	1	8.33
진로정보제공 전문기관	3	25.00
취업관련 서적	1	8.33
학교 진로상담부, 학원 상담실	1	8.33
직업훈련기관	4	33.33
기타	1	8.33
참고한 적이 없음	1	8.33
합계	12	100.00

고등학교 졸업 후 자신의 진로로 취업을 선택한 고3 학생의 취업 선택 이유는 '사회생활을 일찍 하고 싶어서'가 41.67%(5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대학에 진학할 실력이 되지 않아서'(25.00%), '돈을 벌고 싶어서'(16.67%)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Ⅲ-37〉 참조).

〈표 Ⅲ-37〉 고교 졸업 후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	빈도	백분율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하고 싶어서	5	41.67
대학에 진학할 실력이 안 되어서	3	25.00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1	8.33
돈을 벌고 싶어서	2	16.67
대학을 나와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	8.33
전체	12	100.00

5) 진로계획에 대한 출생지와 학교급을 변수로 하는 이원분산 분석

다음 〈표 Ⅲ-38〉에는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진로문제(진학 또는 직업선택)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나는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등으로 측정된 진학진로 계획을 종속변수로 하고 출생지와 학교급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분산분석 결과가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출생지와 학교급의 상호작용은 진학진로계획에 대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출생 학생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학진로계획 점수가 거의 차이가 없

으나 북한출생 학생들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진학진로 계획 점수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출생 고등학생의 진로진학 계획에 대한 향상을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38〉 진로진학 계획과 출생지 및 학교급의 상호작용(이원분산 분석)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 〉 F
Model	3	11.6162406	3.8720802	8.1	〈.0001
Error	379	181.173903	0.4780314		
Corrected Total	382	192.7901436			
R-Square	Coeff Var	Root MSE	Mean		
0.060253	18.9553	0.691398	3.64752		

Source	DF	Type III SS	Mean Square	F Value	Pr 〉 F
출생지	1	1.11829039	1.11829039	2.34	0.127
학교급	1	3.9230426	3.9230426	8.21	0.0044
출생지*학교급	1	1.90688767	1.90688767	3.99	0.0465

	중			고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북한	84	3.55	0.70	127	3.89	0.61
중국	129	3.51	0.75	43	3.54	0.74

피차별의식, 준법정신, 한국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출생지와 학교급을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생지와 학교급의 상호작용은 피차별의식, 준법정신, 한국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출생지, 학교급 간에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졸업 1년차 주요 결과 분석

1) 졸업 1년차 진로 현황

졸업 1년차의 졸업 후 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2.50%(20명)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고 21.88%(7명)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39〉 참조).

〈표 Ⅲ-39〉 고교 졸업 후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

분류	빈도	비율(%)
대학생	20	62.50
취업자	7	21.88
소속기관 없음	5	15.62
전체	32	100.00

2) 대학생의 학교생활

대학에 진학한 졸업 1년차 응답자의 대학생활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학 학습에 흥미를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 70.00%(14명), 대학교육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 25.00%(5명)가 긍정응답('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여 대체로 대학생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업 및 과제의 난이도가 높다는 문항에 대해 60.00%(12명)이 부정응답('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을 나타내, 대학 학업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0〉 참조).

〈표 Ⅲ-40〉 지난 1학기 동안의 대학생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대학에 다니는 이유	0	0.00	1	5.00	7	35.00	6	30.00	6	30.00	20	100
2)수업 및 과제 난이도 높음	1	5.00	2	10.00	5	25.00	10	50.00	2	10.00	20	100
3)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함	1	5.00	5	25.00	5	25.00	9	45.00	0	0.00	20	100
4)다양한 활동 여부	0	0.00	2	10.00	7	35.00	8	40.00	3	15.00	20	100
5)시간의 효율적 사용	0	0.00	3	15.00	11	55.00	4	20.00	2	10.00	20	100
5)대학 교육에 대한 회의	4	20.00	5	25.00	6	30.00	4	20.00	1	5.00	20	100
5)대학 학습 흥미	0	0.00	1	5.00	5	25.00	8	40.00	6	30.00	20	100
5)대학 내 심리적 동조 친구	0	0.00	2	10.00	3	15.00	8	40.00	7	35.00	20	100

3) 대학 생활의 어려움

졸업 1년차 가운데 대학생이 느끼는 대학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분석한 결과, 55.00%(11명)는 기

초학업 능력의 부족, 45.00%(9명)는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식의 부족에 대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대학생활에 필요한 기초학업 능력, 기타 정보 등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문항에 대해 63.16%(13명)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대학을 다니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1〉 참조).

〈표 Ⅲ-41〉 대학생활의 어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기초 학업능력 부족	1	5.00	1	5.00	7	35.00	6	30.00	5	25.00	20	100
2)한국 사회 기초 지식 부족	0	0.00	5	25.00	9	45.00	6	30.00	0	0.00	20	100
3)대학생활 지식 부족	0	0.00	4	20.00	7	35.00	9	45.00	0	0.00	20	100
4)친구 사귀기 어려움	9	45.00	6	30.00	3	15.00	2	10.00	0	0.00	20	100
5)경제적 어려움	1	5.00	1	5.00	5	25.00	8	40.00	5	25.00	20	100

4) 대학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졸업 1년차 가운데 대학생이 느끼는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업능력 보충기회, 대학안내 멘토 문항에 대해 동일하게 65.00%(13명)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제적 지원 문항에 대해 95.00%(19명)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표 Ⅲ-42〉 참조).

〈표 Ⅲ-42〉 대학생활을 위한 필요 지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학업능력 보충 기회	1	5.00	0	0.00	6	30.00	4	20.00	9	45.00	20	100
2)대학 안내 멘토	1	5.00	0	0.00	6	30.00	6	30.00	7	35.00	20	100
3)대학 정보공유 소모임	1	5.00	0	0.00	5	25.00	5	25.00	9	45.00	20	100
4)경제적 지원	0	0.00	0	0.00	1	5.00	3	15.00	16	80.00	20	100

5) 취업자의 취업 결정 이유

졸업 1년차 가운데 취업자가 취업을 선택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하고 싶어서가 42.90%(3명)로 나타났고, 돈을 벌고 싶어서가 28.60%(2명)로 나타났다(〈표 Ⅲ-43〉 참조).

〈표 Ⅲ-43〉 취업을 결정한 이유

분류	빈도	비율(%)
돈을 벌고 싶어서	2	28.6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하고 싶어서	3	42.9
자신의 능력을 보다 빨리 발휘하기 위해서	1	14.3
대학을 나와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	14.3
전체	7	100.0

6) 취업자의 진로선택(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졸업 1년차 가운데 취업자가 자신의 진로로 취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지 분석한 결과, 부모님, 친구, 선생님이 각 14.29%(1명)로 나타났다(〈표 Ⅲ-44〉 참조).

〈표 Ⅲ-44〉 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분류	빈도	비율(%)
부모님	1	14.29
친구	1	14.29
선생님	1	14.29
없음	2	28.57
모름/ 무응답	2	28.57
전체	7	100.0

7) 취업자의 일자리 만족도

졸업 1년차 가운데 취업자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급여, 고용의 안정성 등에서 '보통이다' 의 비율이 각각 71.4%(5명), 57.14%(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환경, 인간관계 등에서는 28.57%(2명)가 '만족한다' 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5〉 참조).

〈표 Ⅲ-45〉 일자리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급여	0	0.00	0	0.00	5	71.4	1	14.29	0	0.00	1	14.29	7	100
2)안정적 고용	0	0.00	1	14.29	4	57.14	1	14.29	0	0.00	1	14.29	7	100
3)직원복지	0	0.00	0	0.00	4	57.14	2	28.57	0	0.00	1	14.29	7	100
4)근무 내용	0	0.00	2	28.57	2	28.57	2	28.57	0	0.00	1	14.29	7	100
5)근무시간 및 업무량	0	0.00	1	14.29	3	42.86	1	14.29	1	14.29	1	14.29	7	100
6)근무환경	0	0.00	2	28.57	1	14.29	2	28.57	1	14.29	1	14.29	7	100
7)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0	0.00	0	0.00	3	42.86	2	28.57	1	14.29	1	14.29	7	100
8)개인의 발전 가능성	0	0.00	0	0.00	3	42.86	2	28.57	1	14.29	1	14.29	7	100
9)전반적 만족도	0	0.00	0	0.00	4	57.14	1	14.29	1	14.29	1	14.29	7	100

8) 취업자의 직장생활의 어려움

졸업 1년차 가운데 취업자가 느끼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직업능력의 부족,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초 부족, 남한 조직생활 이해 부족 문항에 대해 대체로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42.86~57.14%(3~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Ⅲ-46〉 참조).

〈표 Ⅲ-46〉 직장생활의 어려움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직업능력의 부족	1	14.29	0	0.00	4	57.14	1	14.29	0	0.00	1	14.29	7	100
2)직장에 필요한 기초 부족	1	14.29	1	14.29	3	42.86	1	14.29	0	0.00	1	14.29	7	100
3)남한 조직생활 이해 부족	0	0.00	3	42.86	3	42.86	0	0.00	0	0.00	1	14.29	7	100
4)직장동료와 대인관계 어려움	2	28.57	4	57.14	0	0.00	0	0.00	0	0.00	1	14.29	7	100

2 1~5차 조사 결과 종단 분석

1~5차 양적 조사 결과에 대한 종단분석은 '가정', '학교', '학습', '관계', '심리', '사회'의 6개 영역, 21개 변수에 대하여 응답자의 배경변인과 조사 차수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고,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만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의 주효과를 분석하였다. 상호작용과 주효과는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분석결과를 해석하였다.

가. 배경변인별 조사시기별 차이분석

1) 가정

가정 관련 배경변인별 조사시기별 차이 분석은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 가족 유대감 2개 변수에 대해 실시하였다. 다음 〈표 Ⅲ-47〉에서는 가정 영역에서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검정하였고, 〈표 Ⅲ-48〉에서는 이들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의 주효과를, 〈표 Ⅲ-49〉에서는 배경변인의 주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 차수와 배경 변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7〉).

〈표 Ⅲ-47〉 가정영역 변수의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 간의 상호작용 분석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		N	1차	2차	3차	4차	5차	F	p
태어난 곳	북한	37	3.25	3.31	3.31	3.13	3.11	0.45	0.7713
	중국	47	3.13	2.95	3.13	2.89	2.90		
학교급	중	55	3.16	3.10	3.25	2.99	3.00	0.29	0.8875
	고	29	3.23	3.12	3.12	3.00	2.99		

이들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의 주효과에서는'부모의 교육지원'이 2차 조사에서는 낮게 나타났다가 3차 조사에서는 다시 상승하였으나 4,5차 조사에서 다시 3차 조사에서 보다 낮아졌다(〈표 Ⅲ-48〉 참조). 이를 통해 조사차수에 따라 '가족 유대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유대감의 경우 3차 조사에서 상승되었다가 4,5차 조사에서는 다소 낮아진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8〉 가정영역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의 주효과 분석

부모의 교육지원	N	평균	표준편차	F	p
1차 조사	84	3.19	0.67	2.55	0.0391
2차 조사	84	3.11	0.64		
3차 조사	84	3.21	0.75		
4차 조사	84	2.99	0.71		
5차 조사	84	2.99	0.76		

가족 유대감	N	평균	표준편차	F	p
1차 조사	86	3.62	0.84	2.49	0.0429
2차 조사	86	3.43	0.77		
3차 조사	86	3.71	0.87		
4차 조사	86	3.48	0.91		
5차 조사	86	3.48	0.88		

배경변인의 주효과에서는 북한출생 학생의 경우 중국출생 학생의 경우보다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표 Ⅲ-49〉 참조).

〈표 Ⅲ-49〉 가정영역 변수에 대한 배경변인의 주효과 분석

부모의 교육지원		N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	F	p
태어난 곳	북한	37	3.25	3.31	3.31	3.13	3.11	3.22	4.75	0.0321
	중국	47	3.13	2.95	3.13	2.89	2.90	3.00		
학교급	중	55	3.16	3.10	3.25	2.99	3.00	3.10	0.01	0.931
	고	29	3.23	3.12	3.12	3.00	2.99	3.09		

가족 유대감		N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	F	p
태어난 곳	북한	37	3.54	3.44	3.66	3.65	3.46	3.55	0.4	0.5285
	중국	47	3.57	3.44	3.69	3.41	3.83	3.59		
학교급	중	55	3.7	3.43	3.63	3.4	3.44	3.52	0.24	0.6263
	고	31	3.48	3.45	3.84	3.63	3.54	3.59		

2) 학교

학교 관련, 교사의 심리적 지지, 학습활동, 학교만족도에 대해 배경변인별 조사시기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Ⅲ-50〉에서는 교사의 심리적 지지에 대한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의 상호작용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고, 〈표 Ⅲ-51〉와 〈표 Ⅲ-52〉에서는 3개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의 주효과 검정결과를 제시하였다.

학교 영역의 교사의 심리적 지지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북한출생 학생의 경우 5차 조사에서 4차 조사 시기 보다 다소 낮아졌고, 중국출생 학생의 경우에도 5차 조사에서 4차 조사 시기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북한출생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50〉)

〈표 Ⅲ-50〉 학교영역 변수의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 간의 상호작용 분석

교사의 심리적 지지		N	1차	2차	3차	4차	5차	F	p
태어난 곳	북한	41	3.73	3.55	3.96	3.67	3.76	3.16	0.0144
	중국	47	3.9	3.48	3.76	4.07	3.91		

3개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별 주효과 분석 결과, 모두 유의하여 '교사의 심리적 지지'는 4차 조사 시기에 가장 높았고, '학교 만족도'는 2차 조사 시기에 가장 높았으며, '학습활동'은 1, 2차 조사시기에는 동일하였으나, 3,4차 조사시기에는 점차 증가하다가 5차 조사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Ⅲ-51〉 참조). 이를 통해 볼 때 조사 차수가 늘어날수록 '학습활동'이 점차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51〉 학교영역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의 주효과 분석

교사의 심리적 지지	N	평균	표준편차	F	p
1차 조사	88	3.82	0.73	5.09	0.0005
2차 조사	88	3.52	0.73		
3차 조사	88	3.85	0.80		
4차 조사	88	3.88	0.72		
5차 조사	88	3.84	0.79		
학습활동	**N**	**평균**	**표준편차**	**F**	**p**
1차 조사	60	1.39	0.35	19.82	<.0001
2차 조사	60	1.41	0.41		
3차 조사	60	2.43	1.41		
4차 조사	60	2.48	1.60		
5차 조사	60	2.86	1.40		
학교만족도	**N**	**평균**	**표준편차**	**F**	**p**
1차 조사	86	3.47	0.39	59.02	<.0001
2차 조사	86	3.91	0.74		
3차 조사	86	3.62	0.71		
4차 조사	86	3.68	0.70		
5차 조사	86	2.68	0.44		

이들 변수에 대한 배경변인의 주효과 분석 결과,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52〉 참조).

〈표 Ⅲ-52〉 학교영역 변수에 대한 배경변인의 주효과 분석

학습활동		N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	F	p
태어난 곳	북한	24	1.49	1.51	2.15	2.11	2.6	2.09	3.08	0.0847
	중국	36	1.32	1.33	2.61	2.72	3.03	2.20		
학교급	중	38	1.35	1.42	2.27	2.54	3.06	2.13	0.11	0.7379
	고	22	1.45	1.38	2.7	2.38	2.5	2.08		

학교만족도		N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	F	p
태어난 곳	북한	39	3.45	3.9	3.65	3.64	2.74	3.48	0.01	0.9228
	중국	47	3.49	3.92	3.59	3.71	2.64	3.47		
학교급	중	57	3.5	3.9	3.53	3.61	2.75	3.46	0.26	0.6115
	고	29	3.42	3.93	3.8	3.8	2.55	3.50		

3) 학습

다음 〈표 Ⅲ-53〉에서는 학습영역의 4개 변수(내재적 학습동기, 도구적 학습동기, 학습 효능감, 수업이해 정도)에 대한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의 상호작용 검정결과를 제시하였고, 〈표 Ⅲ-54〉과 〈표 Ⅲ-55〉에서는 각각 이들 변수에 대한 조사시기와 배경변인의 주효과 검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재적 학습동기'에서 5차 조사에서 중학생인 경우 내재적 학습동기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이해정도에서는 북한출생 학생의 경우 3,4차 조사에서 감소하다가 5차 조사에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출생 학생의 경우 2,3,4차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5차 조사에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내재적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고, 중국출생 학생의 수업이해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3〉 학습영역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 간의 상호작용 분석

내재적 학습동기		N	1차	2차	3차	4차	5차	F	p
태어난 곳	북한	41	3.45	3.11	3.17	2.88	2.97	0.58	0.6795
	중국	47	3.64	3.16	3.13	3.06	2.94		
학교급	중	57	3.62	3.22	3.13	2.88	2.85	2.77	0.0271
	고	31	3.42	2.98	3.19	3.14	3.14		

도구적 학습동기		N	1차	2차	3차	4차	5차	F	p
태어난 곳	북한	41	4.05	3.94	3.92	3.99	4.15	1.03	0.3939
	중국	47	4.14	3.93	3.74	3.98	3.88		
학교급	중	57	4.07	3.94	3.72	3.88	3.82	3.52	0.064
	고	31	4.15	3.94	4.01	4.18	4.33		

학습효능감		N	1차	2차	3차	4차	5차	F	p
태어난 곳	북한	40	3.19	3.28	3.03	2.96	3.18	0.62	0.6472
	중국	47	3.13	3.19	3.12	2.98	3		
학교급	중	56	3.15	3.22	3.11	2.96	3.07	0.15	0.9637
	고	31	3.17	3.24	3.02	2.99	3.1		

수업이해 정도		N	1차	2차	3차	4차	5차	F	p
태어난 곳	북한	42	3.41	3.51	3.37	3.29	3.37	3.99	0.0035
	중국	47	3.79	3.57	3.30	3.01	3.18		
학교급	중	58	3.68	3.6	3.47	3.13	3.28	1.35	0.2513
	고	31	3.48	3.43	3.10	3.17	3.25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의 주효과 분석 결과, ‘내재적 학습동기’는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수업태도 및 준비’, ‘수업이해정도’는 4차 조사 시기 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5차 조사에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내재적 학습동기가’가 낮아지고 있고, ‘수업 태도 및 준비’, ‘수업이해 정도’ 계속 낮아지다가 5차 조사에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54〉 참조).

〈표 Ⅲ-54〉 학습영역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의 주효과 분석

내재적 학습동기	N	평균	표준편차	F	p
1차 조사	88	3.55	0.88	11.01	〈.0001
2차 조사	88	3.14	0.87		
3차 조사	88	3.15	0.77		
4차 조사	88	2.97	0.91		
5차 조사	88	2.95	0.94		

수업태도 및 준비	N	평균	표준편차	F	p
1차 조사	87	3.23	0.69	5.73	0.0002
2차 조사	87	3.19	0.67		
3차 조사	87	3.01	0.72		
4차 조사	87	2.92	0.70		
5차 조사	87	3.04	0.78		

수업이해 정도	N	평균	표준편차	F	p
1차 조사	89	3.61	0.86	8.78	<.0001
2차 조사	89	3.54	0.74		
3차 조사	89	3.34	0.70		
4차 조사	89	3.14	0.80		
5차 조사	89	3.27	0.76		

이들 변수에 대한 배경변인의 주효과 분석 결과,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55> 참조).

<표 Ⅲ-55> 학습영역 변수의 배경변인별 주효과 분석

내재적 학습동기		N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	F	p
태어난 곳	북한	41	3.45	3.11	3.17	2.88	2.97	3.12	1.25	0.2668
	중국	47	3.64	3.16	3.13	3.06	2.94	3.19		
학교급	중	57	3.62	3.22	3.13	2.88	2.85	3.14	1.05	0.3085
	고	31	3.42	2.98	3.19	3.14	3.14	3.17		

학습효능감		N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	F	p
태어난 곳	북한	40	3.19	3.28	3.03	2.96	3.18	3.13		
	중국	47	3.13	3.19	3.12	2.98	3	3.08		
학교급	중	56	3.15	3.22	3.11	2.96	3.07	3.10		
	고	31	3.17	3.24	3.02	2.99	3.1	3.10		

수업이해 정도		N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	F	p
태어난 곳	북한	42	3.41	3.51	3.37	3.29	3.37	3.39	0.02	0.8799
	중국	47	3.79	3.57	3.30	3.01	3.18	3.37		
학교급	중	58	3.68	3.6	3.47	3.13	3.28	3.43	1.5	0.2247
	고	31	3.48	3.43	3.10	3.17	3.25	3.29		

4) 관계영역

교우관계, 출신공개 여부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의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우 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없었고, '출신공개 여부'에 대한 조사 2차 조사에서 줄어들었다가 3,4차 조사에서 증가하였고 5차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한 곳으로 나타났다(〈표 Ⅲ-56〉 참조).

〈표 Ⅲ-56〉 관계영역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의 주효과 분석

교우관계	N	평균	표준편차	F	p
1차 조사	89	4.57	1.56	1.33	0.2583
2차 조사	89	4.83	1.63		
3차 조사	89	4.62	1.51		
4차 조사	89	4.47	1.62		
5차 조사	89	4.54	1.44		
출신공개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F**	**p**
1차 조사	86	1.90	0.75	2.61	0.0354
2차 조사	86	1.73	0.73		
3차 조사	86	1.85	0.74		
4차 조사	86	2.01	0.73		
5차 조사	86	1.98	0.70		

5) 심리

심리 영역 관련, 스트레스 및 우울, 자아존중감, 공적자기개념,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배경변인별 조사시기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Ⅲ-57〉에서는 스트레스 및 우울, 자아존중감 변수에 대한 조사차수와 배경변인의 상호작용 검정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표 Ⅲ-58〉와 〈표 Ⅲ-59〉에는 각각 이들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의 주효과 검정결과가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2개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심리 영역의 변수에 대한 조사차수와 배경변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Ⅲ-57〉 참조).

〈표 Ⅲ-57〉 심리영역 변수의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 간의 상호작용 분석

스트레스 및 우울		N	1차	2차	3차	4차	5차	F	p
태어난 곳	북한	41	2.15	2.09	2.33	2.41	2.30	1.56	0.1858
	중국	47	1.87	2.02	1.86	1.96	1.99		
학교급	중	57	1.96	2.02	2.04	2.17	2.09	0.12	0.9763
	고	31	2.07	2.12	2.15	2.18	2.23		

자아존중감		N	1차	2차	3차	4차	5차	F	p
태어난 곳	북한	40	3.09	3.58	3.28	3.28	3.12	1.33	0.2600
	중국	46	3.16	3.5	3.43	3.23	2.93		
학교급	중	56	3.13	3.53	3.38	3.26	2.99	0.13	0.9701
	고	30	3.11	3.54	3.33	3.25	3.06		

조사 차수의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2차 조사 시기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58〉 참조).

〈표 Ⅲ-58〉 심리영역 변수에 대한 조사차수의 주효과 분석

스트레스 및 우울	N	평균	표준편차	F	p
1차 조사	88	2.00	0.86	1.07	0.3693
2차 조사	88	2.06	0.73		
3차 조사	88	2.08	0.84		
4차 조사	88	2.17	0.79		
5차 조사	88	2.14	0.83		

자아존중감	N	평균	표준편차	F	p
1차 조사	86	3.13	0.44	11.9	〈.0001
2차 조사	86	3.53	0.84		
3차 조사	86	3.36	0.59		
4차 조사	86	3.26	0.70		
5차 조사	86	3.02	0.47		

배경변인의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및 우울’은 북한출생 학생이 중국출생 학생과 비교할 때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자기개념’은 5차 조사에서 북한출생 고등학생인 경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표 Ⅲ-59〉 참조).

〈표 Ⅲ-59〉 심리영역 변수에 대한 배경변인의 주효과 분석

스트레스 및 우울		N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	F	p
태어난 곳	북한	41	2.15	2.09	2.33	2.41	2.3	2.26	6.45	0.0129
	중국	47	1.87	2.02	1.86	1.96	1.99	1.94		
학교급	중	57	1.96	2.02	2.04	2.17	2.09	2.06	0.46	0.4979
	고	31	2.07	2.12	2.15	2.18	2.23	2.15		

공적 자기개념		N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	F	p
태어난 곳	북한	40	3.44	3.08	3.28	3.43	3.16	3.28	6.42	0.0131
	중국	47	2.67	2.83	2.99	3.06	2.87	2.88		
학교급	중	56	2.86	2.72	2.97	3.17	2.95	2.93	5.07	0.0270
	고	31	3.32	3.34	3.39	3.34	3.10	3.30		

주관적 안녕감		N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	F	p
태어난 곳	북한	40	3.68	3.96	3.88	3.73	3.78	3.81	0.03	0.8634
	중국	47	3.94	3.7	3.85	3.77	3.88	3.83		
학교급	중	57	3.77	3.81	3.82	3.72	3.74	3.77	0.94	0.3350
	고	30	3.89	3.83	3.96	3.82	4.01	3.90		

6) 사회

사회 영역 관련, 준법의식, 한국에 대한 인식의 2개 변수 대해 배경변인별 조사시기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Ⅲ-60〉에는 사회영역 2개 변수(준법의식, 한국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의 상호작용 검정결과가 제시되었으며 〈표 Ⅲ-61〉과 〈표 Ⅲ-62〉에는 각각 이들 변수에 대한 조사시기와 배경변인의 주효과 검정결과가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사회 영역의 변수에 대한 조사차수와 배경변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Ⅲ-60〉 참조).

〈표 Ⅲ-60〉 사회영역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와 배경변인 간의 상호작용 분석

준법의식		N	1차	2차	3차	4차	5차	F	p
태어난 곳	북한	38	2.15	2.34	2.54	2.46	2.43	2.5	0.1182
	중국	43	1.87	2.23	2.27	2.35	2.33		
학교급	중	54	1.99	2.19	2.39	2.35	2.38	0.71	0.4030
	고	27	2.01	2.48	2.42	2.49	2.38		

한국에 대한 인식		N	1차	2차	3차	4차	5차	F	p
태어난 곳	북한	38	3.08	3.81	3.63	3.61	3.13	2.2	0.0683
	중국	44	3.05	3.89	3.93	3.74	2.89		
학교급	중	55	3.05	3.88	3.89	3.73	2.96	1.24	0.2931
	고	27	3.09	3.81	3.58	3.57	3.06		

조사 차수의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준법의식’은 1차 조사에서 가장 낮았고 이후의 조사에서는 점차 높아지다가 5차 조사에서 다소 낮아졌다. ‘한국에 대한 인식’은 2차 조사 시기에 가장 높았다가 3차 조사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 경과에 따라 준법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Ⅲ-61〉 참조).

〈표 Ⅲ-61〉 사회영역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의 주효과 분석

준법의식	N	평균	표준편차	F	p
1차 조사	81	2.00	0.87	5.82	0.0002
2차 조사	81	2.28	0.76		
3차 조사	81	2.40	0.73		
4차 조사	81	2.40	0.71		
5차 조사	81	2.38	0.69		

한국에 대한 인식	N	평균	표준편차	F	p
1차 조사	82	3.06	0.63	36.95	〈.0001
2차 조사	82	3.85	0.71		
3차 조사	82	3.79	0.73		
4차 조사	82	3.68	0.7		
5차 조사	82	3.00	0.43		

배경변인의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Ⅲ-62〉 참조).

〈표 Ⅲ-62〉 사회영역 변수에 대한 배경변인의 주효과 분석

준법의식		N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	F	p
태어난 곳	북한	38	2.15	2.34	2.54	2.46	2.43	2.38	0.42	0.5175
	중국	43	1.87	2.23	2.27	2.35	2.33	2.21		
학교급	중	54	1.99	2.19	2.39	2.35	2.38	2.26	0.89	0.3497
	고	27	2.01	2.48	2.42	2.49	2.38	2.36		

나. 배경변인과 탈북 및 입국 이후 기간의 상관관계 분석

다음에서는 '가정', '학교', '학습', '관계', '심리', '사회' 등 6개 영역의 21개 변수와 탈북한 후부터 남한 입국까지의 소요 기간과 남한 입국 이후 기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탈북부터 남한 입국까지의 기간과 남한 입국 이후 기간은 모두 월단위로 분석하였으며, 검정결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만 해석되었다.

1) 가정

〈표 Ⅲ-63〉에서는 가정영역 두 개 변수(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 가족 유대감)와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 '입국 이후 기간' 등 두 개 기간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개 변수와 두 개 기간의 상관관계는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은 1, 2차 조사에서는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감소하였고, 입국 이후 기간의 경우에는 기간이 길수록 감소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두 개 기간 모두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였다. 4,5차 조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대감'은 2차와 3차 조사에서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이 길수록 감소하고, 입국 이후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3〉 가정영역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의 상관관계

변수	조사 시기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		
		N	r	p	N	r	p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	1차	192	−0.32486	<.0001	390	0.22007	<.0001
	2차	112	−0.41812	<.0001	233	0.28203	<.0001
	3차	109	−0.30800	0.0011	220	0.23465	0.0004
	4차	96	−0.11546	0.2626	196	−0.01623	0.8213
	5차	129	−0.08376	0.3453	228	0.00532	0.9365
가족 유대감	1차	200	0.05398	0.4478	405	−0.07226	0.1466
	2차	112	−0.37412	<.0001	233	0.29242	<.0001
	3차	109	−0.33558	0.0004	220	0.25104	0.0002
	4차	96	0.07622	0.4605	196	−0.03575	0.6189
	5차	129	−0.03273	0.7127	227	−0.02079	0.7554

2) 학교

다음 〈표 Ⅲ-64〉에서는 가정영역 세 개 변수(교사의 심리적지지, 학습활동, 학교만족도)와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 '입국 이후 기간' 등 두 개 기간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개 변수와 두 기간의 상관관계는 일정하게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세 개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은 조사초기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고, 세 개 변수와 '입국 이후 기간'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교사의 심리적 지지의 경우 1~3차 조사까지 조사 차수가 늘어날수록 탈북부터 입국기간이 길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국 이후의 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차 조사 결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습활동도 1,2차 조사에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 입국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입국 감소하였고, 입국 이후의 기간이 길수록 늘어났다.

특히, 학교만족도는 2차 조사의 '입국까지의 기간'과 -0.57, '입국 이후 기간'과 0.44의 상당히 높은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탈북후 입국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교사의 심리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입국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지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64〉 학교영역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의 상관관계

변수	조사 시기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		
		N	r	p	N	r	p
교사의 심리적 지지	1차	204	−0.32228	〈.0001	409	0.24202	〈.0001
	2차	112	−0.41134	〈.0001	233	0.28226	〈.0001
	3차	109	−0.43742	〈.0001	220	0.31798	〈.0001
	4차	96	0.06523	0.5278	196	−0.12716	0.0757
	5차	129	0.11206	0.2061	227	0.03194	0.6321
학습활동	1차	165	−0.31146	〈.0001	335	0.22691	〈.0001
	2차	113	−0.28656	0.0021	233	0.23755	0.0003
	3차	96	−0.13328	0.1955	195	0.1105	0.1241
	4차	95	−0.00438	0.9664	194	0.01777	0.8057
	5차	129	0.00403	0.9638	227	0.07802	0.2417
학교만족도	1차	199	0.06994	0.3263	402	−0.07241	0.1473
	2차	112	−0.57605	〈.0001	233	0.44386	〈.0001
	3차	108	0.08747	0.368	219	−0.04644	0.4941
	4차	96	0.21045	0.0396	196	−0.05732	0.4248
	5차	129	−0.07291	0.4116	227	−0.12700	0.0560

3) 학습

다음 〈표 Ⅲ-65〉에서는 학습영역의 내재적 학습동기, 도구적 학습동기, 수업태도 및 준비, 학습효능감, 성취경험, 수업이해정도의 총 6개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 '입국 이후 기간' 등 두 개 기간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영역의 여섯 개 변수는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과 대부분 유의한 음의 상관을 가지며, '입국 이후 기간'과는 대부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재적 학습동기, 수업태도 및 준비, 성취경험 등 전체 변수에서 입국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감소하였고, 입국 이후 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개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과의 음의 상관계수는 대략 -0.26~-0.44로 나타났고 '입국 이후 기간'과의 상관관계는 대략 0.19~0.31로 타나났다.

〈표 Ⅲ-65〉 학습영역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의 상관관계

변수	조사 시기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		
		N	r	p	N	r	p
내재적 학습동기	1차	203	−0.28171	<.0001	405	0.21345	<.0001
	2차	112	−0.34925	0.0002	233	0.24793	0.0001
	3차	109	−0.28517	0.0027	220	0.21291	0.0015
	4차	96	0.10759	0.2967	196	0.07762	0.2796
	5차	129	0.00938	0.916	227	0.00891	0.8938
도구적 학습동기	1차	203	−0.34768	<.0001	406	0.24457	<.0001
	2차	112	−0.44488	<.0001	233	0.31264	<.0001
	3차	109	−0.42285	<.0001	220	0.28310	<.0001
	4차	96	0.17435	0.0893	196	0.10452	0.1449
	5차	129	−0.07124	0.4224	227	0.07458	0.2632
수업태도 및 준비	1차	206	−0.33959	<.0001	409	0.23944	<.0001
	2차	112	−0.40903	<.0001	233	0.30321	<.0001
	3차	109	−0.31719	0.0008	220	0.24188	0.0003
	4차	96	0.11436	0.2672	196	0.01810	0.8012
	5차	129	0.16817	0.0568	227	−0.01879	0.7783
학습 효능감	1차	203	−0.26990	<.0001	404	0.20000	<.0001
	2차	112	−0.33907	0.0003	233	0.23618	0.0003

변수	조사 시기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		
		N	r	p	N	r	p
	3차	109	−0.32819	0.0005	220	0.24984	0.0002
	4차	96	0.09528	0.3558	196	0.10596	0.1394
	5차	129	0.09161	0.3018	227	−0.10786	0.1051
성취경험	1차	203	−0.31002	<.0001	407	0.21867	<.0001
	2차	112	−0.44435	<.0001	233	0.30401	<.0001
	3차	109	−0.41586	<.0001	220	0.30010	<.0001
	4차	96	0.19100	0.0623	196	0.00413	0.9542
	5차	129	0.09677	0.2753	227	−0.00865	0.8968
수업이해 정도	1차	206	−0.24581	0.0004	411	0.19081	<.0001
	2차	112	−0.39691	<.0001	233	0.27809	<.0001
	3차	109	−0.33567	0.0004	220	0.25538	0.0001
	4차	96	0.09860	0.3392	196	0.04260	0.5532
	5차	129	0.17618	0.0458	227	−0.11353	0.0879

4) 관계

다음 〈표 Ⅲ-66〉에서는 관계영역의 교우관계, 출신공개 여부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 '입국 이후 기간' 등의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우관계'는 1~3차 조사에서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과 대부분 유의한 음의 상관을 가지며, '입국 이후 기간'과는 대부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5차 조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과의 음의 상관계수는 대략 -0.34~-0.44로 나타났고, '입국 이후 기간'과의 양의 상관관계는 대략 0.22~0.33으로 나타났다. '출신공개여부'도 교우관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1~3차 조사에서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과 유의한 음의 상관을 가지며, '입국 이후 기간'과는 대부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입국기간이 길수록 '교우관계', '출신 공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66〉 관계영역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의 상관관계

변수	조사시기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		
		N	r	p	N	r	p
교우관계	1차	188	-0.34348	<.0001	378	0.22971	<.0001
	2차	113	-0.44747	<.0001	233	0.33237	<.0001
	3차	96	-0.44850	<.0001	195	0.33877	<.0001
	4차	95	0.03221	0.7567	193	0.02700	0.7094
	5차	129	0.03745	0.6735	129	0.01379	0.8367
출신공개 여부	1차	200	-0.14706	0.0377	394	0.11983	0.0173
	2차	112	-0.21894	0.0204	233	0.15599	0.0172
	3차	109	-0.21545	0.0245	220	0.16479	0.0144
	4차	96	-0.00517	0.9602	196	-0.03462	0.6300
	5차	129	-0.15966	0.0707	227	0.00072	0.9913

5) 심리

다음 〈표 Ⅲ-67〉에서는 심리영역 다섯 개 변수(스트레스 및 우울, 자아존중감, 공적 자기개념, 주관적 안녕감, 건강상태에 대한 자기인식)와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 '입국 이후 기간' 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기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과의 관계는 대부분 유의한 음의 상관을 가졌으며, '입국 이후 기간'과는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스트레스 및 우울, 공적자기 개념, 주관적 안녕감 등에서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과의 음의 상관계수가 -0.18~-0.43가량으로 나타났고, '입국 이후 기간'과의 양의 상관관계는 대략 0.16~0.29로 나타났다. 대체로 4,5차 조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리하면, 한국 생활 기간이 길수록 탈북학생의 심리영역 적응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67〉 심리영역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의 상관관계

변수	조사 시기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		
		N	r	p	N	r	p
스트레스 및 우울	1차	203	−0.18427	0.0085	403	0.13964	0.0050
	2차	112	−0.27581	0.0032	233	0.17843	0.0063
	3차	109	−0.23153	0.0154	220	0.17103	0.0111
	4차	96	0.09754	0.3444	196	0.11209	0.1178
	5차	129	0.08100	0.3615	227	−0.00151	0.9819
자아존중감	1차	199	0.01946	0.7850	400	−0.09462	0.0587
	2차	112	−0.42438	<.0001	233	0.28733	<.0001
	3차	108	0.19718	0.0408	219	−0.11553	0.0881
	4차	96	0.17920	0.0806	196	−0.16945	0.0176
	5차	129	−0.05144	0.5627	227	−0.01736	0.7948
공적자기개념	1차	203	−0.22766	0.0011	405	0.16112	0.0011
	2차	112	−0.29582	0.0015	233	0.18811	0.0040
	3차	109	−0.28762	0.0024	220	0.20951	0.0018
	4차	96	0.12259	0.2341	196	0.15968	0.0254
	5차	129	0.05425	0.5415	227	0.05529	0.407
주관적 안녕감	1차	202	−0.32468	<.0001	403	0.21991	<.0001
	2차	112	−0.42928	<.0001	233	0.29761	<.0001
	3차	109	−0.43294	<.0001	220	0.30578	<.0001
	4차	96	0.02373	0.8185	196	−0.01204	0.8670
	5차	129	0.10119	0.2538	227	0.00654	0.9219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1차	208	−0.22967	0.0008	412	0.17173	0.0005
	2차	112	−0.35189	0.0001	233	0.27888	<.0001
	3차	109	−0.31086	0.0010	220	0.26386	<.0001
	4차	96	0.08332	0.4196	196	−0.16446	0.0213
	5차	182	0.04781	0.5216	290	0.01909	0.7461

6) 사회

다음 〈표 Ⅲ-68〉에서는 사회영역의 준법의식, 한국에 대한 인식, 피차별 경험 변수와 '탈북부터 한국 입국까지의 기간', '한국입국 이후의 기간'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1~3차 조사 결과에서 이들 변수와'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과의 관계는 음의 상관을 가졌으며, '입국 이후 기간'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5차 조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과의 음의 상관계수는 대략 -0.20~-0.47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한국생활 경험이 늘어날수록 사회 영역 적응 경험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8〉 사회영역 변수와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의 상관관계

변수	조사 시기	탈북부터 입국까지 기간			입국 이후 기간		
		N	r	p	N	r	p
준법의식	1차	179	-0.20525	0.0058	360	0.14096	0.0074
	2차	112	-0.24791	0.0084	233	0.15769	0.0160
	3차	109	-0.32774	0.0005	220	0.22156	0.0009
	4차	96	-0.23118	0.0234	196	-0.00528	0.9415
	5차	129	-0.15244	0.0846	227	0.06823	0.3061
한국에 대한 인식	1차	179	-0.44107	<.0001	362	0.31317	<.0001
	2차	112	-0.39327	<.0001	233	0.29621	<.0001
	3차	108	0.14109	0.1452	219	-0.27449	<.0001
	4차	96	0.14285	0.1650	196	-0.24970	0.0004
	5차	129	-0.01407	0.8743	227	0.07532	0.2584
피차별 경험	1차	198	-0.28612	<.0001	379	0.22220	<.0001
	2차	112	-0.47657	<.0001	233	0.34598	<.0001
	3차	109	-0.42160	<.0001	220	0.36911	<.0001
	4차	96	0.03740	0.7175	196	-0.10025	0.1621
	5차	129	0.03153	0.7228	227	-0.07932	0.2339

3 소결

5차년도 양적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횡단분석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학생에서 북한출생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중국출생 학생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출생 학생의 적응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보호시설을 거치지 않는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입국 초기 통계상 드러나지 않아 원활한 교육지원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 현황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모-동거, 부-부재의 비율이 응답자의 43.60%이고,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38.95%으로 부-부재의 비율이 평균 41.30% 가량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이산해 있던 기간도 평균 55개월(4.6년)로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탈북학생의 가정 상황으로 인해 탈북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 관련, 부모로부터 '격려'와 같은 심리적 지원은 받고 있지만 '학교 공부 확인 및 지도'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은 충분히 받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학생 가정 내에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과 이해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국어과에 대한 이해도(대부분 이해하거나 거의 이해)는 60.52%로 높은 반면, 영어, 수학과의 경우에는 각각 25.97%, 24.67%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어, 수학 교과에 대한 수업이해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다수가 다른 반 교사, 외부 선생님 등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다양한 주체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수 등의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자신의 출신배경을 밝힐 것인가에 대한 공개 현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피차별 경험의 비율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가져온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체 학교에 탈북학생이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학교교육지원 측면에서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학교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출생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공적 자기개념에 대한 인식에서 북한출생 학생의 경우 중학교에서 보다 고등학교의 공적 자기개념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낮아진 반면,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중학교 보다 고등학교에서 응답점수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북한출생 학생의 공적자기 개념을 신장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홉째, 중국출생 학생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진학진로계획 점수가 거의 차이가 없으나 북한출생 학생들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진학진로 계획 점수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출생 고등학생의 진로진학 교육 개선을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1~5차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시한 종단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차수별로 탈북학생이 인식하는 '가족 유대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차 조사시기에 상승되었다가 4, 5차 조사시기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국출생 학생의 경우 북한출생 학생보다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족유대감,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교 영역의 교사의 심리적지지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와 배경 변인의 상호작용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5차 조사시기에 4차 조사시기보다 다소 상승하였으나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학교영역 변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영역 변수 중에서 수업이해정도에서 북한출생 학생의 경우 3, 4차 조사에서 감소하다가 5차 조사에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출생 학생의 경우 2,3,4차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5차 조사에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내재적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고, 중국출생 학생의 수업이해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배경변인과 탈북까지의 기간, 입국 이후의 기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은 1, 2차 조사에서는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감소하였고, 입국이후의 기간의 경우에는 기간이 길수록 감소하였다. 3차 조사시기에는 두 개 기간 모두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입국까지의 기간이 긴 탈북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탈북후 입국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교사의 심리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입국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지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탈북후 입국까지의 기간이 긴 탈북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출신공개여부'는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입국 이후 기간과는 대부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국까지의 기간이 긴 탈북학생에 대한 관련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스트레스 및 우울, 공적자기 개념, 주관적 안녕감 등에서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과는 지속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입국 이후 기간'과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탈북학생 입국 초기에 이러한 심리관련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PART Ⅳ

질적 조사 결과 분석

1. 중학생의 사례
2. 고등학생의 사례
3. 대학생의 사례
4. 소결

Ⅳ 질적 조사 결과 분석

2015년 질적 연구대상자는 15명의 학생과 그들의 어머니, 담임교사 등 총 45명이다. 이 장에서는 총 15건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먼저,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학교생활을 정리하였는데 가족 관련 부분에서는 가족관계의 변화나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등을 주로 다뤘다. 학교생활 측면에서는 또래관계와 학업, 그리고 교사가 평가하는 학생의 인성 등에 대해 다뤘다. 가정과 학교환경에 이어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 진로 등의 문제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여기에서는 북한이나 중국,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에서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등에 대한 생각을 함께 다뤘다. 마지막으로 각 사례의 특성을 기술하고, 제시한 사례를 통해 도출한 탈북청소년의 성장 지원 방안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본 장은 전체 4개의 절로 구성하였는데 첫 번째 절에서는 중학생 7명의 사례를 제시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각각 고등학생 사례(5명)와 대학생 사례(3명)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절에서는 2015년 질적 분석을 통해 발견한 시사점을 소결로 제시하였다.

1 중학생의 사례

가. 이혁범 (남/ 중2/ 중국출생/ 2000년생/ 2007년 입국)

1)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혁범이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여섯 살 동생이 있었다. 어머니는 북에서 군인을 하시다가 배고픔 때문에 중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혁범이 아버지를 만나 혁범이를 낳았다. 중국에서 지내는 동안 다시 잡혀 갈 것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았고 두 번 붙잡혀 감옥살이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혁범이 어머니는 지금도 불안하고 우울하였다.

어머니는 혁범이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혁범이가 워낙에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혹시나 남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나 않을지, 차별 당하지 않을지 노심초사 하시고 남한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혁범이 공부에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다. 어머니는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 주변에 없다는 것을 힘들어 하였다.

어머니: (혁범이가 너무) 성실해서.... 자기 밥그릇을 제대로 못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착해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도 힘들고…….
면접원: 주변에서 뭐 좀 조언을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사람은 없나요?
어머니: 없어요.

어머니는 혁범이에 대해 칭찬하기 보다는 잘못한 점이나 부족한 점을 크게 부각해서 생각하고 이에 대해 자주 야단치는 편이었다. 어머님은 본인이 아프기 때문에 여섯 살 동생을 돌보는 일을 버거워하였고 아이를 돌보느라 정규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에만 메여 있어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다. 혁범이가 동생을 잘 돌봐줘서 짐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혁범이가 오히려 어린 동생과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고 혁범이를 더 혼내는 편이었다.

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 애가 열다섯 살이면 이제는 자기 동생도 봐줄 줄 알고 얘에 맞춰서 놀아줘야 되겠는데 똑같이 하거든요. 얘가 뭐라 그러면 같이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이해력이 없어요.
어머니: 어떨 때 화가 나서 큰 애한테 자꾸 욕이 나오고, 내가 힘을 내고 잘해야 애들도 잘 봐주고 그러겠는데 내가 기분이 그래놓으니까 애들한테도 자꾸 짜증이 나고. 막내는 같이 놀아줘야 되겠는데 놀아도 못 주겠어요.

2)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혁범이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와 학교선생님의 평가는 다소 달랐다. 혁범이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는 착실한 학생이었다.

담임교사: 책임감이 있어요. 청소 같은 거를 굉장히 책임감 있게 하고 남들이 좀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잘 하는 편이에요.

혁범이는 착하고 욕심이 없는 편이라 반에서 궂은일이나 학생들이 기피하는 일도 도맡아 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장애학생이나 어려운 학생을 선생님들이 혁범이에게 맡기는 편이었던 것 같았다. 선생님들로서는 안심이 되고 편한 방법이었겠지만, 어머니는 혁범이도 적응을 못하는 아이인데 더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혁범이는 태도 면에서 바르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수업시간에도 열심히 듣고 자는 일도 별로 없었

다. 교사는 혁범이가 성적이 낮은 것만 빼면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담임교사도 특별히 상담을 하거나 관심을 기울여야할 필요는 못 느끼고 있었다. 혁범이가 탈북학생으로 분류된다는 것도 종단연구 설문지를 보고 알았다고 언급하였다.

담임교사: 혁범이와는 상담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사실 얘기를 못 해 봤어요. 다른 애들은 문제가 있으면 붙잡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딱히. 사실 저는 혁범이가 탈북을 한 줄 몰랐어요. 저는 어머니가 탈북을 하시고 아버지가 조선족이신가? 그래서 저는 그럼 한국에서 만났나 해서 혁범이가 한국에서 태어났나...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저번에 그 종단연구 설문조사를 하러 왔을 때 그때 알았어요.

혁범이는 수업시간에 성실히 듣고, 학원도 꾸준히 빠지는 일이 없이 다니고, 동영상 강의도 듣는 등 나름대로 공부를 성실히 하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아 어머니는 학원을 끊고 개인교습을 받아볼 생각을 하고 계셨다. 혁범이 어머니가 혁범이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성적이었다.

면접원: 혁범이와 관련하여 가장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성적?
어머니: 네, 성적이...
면접원: 성적만 딱 해결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괜찮으세요?
어머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성적만..

학교 선생님은 혁범이의 성적이 낮은 이유가 기초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였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장 시험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전 학년의 공부를 다시 짚으면서 기초를 다시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이를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교사는 기초를 다져줄 수 있는 학원에 보내는 것을 권하였다.

3) 가치관 및 정체성, 삶의 태도

혁범이는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였다. 건담 등의 로봇 조립이나, 자동차 조종 등이 취미였다. 또한 학교에서 드럼을 배우는데 이 활동도 좋아하였다. 혁범이는 나름대로 장래에 대한 생각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공 등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고, 자동차 만드는 일 같은 것에 흥미를 보였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는데, 만들기를 많이 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하였다. 학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었다.

이혁범: 고등학교 어디로 가고 싶냐고요? 무슨 프라모델 같은 거 만드는 부가 있다는데 어떤 고등학교에,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그쪽에 가고 싶어요.

혁범이는 현재 한국에서의 삶이 편안해서 만족스럽기는 하지만, 중국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물자가 풍부한 점은 좋지만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혁범이 어머니도 한국에서의 삶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였다. 중국에서는 잡혀서 북송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무언가 불안감이 계속 든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남한에서의 생활은 몸은 편하지만, 돈에 의해 철저히 흘러가는 사회에서 자신이 돈을 벌지 못하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 (북한에서) 군대에 있을 때에는 그냥 복종만 하고 복무하고 하면 군대에서 다 먹을 것 주고 이렇게 하니까 생활하기에는 괜찮았어요. 여기에서도 생활하기는 괜찮은데 어딘가 모르게 조여 오는 불안감 같은 게 오고 애들도 커 가는데 우리가 빨리 벌어야 되는데 벌지 못하고 하니까 그것도 한 편으로는 안타깝고 공부도 시켜야 되겠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하니까..그런 게 자꾸 걱정이 되지.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그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통일이 되어도 북한에 가서 살고 싶지는 않았다. 다만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되어 사람들이 굶어죽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 북한도 개방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개방해서 뭐 더 뭐 바랄 거 있어요? 북한에 형제들 있고 하니까 좀 먹고만 살게 해 놓으면 더 바랄 거 없어요. 죽물이래도 하루 세 끼 먹고살게만 해주면. 그런데 죽물도 먹기 진짜 바쁘니까 저희도 오긴 왔는데. 식량난만 해결되면 좋죠.

4) 특성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하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학과공부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혁범이의 경우에는 성실하고 착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고 교사로 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학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와 학업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었다. 교사는 혁범이가 친구도 많고 성실해서 학교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였고,

어머니는 여전히 성적이 낮은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였다. 어머니는 혁범이를 내신학원에 보내고 있지만 교사는 그것보다는 기초를 잡아주는 학원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혁범이처럼 다양한 이유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가 혁범이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족한 면을 더 크게 보는 것은 어머니 자신의 불안감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탈북 후의 힘든 생애경험과 어린 딸을 양육해야하는 상황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불안감은 혁범이가 공부를 못하면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하는 태도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혁범이는, 교사의 평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우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과업, 즉 사회적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성공한 것으로 보였다. 혁범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해주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와 더불어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인터넷 등에 의존하여 학교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자기 진로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나. 강 혁 (남/ 중3/ 북한출생/ 2000년생/ 2009년 입국)

1)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혁이의 가족은 지난 약 2년간 중국 국적의 새아버지의 강제출국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새아버지가 상해사건 가해자로 입건되어 강제출국 위기를 겪었고 혁이 어머니는 이것을 막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자세한 내용은 2014년 보고서 참조). 그런데 작년(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여 결국 중국으로 강제 출국되어 향후 5년간은 재입국이 불허되었다. 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을 담담하게 이겨내고 있었다.

혁이 어머니는 매우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뿐 아니라 자신의 꿈, 즉 통일을 내다보는 사회복지와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는 장애인 복지관 사무직 업무를 하면서 저녁에는 목회 관련해서 수업을 듣기도 하였고 주말에는 통일리더십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일을 할수록 더 많은 희망과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힘을 얻고 있었다.

반면 혁이는 무력한 편이었다.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사는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머니: 저 나이 때는, 북한에서 그렇게 살아서 모르겠지만요, 저는 살림을 맡아서 하다시피 했어요. 그렇다고 공부도 게을리 한 게 아니에요. 공부도 1~2위 권 안에 들어가고. 저는 어머니한테 잔소리란 걸 못 들어봤고요, 엄마가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다 했기 때문에. 근데 혁이가 저하고 비교하면, 너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50점 맞고 자랑하는 애. 엄마 시험 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 받았냐고 하니까 50몇 점이래요. 50점 맞고 자랑하는 게 자랑이야? 저는 낮아봐야 95점이고, 100점 못 받으면 울고, 지금도 교육 받는 거 매주 시험을 보거든요? 저는 어제도 시험을 봤는데 100점 받았어요.

너무 열심히 잘하는 어머니와 그렇지 않은 아들 사이에는 긴장이 있었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상을 받는 것이 있어서 혁이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다.

어머니: 저는 부모로서, 저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와서 뭐 상도 다 받아봤고. 광명 시민의 날 시민상, 이번에 시장님 상... 제가 행사 때 혁이를 데리고 가 보였어요.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라고. 그리고 이제 혁이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니 그냥 아무 감정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니까, 우리 엄마 정말 잘 하네, 저는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어머니에게 아들을 너무 다그치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어머니는 이런 닦달을 하지 않고서는 혁이의 생존이나 발전이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었다. 더군다나 어머니는 혁이가 북한에 있을 때 공부를 잘했고 아들의 발전을 위해 한국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혁이의 학업은 어머니에게는 포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무기력한 아들과 이를 답답하게 여기는 어머니와의 갈등은 지난 몇 년간 면담이 지속되면서 계속된 문제였다. 이전에는 어머니의 체벌과 강압적 훈육에 혁이가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다. 올해 들어서 혁이는 어머니와 거의 말하지 않고 있었다.

강 혁: 요샌 뭐 엄마랑 싸우지도 않아요.
면접원: 싸우지도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강 혁: 서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면접원: 말은 안 하고?
강 혁: 말은 하죠. 중간 중간.
면접원: 무슨 말?
강 혁: 그냥, 별 말 없어요.
면접원: 그냥, 밥 먹었니?
강 혁: 밥 줘. 끝.
면접원: 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강 혁: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 같은데?

혁이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대다수의 어른들과 대화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었다. 주변에 거의 관심이 없으며, 자기 삶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크게 중요한 일도 없었다.

혁이 어머니는 중국에 있는 혁이의 또 다른 동생을 데려오려고 계획 중이었다.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생기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혁이는 자신과 같은 방을 쓰지 않는 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면접원: 어머님께서 중국에 있는 혁이 동생 데려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강 혁: 전 상관없어요.
면접원: 그랬어요? 방 같이 쓰고 싶지는 않다고.
강 혁: 방은 같이 안 쓰죠! 왜 같이 써요?
면접원: 여기서는 근데
강 혁: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쓰라 해요!

2)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전반적으로 혁이의 학업성적은 매우 낮았다.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혁이가 다니는 중학교는 혁신학교로 학생들에 초점이 맞춰진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탈북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도 많았다. 그러나 혁이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담임교사: (저희학교에 탈북학생이 5명 있는데) 혁이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무기력한 편이에요. 그 중에 제일 하고싶어 하는 게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성적 이런 게 고민이 되어요. 이런 것도 없고. 고민이 뭐니? 하면 없어요!

혁이의 학교생활이 무기력하기는 해도 엎드려 잠을 자거나 하는 식의 적극적인 무기력은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였다.

담임교사: 혁이는 안보이는 학생이에요. 드러나질 않아요. 1학년 땐 좀 드러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다가 혁이가 뭐 그러면, 어머, 걔도?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이 원하지 않아요. 1학년 때 이후로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담임교사는 혁이에게 야단치고 채찍을 사용하는 어른이 아니라 격려하고 이해해주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어떤 아이들은 채찍으로 달리게 할 수 있지만 혁이 같은 아이에게는 “이해해주고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멘토가 하나 있어야 될 것”같다고 생각하였다. 교사가 보기에도 어머니는 혁이를 이해하기 보다는 강압적으로 훈육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혁이가 친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교사의 관찰에 따르면 혁이는 학급친구들과 무난하게 어울리는 편이었다. 그러나 혁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하게 가깝게 지내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은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았다.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지는 않았다.

면접원: 평소에 어려운 일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조언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나요?
강 혁: 그런 건 안 해봤어요.
면접원: 도움을 청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거나, 상담하거나, 불평을 한다거나. 엄마가 때렸다고.
강 혁: 엄마가 때리면 때린 거죠. 끝이에요.
면접원: 친구들끼리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나?
강 혁: 네. 모든 애들이 그럴 걸요? 집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혁이의 말에 따르면 다른 아이들도 서로 집 이야기나 고민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형이 있다 동생이 있다는 정도이지 그 밖에 것은 서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서로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강 혁: 굳이 안 하죠.
면접원: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고도 안 하고?
강 혁: 네.
면접원: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강 혁: 안 궁금해요.
면접원: 그럼 평소에 만나면 뭐 하지?
강 혁: 게임하고 놀고, 영화보고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집에 오고.

친구들과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하지 않는 것은 혁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청소년 대부분이 나타내는 소통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혁이는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와서 또래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탈북청소년의 적응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다. 많은 경우에 탈북청소년, 그리고 이주민 일반의 적응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바람직한 한국사회의 상을 상정하고 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소통해서 그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적응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적응해야 하는 한국사회가, 특히 한국의 청소년문화가 고립된 개인 간의 단속(斷續)적 교류를 특징으로 한다면 혁이와 같은 행동은 극히 자연스러운 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 가치관 및 정체성, 목표

혁이 어머니는 이러한 아들의 모습이 당황스럽고, 한국아이와 똑같아지는 아들이 불안하였다. 어머니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도 혁이는 귀찮아하거나 무시하는 상황이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거부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것을 "얼"도 없는 상태로 생각하였다. (2014년 인터뷰에서도 어머니는 혁이가 점점 한국아이가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였고 이를 보고서에서 분석한 바 있었다.)

어머니: 우리 혁이는 한국 애들하고 똑같아요. 진짜예요. (북한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북한에 대해 계속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껍데기만 북한 사람이에요. 얼이라는 게 없어요.

혁이는 과거에 대해 돌아보고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았다. 혁이는 결혼도 남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직업도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다. 고등학교 진학도 무난하게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혁이는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도 부족한 편이었다. 과거에 혁이는 자기도 새아버지처럼 '건설업'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건설업은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다. 이는 혁이가 생활세계에서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남성의 생애 직업 정보가 일용직 노동에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담과정에서 건설현장에는 지게차나 포클레인, 대형트럭 등 조금 더 기술과 훈련이 필요한 직종이 있으며 이런 직종이 일용직에 비해서 수입이 훨씬 많은 편이라는 점을 일러주자 그런 것은 몰랐다며 흥미를 가지기도 했었다.

혁이는 자신이 한국사회에 90% 적응했다고 이야기했다. 그 답변은 2014년의 답변과 같았다. 나머지 10%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다. 이를 보면 혁이는 나름대로 한국사회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았다. 혁이의 무기력 가운데 어느 정도가 탈북과 한국사회에의 적응이라는 개인적 경험이나 복잡한 가정환경에서 기인한 것인지, 또 어느 정도가 또래 사춘기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생애발달상의 특징인지는 불분명하였다.

4) 특성

혁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의 삶의 에너지가 넘칠수록 아들은 무기력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어머니는 혁이를 그 또래의 눈으로 보기 보다는 자신이 그 또래였을 때의 모습 혹은 열심히 사는 지금의 모습을 준거로 하여 평가하였다. 그런데 혁이는 그러한 어머니에게 반항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소통의 단절을 선택한 것 같았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혁이와의 소통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모자간의 관계는 소원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혁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답답해서 계속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이라는 후회 섞인 가정을 계속 반복하였다. 혁이를 일찍 데려왔더라면, 혁이가 사춘기를 지낸 후에 데려왔더라면, 국정원에서 나이를 속였더라면, 낮은 학년에 입학시켰더라면 등등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어느 시점을 상기하면서 후회하는데 이는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혁이 가족의 모습을 보면, 탈북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이라는 특수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춘기 10대 청소년의 문화와 기성세대의 문화의 갈등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타인, 특히 어른들과 소통하지 않고, 또래간의 놀이도 게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은 요즘 청소년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이러한 문화를 충분히 내면화한 혁이와 그것을 "문맥한 것" "얼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어머니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무력하고 존재감이 없는 혁이의 모습은 물론 문제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것의 어느 정도가 탈북학생으로서 혁이의 모습이고 어느 만큼이 또래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모습의 반영인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었다.

다만, 혁이의 경우 아버지가 안계시고, 한국에서 폭넓은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머니와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어 혁이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었다. 그런 면에서 담임교사의 조언처럼 혁이에게는 멘토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제3의 어른이 필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머니가 일반적인 청소년문화나 혁이의 발달과정 상의 특징을 이해하여 아들에 대해 좀 더 관대한 태도를 갖게 되고, 혁이는 "사춘기" 시기를 넘기면서 바깥세상과 좀 더 소통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최희석 (남/ 중3/ 북한출생/ 1999년생/ 2007년 입국)

1)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희석이는 올해에도 한겨레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2013년 한겨레중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이후에 가족과는 주말이나 방학 때 가끔씩 만났다. 올해는 전염병 메르스 사태로 외출이 금지되어 한동안 집에 오지 못했고, 집에 가더라도 어머니가 지방에 일을 하러 가면 혼자 있다가 학교로 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여름방학 때도 집에 왔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은 날은 2-3일에 불과하였다.

모자간의 관계는 친밀한 편은 아니지만, 두 사람 모두 이에 대해 큰 불만은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접촉 자체가 많지 않아서 부딪칠 일이 없기도 하였다. 희석이는 엄마가 필요한 생활비를 때에 맞추어 보내주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어머니는 희석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집도 깨끗이 치우고 밥도 잘 챙겨먹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하였다. 어머니는 희석이가 작년과 달리 한겨레중학교에"박혀"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2014년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거주지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였던 희석이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한겨레중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은 어머니와의 갈등이 모자간의 주된 갈등이었다.

2)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희석이는 한겨레중학교 진학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입학 후에는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1학년 1학기와 2학년 1학기 때 반장을 하였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희석이는 학생들이 공부에 열의가 없고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였다.

> 최희석: 솔직히 우리 학교 교육 방식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분위기 탓도 있기는 한데, 그냥 어중이떠중이로 그냥 떠먹이는 거 같아요. 교육 방식이. 애들이 하려고 안 하니까 그냥 무조건 거의 알려주듯이 하니까. 응용문제 같은 거를 애들이 한 문제를 던져 놓으면 풀질 못해요. 어 이건 안 배운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배운 걸로 풀 수 있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하니까.

지난해 인터뷰에서 희석이는 3학년이 되면 전교회장이 되어 학교를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꾸고 싶었다고 하였다. 올해 3학년이 되어 희석이는 전교회장이 되었다. 희석이는 학생회장이 가진 힘이라면 교사와 학생들의 협조를 얻어 자기의 의지에 맞게 학교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비협조와 무시, 교사와의 갈등 등으로 힘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희석이가 전교회장으로 겪은 어려움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였다.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희석이는 다른 학생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무시를 하는 듯한 경향이 있으며, 뭔가를 몸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우선 말이 앞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은 희석이가 하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아예 무시를 하는 편을 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담임교사가 보기에 희석이는 감정기복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담임교사: 희석이가 아이들의 신임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있어요. 생각의 차이인 거 같아요. 본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보기에는 본인도 안 하는데라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너는 말만 하고 있는 거잖아.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 이런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 깔려 있어요.

담임교사: 근데 희석이가 성적도 그렇고 아이들보다 좀 나으니까... 본인보다 낮다고 밑에 깔고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툭툭 뱉는 말들이 있어요.

면접원: 어떤 식인가요?

담임교사: 야 그것도 못하니? 그런 거.

교사의 관찰을 고려하면, 희석이는 타인과 관계 맺기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다. 한겨레중학교에 온 후에 희석이는 줄곧 학생들이 공부를 안하고 진지하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동료학생들과 진지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나 능력은 부족했던 것 같았다.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줬던 "우월감"은 한편에서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내면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최근 희석이는 조금씩 건강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체중감량이었다. 담임교사는 지난 1학기 동안 체중조절이 필요한 학생들의 식사량과 운동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왔다. 희석이의 경우 과체중이기도 하지만 당뇨병이 있어서 특별히 관리하였다. 교사의 적극적 개입으로 현재 8kg 감량하였고 당뇨증세도 완화되었다. 체중이 줄면서 삶의 활력과 자신감도 생기고 교우관계도 좋아졌다. 최근에는 남자 선생님과 일주일에 3회씩 테니스를 치기도 하였다.

희석이의 지난 1년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머니도, 교사도, 그리고 희석이 본인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어머니: 애가 사춘기가 지나면서 자기 결정이 좀 생기다보니까 좀 당당해지지 않았나. 살도 빼고 하니까 자신감도 좀 생겼어요. 일단 여기 딱 보면 동생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너 멋있어졌다, 이 소리 들으면 사람이, 자꾸 뚱뚱하다 이런 얘기 듣고 여자 애들도 나 싫어한다 이런 얘기 듣던 애가 살도 빼고 하면 좀 그게 있잖아요. 근데 담임선생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아직 어머님 10kg는 빼야 돼요~ (웃음) 욕심이 엄마보다 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선생님이 욕심이 더 많구나.

담임교사: 아무튼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모든 것에 대해서 열의가 되게 높아요. 운동부터 시작해서, 수업하는 거 청소하는 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일단 의욕이 굉장히 되게 많아요.

최희석: 대인관계 면에서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제가 원래 대인기피증이 있거든요. 대인공포증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힘든데, 알고 지내거나 친한 사람하고는 잘 대화하는 편이에요. 요새는.

3) 가치관 및 정체성, 목표

희석이는 한국 사회가 자신에게 결코 유리한 사회가 아니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자본”도 없거니와 “인맥”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은 오직 홀로 부딪혀 싸워 기회를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한겨레중학교에 온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으나, 지금은 이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지원혜택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희석이는 한겨레중학교에서 일반학교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다른 학생들을 비판적으로 보기까지 하였다.

최희석: 제가 살기에는 너무 힘든 사회예요. 솔직히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순수하게 노력만으로 극복해야 하는 거잖아요, 사회를. 언젠가는 또 인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자본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런 게 막막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학생 때 준비를 많이 해야 겠어요.

면접원: 고등학생 때까진 그래도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니까.

최희석: 근데 제가 받고 있는 지원 자체가 사치인 거 같아요. 학교에서 받고 있는 지원이.

면접원: 일반 학교에 비해서?

최희석: 네. 학교 자체에 다니는 것도 무료인데, 급식도 그렇고. 기숙사도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공부할 생각을 안 하네요? 그게 사치죠.

면접원: 특혜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최희석: 네 애들이 그 혜택을 권리로 생각해요!

희석이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하였다. 학교에는 중식요리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희석이는 프랑스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학교에 동아리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희석이는 이미 동아리 지도교사를 섭외해 놓았고, 식당에서 일하는 영양교사를 고문으로 섭외하였다고 하였다. 한겨레 학교에서는 학생이 원하면 진로 관련하여 동아리를 만들고, 금전적인 부담 없이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 보통 학생들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모든 기회를 박차버리고 있는데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는 것이 희석이의 생각이었다.

희석이는 자신이 2015년 현재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학생회장 활동 등에 투자하고 있는 에너지

의 반만 요리에 투자하면 뭐라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선택적으로 다가가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 낼 욕심도 가지고 있었다. 담임교사는 "솔직하게 말하면" 희석이 반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만큼 교사들 사이에서 평가도 높고 기대도 큰 데다 본인도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희석이 구현해 갈 가능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었다.

희석이가 꿈꾸는 미래는 소박한 편이었다.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다. 요리사가 되어 성실하게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아픈 사람 없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다. 부지런히 일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은 희석이 어머니가 한국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기도 하였다.

최희석: 꿈이 소박해요. 제가 아빠가 없이 살았다보니까, 자식이 몇이 되었든, 그냥 누구 한 사람, 아픈 사람 없이, 아픈 사람 없이. 그냥 건강하게. 가족끼리 잘 살고만 있으면, 그게 잘 사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머니: 희석이도 자기 삶을, 사소한 일을 해서라도 보람을 느끼면서 살면 사는 거고. 하늘에서 돈 떨어지면서 불만 있게 살면 끝이 없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북한에서 사는 사람이나 여기서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북한에서도, 내 몸 부지런한 사람은 다 살아남았어요. 굶어 안 죽고. 하다못해 도둑질해서라도, 제 몸 움직여서 먹는 사람은 살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불만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4) 특성

희석이 사례는 탈북학생 특성화중고등학교로서 한겨레학교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였다. 종단연구 인터뷰를 통해 만난 탈북 학생들은 희석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주지의 일반 정규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편이었고 경우에 따라서 한겨레중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무조건 일반학교 다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래야 한국사회에 통합된다는 것이었다. 희석이도 2013년, 어머니의 결정으로 거의 강제로 한겨레중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불행하다고 느꼈고 학교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3학년에 된 희석이의 모습을 보면 한겨레중학교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교사에 의한 전인적인 돌봄이 주는 힘이었다. 담임교사는 희석이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고, 식단 및 운동 관리를 포함해서 체중감량을 도와주어 전반적으로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원할 경우 동아리 지원을 하고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보살핌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겨레 학교가 부족한 것은 일반 한국학생과의 '통합'교육인데, 앞에서 분석한 강혁의 사례처럼, 한국의 또래문화는 탈북학생을 적극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의문

을 갖게 할 만큼 불건강한 면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통합의 문제를 좀 더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였다.

탈북학생 교육에서 통합의 문제는 한국사회로의 통합일 뿐만 아니라, 자아의 전인적 통합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 자아존중감, 학업 능력,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 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등은 모두 통합된 인간에게 필요한 요소였다. 그렇게 보면 사회적 통합은 전인적 통합의 한 부분일 수는 있으나, 한국사회로의 통합을 탈북학생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희석이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탈북학생의 우리 사회 '적응'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학교와 교사는 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정부의 지원과 교사들의 헌신으로 일반학교의 경우보다 훨씬 더 탈북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일반 학교에 다니는 탈북학생들에게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지, 일반 남한 학생들의 교육 개선에도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찰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았다.

라. 이현미 (여/ 중3/ 중국출생/ 2000년생/ 2008년 입국)

1)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현미네는 작년에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하였다. 지금까지는 현미 새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 작년부터는 현미 어머니 집에서 살기 위해 이사를 하였다. 현미 위로는 아버지가 데려온 오빠 둘이 있는데 큰 오빠는 현재 호주에 있고, 작은 오빠가 아버지의 집에 혼자 살고 있었다. 최근에는 현미 어머니가 북에서 낳은 아들을 브로커를 통해 찾았다. 어머니가 중국으로 넘어올 때 북에 두고 온 아들인데, 혼자서 보호소에서 고아처럼 지내다가 돌격대에 들어가서 생활하였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아들을 데려와 남한에서 정착해 살게 할 생각을 하고 계셨다. 현미네는 이렇게 점차 가족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머니는 비록 재산이 많지 않아도 자식들이 많이 있고 잘 자라는 모습에서 큰 위안을 얻는다고 하였다. 현미도 가족이 많다는 것이 좋고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 북에서 오빠가 오면 자신을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이현미: 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의지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밥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는 것처럼, 저는 사람 많은 거를 좋아하거든요.
면접원: 북쪽에 오빠가 오시잖아. 어떤 오빠였으면 좋을 것 같아?
이현미: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현미가 오빠가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대가족의 화목을 중시하는 현미가정의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미 자신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현미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잘 맺고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뒤에 설명할 현미의 진로결정과도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현미: 전 사람에 대한 처음에 호기심은 있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호기심은 있고 그리고 사람을 우선 파악을 해 봐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말은 걸어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먼저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미네 부모님은 살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평범하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믿고 자녀에게도 이를 강조하였다. 현미에게도 학업적인 부분이나 장래계획에 대해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늘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편이다.

현미 어머니는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실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을 고집하기 보다는 실용적인 기술을 배워서 생활인이 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북한에서 데려올 현미 오빠도 기술을 익히게 할 생각이었다.

어머니: 우리 큰 애들 우리 신랑 아들 둘 다 보니까 대학은 나왔는데 그거 못써요. 여자애들은 그런다고 뭐 시집가고 괜찮다지만 남자애들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 그게 탁 머리 치더라고요. 야는 무조건 오면 그거 시켜야 되겠다. 빨리는 못 딸 수 있지 자격증을. 거기 공부를 오래 놨으니까. 그러니까 일, 이년을 크게 잡아가지고 덤비지 말고.

2)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현미의 학교생활은 매우 모범적이었다. 담임선생님은 현미가 매우 참하고 성실하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챙길 줄 아는 성숙한 학생이라고 표현하였다.

담임교사: (교실이 지저분할 때) 아까 여기 쓰레기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치웠어요. 이거 누가 치웠니? 그랬더니 현미가 치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긴 우리 반에 이거 치울 아이는 현미 아니면 누구누구 밖에 없어 그냥 그런 식으로 농담 했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그렇고 문자로 단체 문자 나간 게 있었어요. 담임선생님이라고 보냈는데, 현미가 제일 먼저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고 그런 작은 것도 봐도 (싹싹하지요.)

아이들과도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얻는다고 하였다. 크게 튀거나

활발하지는 않고 주로 어울리는 친구들도 좀 조용한 편인 학생들인데, 여느 평범한 중학생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작년의 담임선생님은 현미가 착실한 학생이긴 하지만 너무 말이 없고 조용하게 지내는 점을 우려하였으나, 올해 선생님은 현미가 친구들과 적절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수업 태도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은 아니지만, 주어진 과제에 대해 성실하게 잘 수행해 낸다고 평가하였다. 성실, 최선, 열심과 같은 단어는 현미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볼 수 있었다. 현미도 자신은 매우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면접원: 반 학생들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현미에 대해서 물으면 어떤 학생이라고 얘기 할 것 같아?
이현미: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

현미는 학교 성적도 우수한 편이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속상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오르고 있었다. 현미는 현재 반에서 5등 정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사는 현미가 기본이 다소 부족하여 앞으로 고전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담임교사: 아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하니까. 현미하고 얘기 할 때도 결국에는 너처럼 성실한 애가 올라 갈 건데 어쨌거나 기본이 그렇게 탄탄한 느낌은 조금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 불안해요. (중략) 그렇죠. 더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현미 같은 경우는 5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실수를 좀 하거나 좀 뭔가 안 맞으면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현미는 현재 상황에 대해 당연히 자신이 겪어야 될 일이므로 별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해내고 싶어 하였다. 현미는 현재 상황에서 힘들다고 해서 물러설 생각이 절대 없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기 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고, 이를 실천해 내는 실행력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교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정보력이나 학업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상급학교 진학 후에 학업성취의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업수행에서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현미가 앞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판단되었다.

3) 가치관 및 정체성, 목표

현미는 장래에 호텔리어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호텔의 총지배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 현미는 자신이 왜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 왜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해 왔고 자신만의 이유와 논리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겁먹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겠다는 태도도 가지고 있었다.

이현미: 원래 제가 원하는 직업은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하고 말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쪽이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아서 알아보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현미는 또래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가족을 돌보고 남을 배려하고 집안일을 돌보는 등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친구 부모님 등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현미는 중국에서부터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항상 불안하고 도망 다니는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아이로서 어리광을 부리기보다는 어른스럽게 행동해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였다. 이런 태도가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온 것은 사실이나, 자칫 그 나이 대에 느끼고 행동해야 할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겪지 않고 '아이어른'이 된 것이라면 그 결핍은 성장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충족되어야 할 수도 있었다.

현미 어머니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였다. 북한, 중국에서 힘들게 살아온 것에 비하면 신분이 보장되었고, 물자가 넘쳐나는 남한은 어머니에게 좋은 곳이었다. 그래도 가끔씩 남한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일 때도 있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소박하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배운 것이었다.

어머니: 이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살아 보니까 대한민국은 부지런해야 내가 부지런하면 잘 살 수 있다. 자존심 버리고 직업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는데. (중략)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죠. 그러니까 너무 높이 보지 말고 평 수준에서 나는 이만하면 돼. 자기를 위안하며 살아야 이게 마음도 편하고 머리 정신적으로도 편안할 것 같아요. (중략) 그저 바람이 있다면 자식들이 제대로 제 길 다 들어가지고 큰 높은 거 안 바라고 걔네들도 근심 없이 그저 편하게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현미도 어머니와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평범하고 소박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였다. 한국은 자신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곳이고, 비록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현미: 제가 중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현재 있는 곳이 여기고, 제일 행복했을 때도 여기고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면접원: 이렇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된 거는 언제... 처음부터 그랬어?

이현미: 처음에는 어릴 때는 잘 몰랐고 그냥 점점 성장하면서 그냥 여기가 더 좋고....행복하니까 좋고 애정 갖게 된 것 같아요.

면접원: 현미는 어떨 때 행복해?
이현미: 그냥 평범한 삶? 힘들지 않고 남들 흘러가는 것처럼 평범한 삶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무슨 일 안 나고.

현미는 한국인으로 우리사회에 통합되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담임선생님은 심지어 현미의 경우에는 탈북청소년과 관련된 조사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담임교사: (종단연구 1주기 연구가) 올해까지라고 그러셨죠? 추적 안하셔도 돼요. 너무 잘 지내요. 한국인이야. 북한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4) 특성

탈북주민의 가족구성을 보면 복잡한 경우가 많았다. 현미의 경우에도 어머니는 중국인 친아버지와는 이혼하였고, 현재 새아버지와 새아버지의 아들인 두 오빠가 있었다. 곧 어머니가 북한에서 낳은 오빠를 새로운 가족이 맞아들이게 되었다. 아버지가 다른 오빠들과 가족이 되는 것이었다. 흔히 복잡한 가족구성은 문제로 작용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의 "문제"일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 현미네 가족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설레고 기대하는 상황인 것 같았다. 이를 보면, 문제는 상황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구성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현미네 가족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식구가 많은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서로 지지하는 것 같았다.

현미 어머니가 세 남편으로 부터의 자녀를 한 가족 안에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남편과 가족의 지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이는 탈북여성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많은 경우와 대비가 되었다. 탈북학생과 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어머니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미 가족의 삶의 태도는 "안분지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소박하게 사는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다. 종단연구 사례 가운데 이러한 태도를 가진 가정이 현미가족뿐만 아니라 몇 가정이 더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전반적으로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한 경우가 많았다. 부모가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경우에, 자녀에 대해서도 한국에서의 "성공"을 기대하지 않고 생활인으로 살 수 있는 기술을 익혀 소박하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었다. 현미의 경우에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는 부모가 부과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자신의 열망에서 자발적으로 갖게 된 것이었다. 그만큼 내적 동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마. 김 현 (남/ 중3/ 중국출생/ 1999년생/ 2010년 입국)

1)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현이의 어머니는 북한에서 군인이자 축구선수였다. 그에 어울리게 추진력이 강하고 개인의 노력과 성실을 중요하게 여겼다. 작년까지 어머니는 현이의 특기인'중국어'를 살리고자 고등학교를 중국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전략가처럼 현이의 강점에 집중하였고 강점 계발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였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중국어 학원에 보냈고, 중국어능력시험(HSK) 급수를 따게 하였다. 지난해에는 200만원을 들여 8박9일 중국연수도 보내기도 하였다. 이 모든 지원을 투자라고 여겼고, 아들과의 대화는 이와 관련된 성취와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올해 들어서 이러한 관계는 다소 변화하였다. 어머니는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었다. 아들과는 성적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이런 자신의 변화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였다. 어머니는 지난 1년간 한국에 갓 정착하는 탈북주민들에게 북한식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봉사를 하였다. 이 일을 하면서 삶에서 가족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이는 어머니의 이렇게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여겼다. 현이와 어머니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한 데는 어머니의 자원봉사 경험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우선 현이가 HSK(한어수평고시-중국어 능력 시험) 5급은 손쉽게 딴 것과는 달리 최고급단계인 6급은 2년 동안 매달 30만원에 달하는 과외를 하였음에도 취득을 실패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었다. 또한 현이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현이가 공부에 취미가 없다면 마이스터고에 보내려하였으나, 마이스터고가 상위 30% 학생이 갈 수 있는 좋은 학교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현이의 성적은 거의 하위 10%에 해당하였다. 결국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어머니는 기대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게 되었다. 더욱이 작년 겨울에 현이가 다시 가출을 감행하였다. 현이는 엄마와 갈등상황이 되면 가출해서 상황을 재조정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았다. 현이는 집을 나와서 친구의 집에 있었다. 현이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였고, 어머니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이의 의지와 욕구를 받아들여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과거에 성취 및 성과 중심으로 현이를 대할 때는 대화가 오직 그런 쪽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꾸 아들을 깎아 내렸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가정에 평화가 유지될 날이 없었다. 이제 어머니는 현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을 계속 해가면서 자기가 갈 길을 잘 가길 바라고 있었다. 그러면서 찾아온 가정의 평화에도 만족하고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을 보내려고 걔한테 많이 그랬는데... 이게 집안에서 화목이 없어지고, 애하고 나하고 공부를 해라, 그것밖에 대화를 할 게 없더라고요. 그니까 현이는 자꾸 밖으로 돌게 되고,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고 집이 하루에 편한 날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애도 스트레스 받고... (중략) 믿어보자, 지금 니 나이까지 바르게 지금 커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건강하고. 다른 애들은 술 배우고 담배 배우고, 애들 싸우고 뭐 막 이랬는데 그걸 안 하고 네가 바르게 찾아 크는 것만 해도 고맙구나 하는 생각으로 욕심을 버렸죠. 그러니까 나도 편안해지고 현이도 집을 찾아 제 시간에 들어오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체크해서 하더라고요.

면접원: 현이와는 좀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어머니: 네, 많이 하는 편이에요.

면접원: 주로 어떤 편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주로 가정적인, 생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오늘은 뭐 하고 놀았나,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걔한테 별로 한 게 없거든요. 이제처럼 말도 부드럽게 해본 적 없고, 너 왜 이제 왔어, 너 왜 숙제 안했어 이런 얘기밖에 별로 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웃음)

어머니는, 그동안 현이에게 들어가던 학비로, 자신이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통일 한국과 노후를 내다보면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사회복지 공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의 꿈은 오갈 데 없는 노인을 위한 요양원을 차리는 일이었다.

어머니: 제가 부모님들에게 하지 못한 효도가 있으니까. 그런 미안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우리 탈북자들 보면 아무도 의지 할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있을 만한 곳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요양원을 하나 꾸리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한편 현이와 새아버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한 편이었다. 현이는 지난 시기를 돌아보건대 입국 후 2년 동안은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하였다. 어머니를 제외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이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현이는 새아버지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였다.

2)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현이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현이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속이 썩은 일은

한 번도 없다고 말하였다. 오히려 야단치다가 홧김에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면 난리가 난다고 하였다. 스스로 일어나야 될 시간만 되면 일어나서 학교를 갈 채비를 하는 편이었다. “자유”를 중시하는 현이에게 학교에 가면 자유가 없지 않냐고 묻자, 현이는 학교에 가서도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수업 시간도, 방과후 시간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의 빈 시간도 모두 현이에게는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현이는 친구가 많았다. 작년에는 전교생 400명 중에 100명 빼고 모두 다 친구라고 했는데, 올해는 50명 빼고는 다 “친구”라 말하였다. 현이는 붙임성이 좋으며, 운동을 다 잘해서 남학생들과의 사이가 특별히 좋았다. 현이는 자신이 성적을 제외하고는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던 비결로써 자신의 붙임성을 꼽았다. 담임교사도 현이가 단짝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그냥 두루두루 어울리는 편이라고 말하였다.

담임교사: 얘는 정말 가리는 거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웃음) 벽을 두지 않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친구는 다 친구다. 공부를 잘 하고 못 하고 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걔 성격에 그냥 무난하다고 그래야 하나요?

한편 현이의 성적은 매우 낮았다. 본인은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나, 담임교사가 보여준 성적표로는 89.75%로 하위 10%의 수준이었다. 특히 영어와 수학, 과학 등의 점수가 매우 낮았다. 학교에서는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멘토와 연계해 주었으나 현이는 운동하느라 자꾸 잊어버리고 빼먹고 있었다. 비록 멘토링 약속은 잘 안지켰지만 담임교사는 현이가 무책임한 학생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교사 자신이 부탁한 일이나 현이가 맡아서 하기로 된 일들은 어떤 것도 “꾀”를 부리는 일 없이 맡아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편이었다.

담임교사: 주번을 하고 청소를 시키잖아요? 되게 열심히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꾀를 부린다거나 이런 건 몰라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누가 없더라도. 누가 안 보더라도. 선생님이 이거 해라. 그런 건 끝까지 하는 건 있어요.

3) 가치관 및 정체성, 목표

작년(2014)까지 현이는 엄마가 마련해 놓은 삶의 목표가 있었다. 중국어를 강점으로 활용해서 중국유학을 가고 중국배경을 강점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목표도 초기화되었다. 현이가 원하지 않는 이상 중국유학은 가지 않기로 하였다.

내년에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도 확실한

비전이 없었다. 어머니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학생 스스로 찾는 길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많은 부분에서 타협을 하게 되었다. 현이는 자기 나름대로도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현이는 어머니가 자신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였다.

면접원: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어떤 상태인 거 같아요? 최고점이 있고 최하점이 있다면
김 현: 지금이 최고점인 거 같아요. 말도 제일 잘 듣고.
면접원: 어머님도 현이가 얘기하면 잘 들어주시는 편이에요?
김 현: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현이와 어머니에게는 진로진학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는 것 같았다. 이들은 올해 들어서야 처음 자립형사립고나 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 등의 고등학교 개념들에 대해 듣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자신이 학교정보에 무지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이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학교명칭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진학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편이었다. 종교 단체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남한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학교에서 진로진학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보도 없는 것으로 볼 때 보다 실제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해 보였다.

어머니: 내가 아무 것도 몰라요. 저도 여기 인문계 있고 공고 있고 실업계, 자사고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보고 현이가 이러는 거예요. 중3 학생이 나보고 엄마 인문계가 뭐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중3인데.

현이는 한국사회에서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현이 어머니도 한국은 살만한 곳이라고 여겼다. 한국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기까지 겪었던 힘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면접원: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한국이다 이랬을 때?
김 현: 착하다. 대부분이 착한 것 같아요.
면접원: 착한 나라 같다. 특별히 어떤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김 현: 그냥 맨날 느끼다보면 그랬어요.
면접원: 그래도 살만한 사회 같은 느낌이에요?
김 현: 네
어머니: 매 순간 있잖아요. 탈북을 선택했던 걸 잘 했다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내가 고생을 했다가 북한에서 지금 힘들게 살아서 탈북을 하고 중국에서 고생했지만 그 순간들을 저는 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냐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좋은 세상 올 수 없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이 어머니의 행복감은 매우 주관적이었다. 자신이 만족하면 그것이 잘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면접원: 이만하면 잘 사는 것 같다, 하는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어머니: 내가 사는 것에 대한 만족을 하면 그게 잘 사는 기준이라고 봐요. 돈의 수치가 아니라. 저는 제가 지금 스스로가 지금 부자고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안 부러워요. 돈 많은 사람들 저는 안 부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이에게도 그 얘기를 항상 해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게 부자라고 생각해요.

4) 특성

현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신의 중국배경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능력시험을 보고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이러한 진로는 주로 어머니가 계획한 것이고, 현이는 한국생활에 만족하는 만큼 중국유학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지난 1년간은 두 사람 간에 진로계획의 차이를 조정하고 소통해나가는 시간이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자녀의 관계를 '성취' 중심이 아니라, 일상적인 '소통'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데 성공한 것 같았다. 그 결과 관계도 개선되고 집안도 화목해졌다.

탈북학생들의 한국사회 적응은 단지 이들이 우리 사회와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만은 아니었다. 이들의 부모님도 한국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와 소통의 방법도 조정하고 적응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 대화, 그리고 존중이었다. 결국 이들이 가정에서 맺는 관계의 질이 한국사회와 학교의 적응을 수월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렇게 볼 때 현이와 어머니가 관계를 재조정해가는 과정은 주목할 만하다. 어머니는 중국배경을 강점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아들의 욕구를 존중하여 계획을 수정하였다. 앞으로 현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는 명확치 않으나 가족내의 소통이 원활하여진 상태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와 함께 찾아나갈 것이다.

이제 현이에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많은 탈북학생들이 진학정보가 부족한 편이었다.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하여야 하는지 잘 모르고, 그것은 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기본적인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았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진로정보가 필요해 보였다.

바. 권영철 (남/ 중3/ 중국출생/ 1999년생/ 2007년 입국)

1)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영철이는 현재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영철이는 중국에서 조선족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한국에 와서 재혼하여 동생 두 명을 낳았다. 영철이의 친아버지는 지금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 영철이와 친아버지는 명절 때 잠깐씩 만난다고 하였다. 두 동생의 아버지인 영철이의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작년에 이혼하였다. 영철이 어머니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한국에 와서 너무 외로운 나머지 1년 만에 결혼한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폭력적인 남편과의 불화가 한동안 계속되다가 작년에 이혼한 이후에는 한결 사는 것이 편해졌다고 하였다. 영철이 어머니는 한국에 와서 가장 잘한 일로 이혼한 것을 꼽았다.

영철이의 두 동생은 작년까지 계속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여동생의 경우 성인 남성을 너무 무서워했고, 남동생은 ADHD 진단을 받은 것 이외에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 영철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두 동생을 돌봐야 했다. 두 동생이 복지관이나 심리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데려다주고, 직업훈련을 받느라 늦게 오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돌봐주었다. 올해는 상황이 다소 좋아져서 여동생은 남자어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고, 남동생도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영철이에게 주어졌던 동생 보살핌의 의무가 많이 해소된 편이었다.

성취욕이 있었고 에너지가 넘치는 어머니는 한국에 와서 회계자격증을 따기도 했지만 취직은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세 아이를 돌보면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기초수급에 의존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작년에는 바리스타 직무교육과 창업지원을 받아서 지인과 카페를 공동창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비싼 임대료 등의 문제로 창업을 하지는 못했다. 대신 어머니는 우연한 계기로 카센터에서 세차하는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지인을 통해 세차가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먼 거리에 있는 자동차 광택학원에 다니며 일을 배웠다. 최근에는 지인의 카센터에서 견습생처럼 배우면서 즐겁게 일을 하는 중이었다. 영철이의 어머니는 커피숍이나 회사 경리 일처럼 공간에 붙박여 있는 것보다는 생각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몸을 움직이면서 시간도 잘 가는 카센터 세차일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였다. 비록 길이 멀고 일이 고되 몸이 힘들어도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동생들을 돌보는 영철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일이 끝나고 늦게 돌아와서 영철이와 이야기할 기회도 별로 없었다. 아들의 공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 어머니

는 혼자서 세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였고, 아이들은 다소 방치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영철이에게)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되겠죠. 공부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걸 본인이 직접 몸소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겠죠. 공부 안 하면 나가서 막노동이나 하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무조건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진 않아요. 알아서 본인이 하겠지. 그러다가 후회도 자기가 할 것이고.

면접원: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영철이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머니: 그건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왜냐면 나도 애들 잘 때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냥 얼굴만 보고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서 대화는 없는데, 그냥... 그냥 미안한 것도 있죠. 자기 생활도 있는데 동생들한테 파묻혀서 내가 할 걸 쟤가 하니까. 저녁 밥 챙겨주고 아침에 학교 가는 것도 하니까... 미안한 생각도 좀 들죠.

2)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중3 담임교사는 중1때 담임이기도 했는데, 담임교사는 영철이가 사고와 행동이 느리기는 하지만, 우직하고 착한 학생이라고 평가하였다.

담임교사: 청소 시간에 청소를 꼼꼼하게 구석구석 잘 해요. 그런 건 칭찬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담임교사는 영철이가 2년 전에 비해서"멋"을 많이 부린다고 생각하였다.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고, 피어싱이나 귀걸이를 하고, 교복을 변형해서 입는다고 하였다. 작년에 영철이는 아주 성실하고 조용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교복 때문에 상당한 벌점이 누적되었다고 하였다.

영철이는 학교를 답답하게 여겼다. 영철이는 교복은 "죄수복" 이고 교실은 "감옥" 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하였다. 학교가 좀 더 자유로웠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영철이는 중학교에 와서 경험하는 각종 규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벌점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면접원: 학교가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

권영철: 개방적이면 좋겠어요. 학교를 생각하면 철창 없는 감옥, 죄수복 같은 교복, 그런 거 밖에 생각 안 나요.

면접원: 교복이 안 예쁘구나?

권영철: 그게 아니라, 교복이 뭔가를 묶어 놓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복으로 학교 다니고 싶고. 꾸미지를 못하게 하고.

권영철: 저는 초등학교가 이렇게 편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교복도 입고, 교복도 사러 가야 되고, 사복도 입고 다니고 싶은데, 학교에서 벌점제니 결과니 뭐 자퇴라니 조퇴라니 그런 것도 막

하면서, 애들을 점수 갖고... 학교는 일종의 거름망 같아요.
면접원: 거름망?
권영철: 좋은 애들은 보내고 안 좋은 애들은 낙제시키고...
면접원: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권영철: 네 혼자 그렇게. 근데 네티즌들 글 읽고 보면 사관 같은 선생님에 죄수복 같은 교복을 입고, 반이라는 죄수 방에서 감옥에서, 학교라는 교도소를 다닌다고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생활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영철이의 교우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친한 친구가 다섯 명 정도 있었다. 이들과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고민이 있을 때 나누는 편이었다. 하지만 영철이는 친구를 잘못만났다고 후회하기도 하였다. 자신은 분위기를 잘 타는 편인데,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영철이의 이런 말을 전해들은 담임교사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었다.

권영철: 친구 잘 만나야 될 거 같아요. 재밌는 애들 많이 만나가지고, 놀 땐 놀고, 공부도 잘 못해가지고...
면접원: 아, 다들 성적이 (안 좋구나)
권영철: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면접원: 공부 잘하는 친구는 안 껴 있구나.
권영철: 네.
면접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안 만났다고 하던데요.
담임교사: 아니, 본인이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붙는 거지 뭔 소리야? 그렇지 않나요? 참... 그렇게 생뚱맞은 소리를 하네요. (웃음)

영철이의 학업 성적은 하위권이었다. 수업 태도가 나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집중력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높은 편도 아니었다. 영철이는 역사를 좋아하는데 이는 어머니가 역사공부를 중시하여 집에 역사책을 많이 사놓았기 때문이었다. 영철이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나 역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나름의 의견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성적이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성적에 큰 관심이 없었고, 영철이도 어머니에게 성적표를 보여드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영철이는 학업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를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방과후 보충 학습 등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었다. 영철이는 학교에서 하는 대다수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담임교사는 영철이에게 제도적으로 주어진 기회가 너무 많지만 학생 스스로의 의지나 동기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교사는 영철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았다. 특별히 말썽을 부리지 않는 한 학부모와

상담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 있었다. 면접과정에서 영철이가 참가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해 물어볼 때 "... 뭐 있겠죠." 라는 답변을 많이 하였다.

면접원: 영철이가 그런 데 참여하는 게 있나요?
담임교사: 있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면접원: 이번 방학 때도 뭐 탈북청소년캠프에 참석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게 혹시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담임교사: 글쎄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많이 있겠죠.

교사는 영철이가 너무 많은 제도적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많은 지원이 오히려 의존적인 성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우려하였다.

담임교사: 공부를 하고자 하면 수강권이나 아침식사까지 해서 많은 부분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조금 더 노력하고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잘 해주니까 너무 의존하는 그런 면?
담임교사: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도 엄청 많고 탈북이니 다문화니 기초생활수급자니 뭐가 너무나도 많은 거 같아요, 나는 진짜로 아이들이, 퍽하면 먹는 거 사주고, 오히려 너무 (웃음)

영철이의 학교생활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교사는 영철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저소득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에 회의적이었다. 영철이는 복장규정 같은 학교규율에 반발하고 학교를 답답하게 여겼다. 학업성적은 낮았다. 한편 영철이는 역사나 사회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한국사회를 평가하는 데에도 나타났다.

3) 가치관 및 정체성, 목표

영철이는 한국사회에서 잘사는 삶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국은 서로를 욕하는 사회 같았다. 정치 불신도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였다. 친구들과는 그런 이야기도 나눈다고 하였다.

면접원: 영철이는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생각해요?
권영철: 처음에 왔을 때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살다보니깐 페이스북 같은 걸 해보니깐 항상 누군가를 욕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중략) 제가 본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면접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권영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니까? 전에 어떤 애가 죽었대요. 어떤 할아버지가 길을 막아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구급차로 가다가, 그 안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또 우리나라 경찰이나 정부를 좀 욕할 때도 있었어요. 친구들이 모여서 정부 욕도 하고. 욕먹을 짓 하면 욕먹는 건 당연하죠.
면접원: 뭐에 대해서 욕해요?
권영철: 다 호주머니 챙긴다고.

한국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영철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한국이 “갑”들의 사회라고 생각하였다.

어머니: 이번에 조현아 사태를 보면서도. 아 저거 1년은 먹을 건데 했는데? 그것도 금방 풀려나고 하니까, 아 역시나 하는 생각? 역시 돈이로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중략) 그런 것들 보면서 역시 갑의 세상이고 아직까지는.

한편 영철이는 중국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 그 느낌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중국을 생각하면 뭔가 두고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였다. 할머니 무덤을 두고 왔는데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하였다.

면접원: 그럼 중국 생각하면 어떤가요?
권영철: 어... 뭔가, 커다란 걸 두고 온 거 같아요.
면접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있어요?
영 철: 거기 할머니 무덤도 있고, 할아버지도 거기 계시고. (할아버지는) 이번에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하시던데, 가보면 저를 기억이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영철이는 면접원에게 “최씨 중에 독립운동가가 있었냐?”고 물었다. 할아버지가 최씨인데 어렴풋한 기억에 총을 갖고 계셨던 것 같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이기를 희망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영철이의 생각은 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았다. 영철이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어머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오직 수학, 영어, 이런 데에만 치중하지. 저는 인성이 우선이고 역사를 바로 알고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것도 모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런 것도 애들이 아무 것도 모르니까.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 젠틀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역사를 너무 무시하는 거 같아요. 역사를 무시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진로와 관련하여 영철이는 아직 뚜렷한 진로계획이 없었다. 미술에 취미가 있어서 미술고등학교 진학을 알아보기도 하였지만 아직 뚜렷하지는 않았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영철이의 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담임교사는 영철이가 인근의 전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이스터고는 어렵지만 인근의 다른 공업고등학교는 진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영철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독립적으로 자기 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영철이의 진로나 학업에 대해서 크게 개입하지 않는데, 무얼 하든 실용적이길 바란다고 하였다. 영철이는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가는 중인데 현실적으로는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대로 내년에 인근의 공고로 진학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4) 특성

영철이 가족의 사례를 보면, 어머니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이 부각되었다. 한국에 온 후의 외로움이 준비없는 결혼을 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은 이혼을 가져왔다. 자격증 취득에 열심을 내며 자영업자의 꿈을 키우다가, 지금은 카센터의 세차 일을 하며 만족하였다. 세 아이의 양육문제로 여전히 힘들지만 엄마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면 가족의 상황도 개선되리라고 판단되었다.

영철이의 경우 한국사회에 적응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무기력한 학생이라기보다는 사회비판적인 학생으로 판단되었다. 학교의 규율에 대해서 거부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의를 걱정하였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고 믿고 싶어 하였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영철이가 비록 학교 성적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역사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그가 지적으로 무력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영철이의 담임교사는 영철이에게 큰 관심이 없고 특별히 해줄 말도 없는 것 같았다.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비판적이지만, 그렇다면 그들의 대안적인 방법을 찾거나 교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는 않았다. 학생이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상담을 하거나 개개인에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영철이 담임선생님은 한겨레중학교에 다니는 희석이의 담임선생님과 대비가 되었다. 일반학교에서 평범한 학생 개개인에게 담임교사가 보이는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였다.

사. 김기현 (남/ 중3/ 중국출생/ 1999년생/ 2010년 입국)

1)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기현이 가족은 ○○에 살고 있었다. 중국에서 온 아버지와 북한 출신 어머니, 그리고 어린 여동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현이와 어머니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만, 아버지는 거의 한국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중국어를 병행하여 쓰고 있었다. 어머니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생활 중국어는 유창하게 구사하였다. 기현이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자유로웠다. 다만 읽기나 쓰기수준은 높지 않았다. 기현이는 중국에 있는 친구들과 메신저로 소통하고 있었다.

가족은 대체로 화목한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사춘기"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속을 썩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는 기현이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어머니: 사람은 이미지로 먹고 산다. 공부 암만 잘해도 이미지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있잖아요. 애들 양육시키는 데 (강조하는 것은) 첫째,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 그리고 나쁜 말 안 하는 거. 그런데 나쁜 말 하면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다 하더라고요.

기현이는 어머니 말에 대체로 순응하는 편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할 수 없을 수는 있어도, 대체로 지나간 일이 돌이켜보면 "엄마 말이 다 맞다"고 여긴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기현이가 이처럼 무난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냐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한국말이 서툰 편이고 가끔 일용직 건설노동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올 뿐 가정생활 전반에 깊게 관여를 하거나 간섭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버지 친척들은 모두 중국에 사는데, 기현이네 가족은 언젠가 중국으로 재이주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2)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기현이의 성적은 최하위권이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기현이의 한국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기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왔고 한국에 왔을 당시에 한국어를 못했다. 종단연구가 진행된 5년간 기현이의 한국어 능력은 매년 크게 향상되었다. 지금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직 학업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는 못하였다. 학업

과 관련해서는 영어와 과학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육 등 일부 실기 분과에 한해서 나름의 흥미를 느끼고 성과를 보고 있었다. 한국어가 점차 향상됨에 따라 최하위권에서 점차 벗어나서 중하위권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2학기의 목표는 120등(180명 중) 안에 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담임교사는 기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손으로 하는 활동들, 이를테면 요리나 손뜨개질 등에 취미가 있다고 했으며, 일반적인 남자 아이들과는 다르게 예쁜 무늬나 모양이 들어간 소품들도 가지고 있어서 눈에 띄기도 했다고 말하였다. 한편 운동도 좋아해서 친구들과 매우 재미있게 즐기는 편이라고 하였다.

기현이는 현재 학급에서 부반장이었다. 올해 다수 추천자를 학급임원으로 선출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기현이는 올해 들어 학급 반장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하고 다니곤 했으며, 많은 아이들의 추천을 받아 학급 부반장이 되었다고 하였다. 다수의 추천을 받아 부반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 만큼, 기현이의 교우관계도 매우 무난하고 원만한 편이었다.

담임교사: 아이들과 잘 융화가 돼요. 그래서 기현이가 저희 반 부반장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학업적인 면은 떨어져요. 하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 면에서 정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기현이가 다니는 중학교에는 동아리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 또한 다른 학교들처럼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 가정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기현이 어머니는 불만이 많았다.

기현이 어머니는 탈북주민이고 아버지는 중국인이어서 탈북학생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다문화 학생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적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기현이가 탈북 학생으로 지원을 받으려 하면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고, 다문화 학생으로 지원을 받으려 하면 탈북 가정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곤 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강력하게 “선을 그으라!”고 요구하였다.

어머니 : 똑바로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면접원: 선이요?
어머니: 다문화냐, 북한 애냐. 둘 중 하나는 해주어야지요!. 어디서는 다문화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탈북자라 했다. 근데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중국 애들이라 하고, 다문화는 다문화 혜택이 있고, 탈북자는 탈북

자 혜택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정확한 게 없어요. 진짜 헷갈려요 어떤 때는 애를 탈북자라고 하지, 어떤 때는 다문화라고 하니까, 얘는 지금... 다문화 혜택이 있을 때는 빠지고 탈북자 혜택이 있을 때도 빠지고. 둘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대한민국 애라고 쳐 주면, 차라리 그런 데로 그저 그렇구나 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출생 탈북여성의 자녀가 탈북학생 지원에서 배제되는 대표적인 것은 재외국민특별전형에 의한 특례입학이었다. 기현이 어머니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탈북자라고 했다가 다문화라고 했다가 하면서 대학은 다문화라고 특례입학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탈북 애들은 대학 가는 것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문화는 그런 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애를 탈북자라 했다가, 다문화라고 했다가. 탈북 청소년으로 쳐주면 내가 대학까지 보낼 거예요. 돈 안 내고 장학금 타면서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그 때 되어서 또 다문화라고 하면, 내 자체가, 또 돈을... 그게 지금 제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진짜, 진짜 이런 거는...

3) 가치관 및 정체성, 목표

기현이는 아직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은 없는 편이었다.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진로 관련 상담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기현이의 진로를 정해놓고 있었다. 어머니는 기현이가 기술을 배워서 빨리 취업하고 독립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기술도 고등교육까지 이수해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독립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아니라, 빠르게 습득해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기를 원했다. 한국에 와보니 대졸 실업자도 너무 많아서 대학을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기술을 배워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 기술적으로 니가 앞으로, 니 손으로 벌어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배워가지고 니가 해라. 그럼 나는 그게 좋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걸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대학을 졸업했대서 내가 완전히 평생 직업을 갖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요. 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니가 배울 걸 배워가지고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마지막에 니가 먹고 살 수 있게끔. 그걸 원하거든요. 자기도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머니는 기현이가 생활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관광 가이드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대학에 진학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일하게 할 생각은 실용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판단으로 보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현이가 다른 “탈북학생”들처럼 대학특례입학 지원을 받는다면 대학에 보낼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학진학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기현이는 한국이 살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생각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힘든 나라라는 생각을 인터넷을 통해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면접원: 한국 사회는 좀 어떤 사회인 거 같아요? 어떤 나라인 거 같다.
김기현: 좀... 살기 힘든 나라?
면접원: 살기 힘든 나라. 어떤 점에서?
김기현: 그냥 뭔가, 힘든 나라, 공부하기 힘든 나라.
면접원: 중국은?
김기현: 그냥... 편해요.
면접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있어요?
김기현: 차별 없고! 공부 같은 걸로 경쟁 안 시키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면접원: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었나봐?
김기현: 아니요.
면접원: 그런 건 아니고?
김기현: 그냥 뭔가 싫어요.
면접원: 00중학교는 어때요? 그래요?
김기현: 아니요.
면접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건 어떻게 알 게 되었어요? 학교가 안 그런데.
김기현: 그냥 인터넷 보면 그래요.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기현이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한국사회에 점수를 매긴다면 40점 정도라고 생각하였다. 한국에 살면서 점수가 더 낮아졌다고 하였다. 인정 없이 각박한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면접원: 한국 사회가 몇 점 정도 되는 사회가 같다, 중국은 몇 점 정도 되는 사회다, 그런 거 같은 게 있을까요?
어머니: 한국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대한민국을 했을 때, 진짜 100점에서 80점까지는 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진짜... 80점까지는 못 갈 거 같아요.
면접원: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어머니: 저는 한 40점. 내가 딱 놓고 봤을 때 있잖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못 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도 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찌나 매정해요? 진짜 중국이나 북한에 있을 때는 있잖아요? 간장이 없으면, 옆집 나가서 간장도 빌려다 먹고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이웃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기현이네 가족은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거주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편이었다. 이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점차 줄어드는 지원, 경우에 따라서는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지원 기준 등에 따라, 기현이와 어머니는 한국 사회가 결코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지난해까지 해도 기현이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 가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으나, 올해 들어서는 중국으로 이주해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다. 중국이주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되었다.

면접원: 어디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어요?
김기현: 저요? 중국이요.

4) 특성

기현이의 사례는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였다. 우선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듯하였다. 실제 지원이 적은지를 확인해야하겠지만 적어도 기현이 어머니는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 정보를 찾아서 기현이에게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기현이의 경우, 탈북학생과 다문화학생의 중첩지대에 존재하였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탈북학생과 다문화학생을 구분하여 상대 범주의 학생을 배제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지는 않는다. 특히 기현이처럼 중국출생 탈북여성의 자녀인 경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북한출생 학생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도 기현이 어머니가 양쪽에서 배척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학 특례입학제도에서 중국출생자가 배제되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교육적 지원이 명확한 방향에 따라 이뤄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지원을 받다가 대학입학 시 구별되는 것에 대해 기현이어머니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북한출생 학생에게만 “특례”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 차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기현이와 어머니는 중국과 북한, 한국사회를 비교하는 눈을 가지고, 자신이 살 곳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중국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인터넷 정보이거나 상대적 박탈감인 것 같았다. 중국이라는 다른 이주공간이 있을 때, 한국사회에서 겪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하기보다, 비판하고 떠나버리는 편을 택할 수도 있게 만들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점에서 기현이 가족은 현재,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주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2 고등학생의 사례

가. 김영우 (남/ 고1/ 북한출생/ 1998년생/ 2007년 입국)

1)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영우네 가족은 부모가 외동아들인 영우의 학업, 진학, 교육에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에서 교사였던 어머니는 학생의 학업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큰 지원자이자 코치이고, 어떤 면에서는 매니저라고 할 수 있었다.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데 어머니의 역할이 무척 커서 어머니가 마치 입시를 준비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성적에 관련된 것은 어머니가 계속 체크하였고, 학생의 학원비를 위해 주말 알바를 시작했다고 하였다. 학교 방학·개학일 등 학생이 외우지 못하고 있는 내용도 꿰뚫고 있었다.

> 어머니: 계속 컴퓨터에 앉아서 그냥 검색을 하고, 그 00외고의 뭐 역사라든지, 어떤 동아리가 있고 어떤 봉사가 있고, 면접에 들어갔을 때 막힘없이 모든 거 대답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뽑아가지고 영우한테 암기를 시키기도 했어요. 아마 한 일 년 동안은 영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붙느냐 마느냐 뭐 거기 올인 했다고 봐야죠.

영우는 올해 사회적배려자 특별전형을 통해 00외고에 진학하였다. 이것은 교사 면담을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는 면접원에게 일반전형으로 합격했다고 말하였다. 외고에 진학하기까지 어머니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입시전형 관련 정보를 얻거나 학교에 전화를 해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등 영우가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봉사활동, 독서감상문, 성적, 면접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어머니가 미리 체크를 하고 학생에게 시켜야 할 부분은 시키기도 하면서 준비하였다. 어머니의 표현대로 지난 1년은 영우가 입시 준비에 전적으로 매진한 시간이었다.

2)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담임교사의 말에 따르면 학생의 성적은 최하위권이다. 또한 수업 태도나 자율학습 태도 역시 좋은 편이 아니었다. 이러한 학습 및 생활태도와 달리 교우관계에 있어서는 비교적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학교 때 반 친구와의 폭력 사건으로 학교를 며칠 등교하지 않는 등의 사건이 있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학급 교우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영우는 본인이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드러나는 안 좋은 면을 애써 회피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 가족 내에서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환상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고 하였다. 사실이 아닌 자녀의 모습을 실제라고 믿는 환상이 이 가족을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접원: 지금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너 북한에서 왔다는 거 알아?
김영우: 아니요.
면접원: 그건 밝힐 필요가 없어서 안 밝힌 거니?
김영우: 네.

어머니는 학부모 모임에 한 차례 참석한 적이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모임인데, 자신은 끼어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참석한 이후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탈북학생이라는 사실을 학교에서 숨기고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고, 다른 하나는 경제력과 직업 등을 비교해서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씩 모여서 하는데, 다 외제차를 끌고 오는데 나는 그러질 못하니까, 제가 또 말을 하다가도 말씨가 튀어나올까봐. 근데 그 학급도 영우가 탈북한 아이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데 괜히 또 내가, 물론 뭐 나면 그냥 상관없죠. 나는 뭐 북한에서 왔다 할 수 있는데, 학급과 학교 자체가 탈북 그 자체를 모르는데

3) 가치관 및 정체성, 목표

영우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학생에 대한 기대와 요구로 이어지고 이것이 영우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압박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우 가족들은 영우에 대하여 학업과 성적, 그리고 학생의 재능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영우는 교대를 진학해서 교사가 되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교대보다는 서울대 등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장래 직업도 경영학과를 진학하여 금융계통이나 공기업에 진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김영우: 그때는 그냥 딱히 비전도 없고 그냥 좀 방황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건 아마도 꿈하고 목표가 중요하고 그게 주된 목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거 같아요.

면접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어떤 이유가 있어?
김영우: 동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거 같아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좀 더 해야겠다'그런 생각도 들고.
면접원: 너 꿈과 목표가 뭐니?
김영우: 저, 초등학교 교사요.

교사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성적에 대해 신뢰하고 기대하는 편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학생으로 지목하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학부모가 학생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여하고 학생의 실제 모습을 과장하여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담임교사: 이제 영우를 겨우 한 학기 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지 신뢰가 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애가 뭐 탈선이나 일탈을 하는 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4) 특성

영우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나칠 만큼 큰 기대를 받고 있었다. 어머니의 지원과 열정이 영우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학생의 학업과 진학에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으며, 거의 절대적인 지원자이자 코치이고, 매니저였다. 외고에 진학하기까지 어머니는 입시전형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직접 작성하면서 지난 1년은 영우가 입시 준비에 전념하였다.

영우의 현재 성적은 하위권이고 교사의 의견에 따르면 수업 태도나 자율학습 태도 역시 좋은 편이 아니다. 단지 학급 교우들과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여 학교생활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생은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과잉기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은 과도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욱이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성적과 외고 입학에 대해서 학생의 실질적인 수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서 인식하고 있었다. 영우에 대한 과잉기대이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1, 2년차 면담에서 '학생에 대한 어머니의 과도한 기대와 압박이 학생에게 부담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학생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생은 '부모와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모와 심리적으로 독립하면서 스스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런 점을 볼 때 어머니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성적에 대해 교사의 말을 신뢰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어머니가 지나친 기대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 아닌 실제 '있는 그대로의 학생'을 보고 그에 적절한 기대 수준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탈북학생에 대한 적극적 보상정책으로서 지원 정책이 갖고 있는 양면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그들의 잠재 가능성을 인정하고 성장을 도와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영우는 탈북학생 가운데 우수학생으로 선발되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잠재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성장하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학생의 실제적인 능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함으로써 지나친 기대와 지원을 받음으로써 현실을 왜곡하여 판단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학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과잉기대를 갖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인식하여 영우의 담임교사는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이 지나쳐서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영우와 그의 부모는 대학 진학에 특혜를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활용하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나. 이혜선 (여/ 고2/ 북한출생/ 1998년생/ 2007년 입국)

1)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혜선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머니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다.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예전에는 혜선이에게 말을 걸어도 잘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애정표현도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해가 갈수록 점점 살만하다고 하였는데, 직장에서도 점차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특히 혜선이의 동생은 학교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에 상당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혜선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외공부를 하지만 어머니로서는 감당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속상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적금을 해지하고 생활비를 줄이면서 혜선이 남매의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어머니: 2학년 올라와 '엄마 나는 2학년 수학하고 영어하고 싶대'. 과외 받고 싶대. 생각해 보니까 한 과목이 막 2~30만원이더라고 고등학생은. 근데 동생한테 돈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진짜 돈이 없거든요. 또 옷은 안사입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하던 적금마저 다 해지시키고.... 설날부터 거제 동계 훈련비부터 뭐 40만원, 70만원 이번에도 80만원, 그렇게 나가니까, 내 혼자 월급 타가지고 맞추는데 안되는 거예요.

2)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혜선이는 해가 갈수록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사회적 관계 능력이 향상되어 가고 있었다.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잘 지내지 못하였다. 중2때는 친구를 사귀기는 하였지만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만나서 학교도 결석하고 가출한 적도 있었다. 이때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학생을 타일러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여러 학생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며 무리 없이 적응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렸는데 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 받은 적은 없고 아이들이 궁금한 점을 묻거나 하면 대답해 주면서 오히려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 이는 자신이 정부지원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고, 혜선이의 이러한 긍정적 사고방식이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았다.

혜선이는 점차 성숙하고 부드럽고 사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꾸밈없이 솔직하게 말하며, 단점 또는 약점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 세상과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표시하였다.

선생님: 그래도 혜선이 정도면 잘 적응하는 게 아닌가.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 학업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생활적인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담임한테도 자신의 의시표현이라던가 감정표현을 잘 하는 편이고 교우관계도 모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접원: 혜선이가 북쪽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혜선: 네. 아직은 의미 같은 거는... 그냥 태어난 곳?

혜선이는 자신의 장래와 관련,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꾸밈없이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혜선이는 학습에 대한 기초가 제대로 습득되지 않아서 성적이 낮았다. 역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신의 성적이 낮은 것을 속상해 하고 있었다.

3) 가치관 및 정체성, 목표

혜선이는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장래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갖고 있었다.

어머니: 대학생들은 등록금이 있더라고. 근데 이 아이들은 무료로 갈 수 있자나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 대학에 가겠다는 꿈이 굳건해 진거지. 공부는 안 되지만 자기 가겠다고, 복지관 찾아다니며 매 주마다 할머니들 한글도 가르치고...

선생님: 활발하고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영역이 있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가서 참여하려는 편이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저는 매우 잘 적응하고 잘 지낸다고 생각해요

이혜선: 나중에, 백수가 되거나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지? 하다가 안 되면 아예 제 인생이 망할 것 같아서 생각 많이 해요.

면접원: 그래도 기특하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어?

이혜선: 그냥.... 제 인생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긴 한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항상 혜선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었다. 딸이 관심 있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어머니는 때로는 경제적 부담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에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이 꿈을 찾고 경험해 보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올해에 어머니는 해외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봉사단 지원서 작성을 도와주시고 직접 전화도 걸어 사정을 설명하면서 나서서 도와주었다. 이 경험을 통해 학생은 남을 돕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사회복지사의 꿈을 꾸고 있었다.

4) 특성

혜선이와 어머니 모두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였다. 어머니는 직장에서도 점차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서 해가 갈수록 살만하다고 한다. 그러나 혜선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과외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로서는 감당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속상해 하고 있었다.

혜선이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사회적 관계 능력이 향상되고 있었다. 중학교 때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 학생들과 사귀면서 결석하고 가출한 적도 있었다. 이때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었다. 혜선이는 자신을 '북에서 태어난 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출생지만 북한일 뿐이지 완전히 남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학생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며 무리 없이 적응하고 있었다. 또한 탈북학생으로서 수혜자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면 긍정적 태도라고 할 수 있었다. 올해에는 해외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사회복지사라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적응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 자신이 친구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비록 학습능력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에는 성적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그것을 오히려 자신이 적응하는 적극적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자신의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는 데에서 미래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있는 데, 이런 점은 대부분 탈북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조은향 (여/ 고2/ 북한출생/ 1996년생/ 2008년 입국)

1)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어머니는 남한에서 공부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얻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남한 행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탈북주민과 달리 남한 친구들이 북한출신 친구들보다 더 많다고 하였다. 이것이 남한 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판단하였다. 최근에 어머니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새로 시작한 일(교수님 조교)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이 일을 통해 공부하는 즐거움을 얻고 터득하고 있었다. 다른 북한이탈 가정의 부모들이 자식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의미를 찾는 것과는 달리 어머니는 자신의 성취와 성장을 통해 삶의 의미를 얻고 있는 듯하였다.

어머니: 전에는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못 다가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무섭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항상 경계를 갖고. 그런데 2학년 되고 그 다음에 2학기가 되고, 내가 막 이젠 교수님들 말도 좀 알아듣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내 이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기면 내가 먼저 다가간 거예요.

어머니: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여기 적응이 쉽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진짜 간절했어요. 그때까지는 나도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을 열고 보니까 너무 좋은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려야 되는 거예요.

2)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은향이는 고등학교 적응에서 다소의 기복을 보이고 있었다.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매일 학교를 관두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다. 현재는 학교에 잘 적응한 상태였고 더 이상 학교를 관둘 생각은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 들어서는 지난해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

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아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다보니 성적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포기 한 상태인 것으로 보였다.

조은향: 만 19세이잖아요 지금. 그 해가 확 차이나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만 18세니까. 주민등록증 딱 받으니까 제 마음이 뭉클하고 뭔가 책임감?
조은향: 선생님이 막 너 자신감 갖고 살라고, 너 이름을 좀 날려 보라고 학교에서... 하도 제가 조용히 살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예요.
조은향: 내가 맨날 지각하면 너 뭐 하다 왔냐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일부러 담임 얼굴 보기 싫어서라도 저 진짜 딱 수업시간에 맞춰서 가거나 그래요.

은향이는 익숙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말도 잘 하고 잘 웃고 지내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반 아이들과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말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교 때 북에서 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심하게 당한 이후로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데, 이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였다.

선생님: 그래도 은향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최하위권은 아니고 중하위권 정도 되요. 그래도 일찍부터, 중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 정도는 따라 가는데 인제 그 교우관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해요.

3) 가치관 및 정체성, 목표

은향이는 일 년 전에 비해 내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으로 보였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더불어 가는 삶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 어머니는 은향이가 자격증을 따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고 간호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였다. 학생도 어머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간호사라는 직업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는 않고 있었다.

조은향: 직업도 이왕이면 내가 여태 고수해 왔던 간호사 쪽이 낫지 않을까, 작년에 직업체험을 나갔는데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하고 싶어 졌어요.
선생님: 그래도 본인이 흥미 있어 하는 게 글쓰기. 여기저기 대회도 나가고 인제 이렇게 글쓰기를 굉장히 성실하게 써요. 그 다음에 목표의식은 있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은향이가 타인에 대해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고 경계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은 입국 직후 초등학교 때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생각해 본다는 자체가 앞으로 긍정적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예전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면접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의욕 같은 거가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선생님: 마음도 못 열고 행동도 적극적으로 다가서질 못하고, 여러 가지로, 자신감 결여 이런 걸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애들 진짜 어떤 사지에서 어려움을 겪고서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진짜 무기력하게 할 수도 있구나. 한 편으론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은향이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나름의 방법을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활용하고 있었는데, 어려움에 대하여 좀 더 성숙한 방식으로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은향이는 오래 된 교회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와 싸우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다.

조은향: 나만의 방법을 찾자. 이래가지고 제 취미생활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취미생활 하나씩 찾는 것 같아요. 화 날 때마다.
조은향: 일기를 쓰고 나서 그냥, 그 날 바로 읽지는 않은데 일주일 동안 쓴 걸 막 읽다 보면 아, 내가 한 주에는 뭣 때문에 화가 났었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다, 옆에다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써 놓는 거예요.
조은향: 작년 2학기 때부터 교회친구랑 되게 많이 싸웠어요. 싸우고 막 이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더 친밀해 진 것 같고, 1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4) 특성

은향이는 남한에 온 이후 초기에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욱이 북한에서 부모는 고위급에 속했기 때문에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남한에 온 이후에는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자신을 숨겨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삶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남한에서는 치열한 경쟁구조 속에서 항상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학생은 성실한 성격으로서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아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실망하고 포기하고 있었다. 더욱이 체력이 약하고 자주 아프기 때문에 정상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해나가기에 힘든 것으로 보였다.

은향이는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끈기 있는 어머님의 모습을 닮은 것으로 보였다. 학생은 매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체력이 약하고, 아이같이 보호받고 자란 부분도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은 받는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긍정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비록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었다.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감을 길러주고 자신의 진로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지지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머니는 가정에서 상담자로서 지지자로서 더 큰 역할이 필요할 것이며, 친구와 교사가 학생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고성훈 (남/ 고2/ 북한출생/ 1995년생/ 2005년 입국)

1)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지난 1년 동안 성훈이 가족에게 변화가 생겼는데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 남자가 성훈이에게 잘 해주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였다. 성훈이를 따로 데리고 나가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장래에 대해서도 걱정해 주는 모습에서 위안을 받았다고 하였다. 성훈이 또한 아저씨를 좋게 생각하였고 어머니와 결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성훈이는 어릴 때 북에서 나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저씨에게 아버지의 정을 느끼고 있었다.

면접원: 성훈이는 아버지 기억이 잘 없다고 했지? 혹시? 좀 (아저씨에 대하여) 아버지 같다는 이런 느낌이다 뭐 이런 게 혹시 느껴져?
고성훈: 네
면접원: 어, 그래? 그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
고성훈: 아주 좋죠.

최근에 성훈이 어머니는 코칭상담사 과정을 수강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한국에 오신 이후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고 이 때문에 불면증이 생겨 정신과 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다. 또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았고 손가락을 다쳐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건강 문제가 있었다.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코칭을 배우면서 내면에 쌓여왔던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소한 것이 어머니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머니는 코칭을 공부한 이후로 성훈이를 대할 때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성훈이는 별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코칭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면접원: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작년보다.
어머니: 그래요? 좀 공부를 이렇게 뭔가 코칭 같은 거 하면서요 내가 나를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다 이해해 주고, 성훈이가 또 막 (화가) 머리까지 올라와도 (친절하게) 그랬어? 그러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힘들 땐 힘들어도 그래도 막 욕하고 이제 후회하는 것 보다 좀 나아요.

성훈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팠기 때문에 많은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습관이 형성되었다. 현재에도 장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머니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성훈이는 순종하는 편이었다.

2)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성훈이의 학교생활은 매우 조용하고 무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공부를 전혀 안하고 있어서 성적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어머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훈이는 집에서 책가방을 열어보지도 않으며 공부를 전혀 안한다고 하였다. 담임선생님도 성훈이가 수업 시간에 대부분 자고, 남들이 다 하는 중요한 과제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강제적으로 시키면 마지못해 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어머니: 학생이면 책을 봐야 되는데 책 안 봐요. 시험기간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적도 바라지 않고 공부도 바라지 않고 오직 건강.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아이들 해 줘서 감사합니다 기도도 그거에요.
면접원: 아무래도 몸이 아픈 것이 이 학생에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네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세요?
선생님: 몸 피곤하고 아프고 키도 왜소하고 하니까 의욕이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성취욕도 떨어지고.

정작 성훈이는 나름대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고 있었다. 시험기간에도 공부를 안하지만 평소 좋아하는 영화관람 등을 할 수 없어서 빨리 시험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성훈이는 친구들과 특별한 문제없이 무난하게 지내고 있는데, 친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은 있는 편이었다.

3) 가치관 및 정체성, 목표

성훈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보다는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 몸도 아프고 현실적으로 능력이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꿈인 것으로 보였다.

면접원: 뭐가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없어?
고성훈: 자기 목표를 이뤄가지고, 잘 된 사람.
면접원: 잘 된 사람? 잘 된다는 게?
고성훈: 자기 꿈을 이룬 거.
면접원: 그냥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성훈이는 전체적으로 가족들이 정해준 장래목표와 진로를 수용하고 있었고, 집에서는 말을 잘 듣는 착하고 어린 아들로 취급당하고 있었다. 또한 오랜 투병으로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사회생활에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체념을 하는 부분도 있었다.

면접원: 카센터나 이런 거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성훈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머니: 성훈이가 좋대요. 말 하니까 그렇게 해 줄게 하니까 예, 그러고. 우리 성훈이가 모르니까. 아프니까 병원생활만 하고 사회생활은 모르잖아요.
어머니: 내가 너 사춘기 있었어? 그러니까 '아픔으로 지나갔겠죠. 병원에서'. 딱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이제 찡하지요. 얘한테도 있었구나. 표현을 안했구나. 아파서 병원생활을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사춘기를 생각한 거야.

4) 특성

어머니는 성훈이의 성장에서 중요한 요인이었다. 어머니는 북에서의 삶이 불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배경이 성훈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머니는 현재 남한에서의 삶이'천국', 북한을'지옥'이라고 표현하며 북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였다. 어머니는 한국에 오신 이후로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며 갑상선 수술과 손가락 수술로 크고 작은 건강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 어머니는 코칭상담사 과정을 수강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성격과 태도는 성훈이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머니는 성격이 강하고 자립적이어서 아픈 학생을 위해 헌신하고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성훈이 자신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 감사하고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에 어머니의 강한 성격 때문에 성훈이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다소 주눅 들어 눈치를 보는 경향도 있었다. 또한 군대식인 어머님의 특성 상 정서적인 지지와 부드러움 보다는 규율을 지키는 엄격한 교육방식을 갖고 있었다.

성훈이는 나이에 비해 어려 보였고, 체구도 또래와 비교했을 때 작은 편이었다. 나이로 보아 성인임에도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자신의 중요한 결정이나 생활

방식 등을 가족들이 대신 결정해 주는 것으로 보였다.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결정권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았고, 실제로 그렇게 보였다. 현재는 그런 상황에 체념하고 순응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누나 등은 성격이 강하고 적극적인데 비해서 성훈이는 내성적이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다. 자신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불만을 가질 법도 한데, 겉으로는 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남한이라는 경쟁사회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자립적인 태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자세가 부족한 것 같았다.

성훈이는 스스로 한국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하였다. 현재 한국에서의 삶이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지내기에는 좋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인으로서 자립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임에도 자신의 주장을 하기 보다는 가족의 의견에 따라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컸다. 이러한 경향이 힘든 상황과 맞물리면서 만성적인 무기력감과 의욕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성훈이의 집에 '아저씨'가 등장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저씨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간의 관계가 긴밀하고 서로 잘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성훈이가 가진 큰 강점이었다. 이에 더해서 성훈이가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성훈이의 경우도 어머니와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진로지도가 필요하였다. 자식에 대하여 자립적인 태도를 키워줄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격려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진로상담,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자립적인 태도를 키우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마. 백철민 (남/ 고3/ 북한출생/ 1996년생/ 2009년 입국)

1)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철민이에게 가족은 든든한 지원자이자 조언자였다. 가족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부모가 자녀의 진로, 일, 학업 등에 크게 간섭을 하지 않으면서 담담히 응원을 보내고 서로 의지를 할 수 있는 사이였다. 철민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을 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가족이었다.

2)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철민이는 현재 ○○외고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철민이는 매우 생기가 있고 에너지가 넘치며 발랄하였다. 학교 내에서 '해피 바이러스'로 통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만큼 밝고 긍정적이며 늘 웃는 모습이었다. 그것이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이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다. 철민이는 교우관계나 교내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었다. 교내에서는 친구들과 두루 친하고, 북한인권동아리 선생님이나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백철민: 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해피 바이러스'라고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긍정적인 생각부터 하고, 아무리 둘러봐도 긍정적인 게 없다고 그래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게 가장 큰 제 장점이지 않을까.

백철민: 선생님까지 저한테 계속 '열심히 해야 한다. 책임감 갖고 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울컥 해서 화냈었거든요.

면접원: 말로?

백철민: 전화로. 전화로 막 얘기하다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서 화해하고, 그날이 선생님 생신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날 내 생일이었다' 하시는데, 그 다음에 더 죄송해 가지고.

백철민: 제가 또래상담사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힘들다 그러면 '그게 힘들어?'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공감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해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되게 그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백철민: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일단 그냥 들어만 주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했고, 힘들어하면 위로해 준다든가. 해결은 아마 본인이 하는 거라 생각해서

철민이는 학습 의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는 소홀히 하였고, 2학년이 되어서야 공부를 한 탓에 성적은 하위권이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서 공부는 다시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고 있었는데, 대학 진학에 3학년 성적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교사는 그런 점에서 철민이가 '영리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약았다'고 말하였다.

면접원: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건 어떤 거?

백철민: 저 1학년 때 학급 회장하면서, 그 학교 솔직히 거기가 애들 공부 다 잘하는 곳이잖아요. 들어가서 많이 힘들었죠. 저는 중학교 때, 방황하다가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 금방 먹었을 때여서 아무리 그래도 공부하는 습관이 그렇게 배어있지는 않았거든요.

종단연구 인터뷰 대상자 가운데 철민이는 '북한 출신'임을 가장 떳떳하게 내세우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중학교 때부터 '나는 북한에서 온 백철민이다'를 당당하게 외치면서 입학하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반 친구들을 모두 울릴 만큼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과정을 무용담처럼 소개하기도 하였다.

백철민: 1학년 역사 시간에 제가 그때 논술 시간이었는데, 제 꿈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한 10분, 15분 정도 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반 애들이 전부 다 울었어요. 그때부터 북한에 대해 더 관심을 갖는 애들도 생겼고, 저를 보면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도 많이 생겼고.

백철민: 저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나 물어보면, 제 지역부터 얘기해요. '청진에서 왔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어딜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쪽팔린 건 아니죠. 제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3) 가치관 및 정체성

철민이는 자신이'탈북학생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실제로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보였다. 자신의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를 찾아가는 능력도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학생은 현재 북한 관련 인권변호사를 꿈꾸고 있으면서 oo대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한 상태였다.

한 가지 재미있는 관점은 '적응'에 대한 이야기였다. 학생은 북한식 말을 고수할 것인지 한국말투로 빨리 바꿀 것인지를 고민한 적이 있었고, 그것은 정체성과도 관련된 문제였다. 그래서 교사에게 질문은 했는데 그 답은 두 가지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적절히 사용하는 것,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 배경을 아우르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적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철민이의 선택이었다. 즉, 나름대로 자신이 원하고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적응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백철민: 제 마음 상태가 편안하고 즐겁고 약간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아, 여기도 내 고향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것은 적응이 아닐까. 그냥 본인이 느끼기에 지금 생활이 만족하다 그러면 그게 적응한 게 아닐까요?

백철민: 저는 그래요. '북한에 대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기 애들처럼 똑같이 되려고 하면 그건 힘들어서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그 뿌리를 두고 그래서 마음속에는 아마 그 뿌리를 아예 까맣게 잊지는 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4) 특성

철민이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이었다. 부모는 자녀의 진로와 학업 등에 크게 간섭을 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논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지지자 역할을 잘하고 있었다.

어머니: 자기가 자각해서 하니까 그걸 나중에 학생을 벗어나서 사회에 나가도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져봐야 일어날 줄 안다고 꼴지 하더라도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기가 몸부림쳐야지 안그래요? 그러니까 맡겼어요.

성장에는 본인의 잠재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해피 바이러스'라고 불릴 만큼 매우 생기가 넘치며 발랄하였다. 자신을 '탈북자'라고 자신있게 말할 만큼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주변에 많은 조언자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잠재력이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폭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요인이었다.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많이 깨줬어요. '탈북학생이니까 약간 학교생활에 적응이 힘들 거다.' 그리고 '약간 외모가 왜소하고 신체가 작고, 키도 작고 이러니까, 그런데 완전 정반대로 아이들한테서는 굉장히 신임을 얻고 있었고, 남자 애들에서 특히 리더십 있게 상황을 이끌고 가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가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철민이는 '탈북자'라는 자신의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북한출신으로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적절히 조화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구사하고 있었다. 북한식 말투와 한국식 말투를 적절히 필요에 따라 섞어 가면서 구사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장의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의지이자 꿈이었다. 철민이는 자신이 탈북청소년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현재까지는 실제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현재 북한 관련 인권변호사를 꿈꾸고 있으며 이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 학과를 지원하였다.

3 대학생의 사례

가. 장은하 (여/ 대1/ 북한출생/ 1995년생/ 2006년 입국)

1)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은하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언니, 은하, 남동생 이렇게 다섯 명이다. 은하의 친아버지는 북에서 사망하였고, 새아버지는 어머니가 하나원에서 만난 분이었다. 어머니는 2002년에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가정을 꾸렸고, 2006년에 은하와 언니가 입국하였다. 남동생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용접 일을 하면서 안정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어머니도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두 분의 수입으로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최근 새로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은하의 부모님은 한국사회에서 착실하게 자리 잡아가는 자신들 스스로가 자랑스럽다고 하였다.

어머니: 우리 남편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당신과 나랑 참 대단하다.”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누구의 도움 없이 저희는 이만큼 온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저희가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남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왔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저희만큼, 이렇게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사실상 내 집 못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진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대단한 거죠.

은하어머니는 자신과 남편은 한국에 와서 현재에 충실하게 살았다고 믿는다고 하였다. 은하아버지는 북한에서 엘리트여서 힘든 육체노동직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한다는 생각에 “뙤약볕에서” 땀을 흘려 일했다. 한국에 살려면 과거를 잊고 근면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어머니: 과거에 연연하게 되면 과거시절 저희가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없다 아닙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앞으로 현재가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 자기가 분발해야죠.

은하 어머니는 부부의 화목을 중시하였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자주 표현하였다. 어머니가 여장부처럼 진취적인 성격인 데 반해 아버지는 유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두 분 모두 가족에 대해 헌신적이며,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컸다.

은하는 표현이 많은 편이 아니지만, 성실하고 생활력이 강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면접원: 어머니한테 배울 점이 많겠네.
장은하: 많은 것 같아요.
면접원: 어떤 게 있어?
장은하: 일단은 가치관이나 되게 성실한 거. 되게 많은데, 콕 집어서 말 못하겠어요. 아무튼 제가 남자친구한테 엄마 얘기를 하니까 진짜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되게 얘기 많이 하는데, 칭찬 많이 해요. 진짜 배울 점 많다고

언니는 은하보다 세 살이 많고 고등학교는 2년 일찍 졸업하였다.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올해 은하와 마찬가지로 대학 1학년생이 되어 00대 치위생과에 재학 중이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희망을 접고 중3 담임교사의 권유로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 경험으로 인해 배운 교훈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2)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은하는 올해 00대학교 항공우주기계공학부에 입학하여 1학년 1학기를 마쳤다. 항공정비사가 꿈이었으므로 희망 대학과 학과를 진학하였다고 하였다. 첫 학기를 지낸 소감은 기대했던 대학생활보다는 싱거웠지만 전반적으로 즐거웠다고 하였다. 집이 멀어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기도 하면서 이전에 없던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다고 하였다. 같은 과에 다니는 남자친구도 생겼다. 학과의 제1호 컴퍼스 커플이라고 하였다.

대학생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자신을 생각해보면 웃음도 많아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생겼다고 하였다.

장은하: 웃는 상, 얼굴에 많이, 원래 좀 많이 무뚝뚝했잖아요. 그런데 많이 웃는 거 이렇게 변하긴 했어요.

반면 학업에는 충실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판단하였다. 성적이 낮았고 그 때문에 2학기에는 성적미달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은하 어머니는 대학에 들어간 딸들에게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공부만 열심히 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은하의 성적에 아쉬움이 있었고, 2학기 때 기숙사를 떨어진다면 왕복 3시간 거리를 통학시키겠다고 하였다. 은하

도 자신의 지난 학기를 반성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은하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언니와 함께 해외로 어학연수를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다녀올 계획인데, 성적과 토익 점수가 필요하였다. 때문에 2학기 때는 더 열심히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3) 가치관 및 정체성, 목표

은하는 고등학생 때 부산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부산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은 2013년 종단연구 보고서에 기술하였다. 부산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은 언어에도 반영되어, 은하어머니의 경우 북한말투가 아니라 부산사투리를 썼다. 은하의 언니도 부산이 한국에서의 고향이라고 여겼다.

장은하: 어머니는 부산 사투리.
면접원: 부산 사투리도 남아 있더라 아직까지
장은하: 많이 남아서 계속 그것만 써요.
은하언니: 이제는 부산이라는 게 이제 고향이 생긴 거잖아요. 제가 한국 나와서 처음으로 간 곳이 부산이니까, 또 거기서도 좀 살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저는 북에서 왔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부산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들한테 다가갔고.

부산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감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은하는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자신이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였다고 하였다. 올해 은하는 남자친구에게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받아주었고, 그 이후 둘 사이는 더 가까워졌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 출신임을 드러내고 북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게 재미있게도 느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장은하: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숨기는 것 같잖아요. 그거 하나면 딱히 없는데. 굳이 숨기려고 한 게 아닌데 숨겨진 거잖아요.
면접원: 그렇지. 얘기를 또 안 하고 있으면.
장은하: 속인 거 되니까 그냥 얘기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반응이 쿨해서 놀랬어요. 내가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얘기하지' 했는데 자기도 자기 친구의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와서 거기에서 온 애랑 많이 친하게 놀았다고. '뭐 그게 뭐 어때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한편, 은하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탈북학생', '탈북자', '새터민' 등의 이름으로 구별해서 부르는 것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그냥 출신이 북한일 뿐이고 자신이 스스로 드러낼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내면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별도의 규정적 이름을 지어 부르면 '다문화학생'의 경우도 분류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장은하: 제발 좀 그렇게 분류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 꼭 탈북학생, 탈북자, 새터민 왜 이렇게 꼭 말하는지 그거 진짜 맘에 안 들거든요. 솔직히. (중략) 아니 왜 그게 꼭, 거기나 여기나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왜 말은 꼭 분류를 시켜놓는지 그건 좀. 다른 애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분류해놓는 것 자체가 차별 같은 거니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했으면 좋겠는데

장은하: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되게 왕따 같은 거 많이 당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분류를 시켜 놓으니까 애들이 얘랑 나랑 다르다는 걸 인식하니까 넌 나랑 다르니까 이렇게 얕보고 그런 게 더 크니까 왕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분류를 안 시켜놓으면 얘네가 차별되는지 안 되는지 인식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인식을 해 놓으니까 얘네가 더 그런 것 같은데. 이해돼요?

은하는 '잘 살 것이다. 성공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후회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현재의 꿈은 공군 항공정비사였다. 현재 그 꿈을 향해 대학교 1학년 생활을 하고 있었다.

4) 특성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주변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은 개인을 구성하는 여러 정체성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치 이것이 "가장 중요한"특징인 것처럼 여기게 하고, 주변사람에게 고해성사를 하듯이 이를 밝혀야할 것 같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속이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은하의 경우는 대학에 들어가서 남자친구에게 이를 털어놓았고 의외로 자연스럽게 받아주어서 기뻤다고 하였다. 이는 이들이 자신의 배경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이미 한국사회에서 생활한 시간이 오래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대학생 친구들이 초·중·고등학생에 비해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었을수도 있다.

은하의 지적처럼, 우리사회가 이들을 부르는 별도의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것인가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용어가 일상용어가 되어 "탈북자","다문화"를 부르면서 이들은 개인의 다

른 특징들도 존중받는 전인적인 존재로서보다는 출신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 구별과 분류의 언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은하 어머니는 자신과 남편이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결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산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주민들이 참고할 만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지위와 위신이 놓았던 경우, 한국사회에서 그에 걸 맞는 삶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를 사는” 태도를 갖는 것은 이들의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다.

나. 채연화 (여/ 대1/ 북한출생/ 1995년생/ 2008년 입국)

1)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연화의 가족은 2008년 2월에 한국 입국하여 올해 만 7년의 시간이 지났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연화, 남동생까지 다섯 식구이며, 서울에 이모가 혼자 살고 있었다. 현재 서울에는 아버지, 어머니, 연화, 남동생이 살고 있었고, 언니는 캐나다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2012년 암 수술 이후 몇 년째 집에 계셨고, 어머니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2011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봉제 공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해오다가 작년 공장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현재는 의류관련 일을 하는데 생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최근에 문경세계군인선수권 대회에 의류 납품권을 따서 의류 생산 주문과 제품생산, 제시간에 물량을 납품하는 일까지 전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었다. 일이 무척 바빠 보였지만, “많이 배우면서” 바쁜 생활을 즐기고 성취감도 느끼고 있었다.

연화의 어머니는 최근 생산관리 일을 하고 의류비즈니스에 눈을 뜨면서 매우 실용적으로 변화하였다. 예전에는 높은 사람하면 공무원 같은 사무직만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기술을 익히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머니: 자꾸만 돌아 다녀보니까 많은 걸 알지. 북한 사람들은 자기 위쪽에서의 모델(목표)이 뭐인가 하면은, 우리 북한 사람들 항상 그럴 거예요. 직업이 딱 공무원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일을 하고, 네모난 가방을 매고 깔끔하게 유니폼이나 입고 그런 걸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 시대에 딱 들어와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지난 세월에 보면 나도 북한이탈상담사를 좀 도전해보자고 계속 시험도 계속 치고 이랬는데(중략), 우리가 모든 걸 봤을 때는 일단 이 나라는 기술이야. 그죠? 아무리 3D 업종까지 간다 해도 기술만 있으면, 아 먹고 살아야겠다 생각이 또 있고.

어머니: 30대 초반 아이들이 봉제를 밟는 아이들이 있어. 애들이 이제는 금방 한 달에 300, 400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열백을 못할 바에는 기술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연화 가족은 서로의 일상에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다. 연화의 대학 진학 등 큰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는 결정적으로 관여하기도 하였지만, 평소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각자 해나가는 편이었다. 거기다가 어머니가 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연화 역시 대학 생활로 바빠지면서 학생과 어머니는 각자의 생활에 대해 서로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 그렇지만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연화는 스스로 잘한다'고 하며 믿고 맡기도 있었고, 학생 역시 '언제든 도움이 필요했을 때 말을 하면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움을 주겠다. 충고도 해주겠다'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캐나다로 간 언니는 차츰 부모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가는 중이었다.

2)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연화는 올해 서울의 00대학교 경영정보학부에 입학하여 한 학기 대학생활을 경험하였다. 전반적으로 대학생·대학생활에 대해 다소 실망한 듯하였다. '그래도 나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맞는 건지' 생각이 들 만큼 동기들은 다들 아직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했고 대학이라는 곳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곳도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연화 역시 그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무난하게 대학생활을 보낸 듯이 보였다. 연애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다고 하였다.

2014년에 기술했듯이 학생의 학과 선택에는 부모님의 강압적인 결정이 있었다. 당시 학생은 간호학과 지망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결정으로 경영학과에 지원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학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 추후에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우려스럽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현재 간호학과에 대한 미련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직 학부제이기 때문에 전공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학과에 대한 판단은 조금 유보한 상태이지만, 간호학도 경쟁이 심하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을 접었다. 오히려 간호학을 희망하기 전에 기자를 꿈꿨던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다른 학과 수업도 들으면 기자에 대한 꿈을 다시금 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대학 진학 이후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은 사람에 대한 구분이 명확했고, 필요 이상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가까운 친구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선에서 어긋나게 될 때에는 단호하게 관

계를 끊어버리기도 하는 성향이 있었다. 하지만 대학 진학 이후에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인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알아두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 솔직하고 꾸밈이 없어서 가식을 부리지 못하며 무뚝뚝한 성향도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대인관계에서 수월하고 편한 쪽이 이전에는 좁고 단순한 관계였다면 이제는 두루 사람을 사귀고 가식적인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때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사회관계에서의 요령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연화는 북한 출신 학생임을 친구들에게 거의 알리지 않았다. 굳이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연화는 겉으로 봤을 때 탈북학생임이 드러나지 않았다. 때문에 자신이 탈북학생임을 굳이 드러내거나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출신을 밝히지 않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숨기고 있다는 꺼림칙한 생각도 든다고 하였다. 그래서 최근 친한 친구들과 부산여행을 다녀오면서 그 친구들에게 밝혔다고 하였다. 친구들은 “아, 정말? 몰랐어.”라며 별로 신기하지도 이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때에도 친구들의 반응은 비슷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도 아직 남자친구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가 분위기를 칙칙하게 잡으면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말해 놓고 내가 위축되지 않을 만큼 좀 더 자신이 커진 다음에 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연화는 최근 고등학교 1학년 탈북학생의 멘토가 되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인데 연화가 멘티도 되고 멘토도 되는 것이었다. 연화는 멘토로서 그리고 탈북학생의 선배로서 멘티의 학교생활과 적응, 학업 등의 경험을 나누어주고 있으며, 스스로도 ‘멘토를 하려면 나를 가꿔야겠다. 나를 단련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도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3) 가치관 및 정체성, 목표

연화는 현재 먼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였다. 스스로 자존감이 높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눈에 띄는 특징이나 단점이 드러나지 않는 밝고 쾌활하며 평범한 대학교 1학년 여대생의 모습이었다. 단지 북한출신이라는 사실은 평생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어쩌면 2세에게 까지 영향이 갈지도 모르는 큰 배경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한국사회에 적응한 것 같은가에 대한 질문에 연화는 이제 부모님의 농담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였다. 이제 적응을 묻는 질문이 낯설 만큼 한국에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채연화: 저희는 못 알아듣는 농담을 엄마 아빠는 하세요. 그러니까 농담을 할 때, 농담을 단순히 말로 하는 농담이 있고, 역사적 사건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농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농담이 있는데, 엄마 아빠 둘이 얘기 할 때 뭐라 하거든요. (중략) 그런 거 보면서 '아, 엄마 아빠는 그래도 우리보다 많은 시간을 살았었으니까 그때 그게 몸에 뱄으니까 쉽게 버릴 수가 없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채연화: 완전히 이젠 적응이란 단어조차 쓸 수 없을 정도의 정말 한국 사람이 됐다 이런 정도.

멘티를 포함해서 후배들에게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조언을 해달라는 말에 연화는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첫째, 말투를 고치고 외형도 한국아이들 비슷하게 해서 외형부터 튀지 않고 "최대한 걔네들처럼 비슷"해질 것. 둘째, "여우짓"을 배울 것. 감정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적당히 돌려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는 아부라고 생각하는 데, 어른들은 싹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야 아르바이트를 하던, 다른 것을 하던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적응 요령은 연화가 중학교 때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7년 동안 몸으로 부딪치면서 체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채연화: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말투를 고쳐야 되기는 해요. 이게 외형상으로부터 일단 바뀌고 나야 어쨌든. 왜냐면 애들은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튀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한국 애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들 무리에서 벗어난 애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어쨌든 말투 같은 거 많이 고치려고 하고, 최대한 걔네랑 같이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외모 면이든지 공부 면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일단은 그게 기본이니까 기본은 맞춰가야

면접원: 그게 너가 했던 방식이기도 하잖아. 그렇지?

채연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할 거는 여우 짓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어렸을 때까지는 중학교 때까지는 이거를 못 느꼈어요. 그냥 내가 내 길로 내 방식대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뭐라 해야 되지? 그 여시 짓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본능인 거. 얘들은 잘해요 그거를. 뭔지 알죠?

면접원: 좀 설명해 줘봐.

채연화: 저희는 모든 게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싫으면 싫어하는 기색 딱 드러나는데, 얘네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를 앞에선 절대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제가 대학 와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대학에 와서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니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될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함으로써 제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 같아요.

면접원: 그걸 길러야 될 거 같아?

채연화: 기른다고 해서 길러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를 많이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많이 접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바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알바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라 이거에요. 할 수 있는 알바가 몇 개 없긴 한데, 그래도 눈칫밥도 좀 먹어 보고 해야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화네 가족은 한국생활에 만족하였다. 연화의 어머니는 한국에 온 선택에 매우 만족하였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한국행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첫째는 한국에 오면서 연화 아버지가 간암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둘째는 한국에서 자본주의를 일찍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시간이 통일 후 북한에 가서 크게 쓸모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라고 하였다.

연화는 이제 성인으로서의 자신을 가꾸어가는 중이었다. 대학생이 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인간관계의 방식이 자신과 맞지 않아도 익혀가려는 생각도 하며, 한 탈북학생 후배의 멘토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도 깨달아가고 있었다.

4) 특성

연화가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적응 전략은 흥미로웠다. 그것은 일단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투와 외모를 바꾸라는 것,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의 욕구에 맞추어 반응하라는 것,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든 무엇이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연습해볼 기회를 만들어보라는 것이었다. “눈칫밥”을 먹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화의 지난 5년간 면담기록을 보면 이러한 과정을 실제로 거쳐서 한국사회에 적응해 나갔던 것 같았다.

남북한 문화차이라는 것은 언어나 풍습같이 쉽게 알 수 있는 영역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람들 간의 거리라든지, 거절하는 방식, 옷 입거나 걷는 모습처럼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느끼거나 익숙해져야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눈치”라고 하는 것은 분석적 언어로 설명되지 않은 문화간 감수성을 표현할 때 적절한 말이다. 눈치를 배우기 위해서 삶의 세계를 접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보라는 것은 적절한 조언이다. 탈북청소년들의 적응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경우에 학력부진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주목했는데, 문화간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화어머니의 경우, 실제로 의류비즈니스의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국사회를 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사무직이 아닌 생산직, 기술직에서 전망을 발견하였다. 연화어머니의 경우, 그리고 다른 대학생 두 명의 어머니는 모두 인터뷰 내내 자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였다. 은하어머니는 보험설계사로서, 연화어머니는 의류비즈니스 생산관리 일을 하면서, 그리고 다음 사례로 제시되는 철우의 어머니는 결혼중개업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일 중심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고, 자기 삶의 활력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었다. 이는 자녀가 이미 대학생이 된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수월한 일이기도 할 것이다. 어린 자녀를 둔 다른 사례의 경우에는 양육의 어려움으로 어머니의 독립적인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강철우 (남/ 대1/ 북한출생/ 1994년생/ 2010년 입국)

1)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작년(2014)에 철우에게는 새아버지가 생겼다. 작년 10월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어머니와 둘이 살던 가족이 세 명이 되었다. 아버지는 남한사람으로, 40대 초반의 나이에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학생의 말에 따르면 성실하고 자상하며 개방적이고 가족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이었다. 작년 결혼 전까지 학생이 '삼촌'이라고 부르던 어머니의 남자친구였는데, 작년 10월에 가까운 가족, 친지를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다. 철우 어머니는 남편의 장점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을 지키려는 태도를 꼽았다. 그리고 철우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는 것도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는 철우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우선, 경제적으로 어머니 혼자 경제활동을 하던 때에 비해 넉넉해졌다. 아버지는 철우에게 좋은 아빠이다. 철우는 어머니가 연애를 할 때부터, 이분을 '삼촌'이라고 부를 때부터 이분이'어머니에게 좋은 남편일 것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아빠가 될 것인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삼촌이라고 부를 때부터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철우의 진학이나 생활적인 면에서 상담이나 충고를 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철우에게 점차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 어른'이 되었고, 마침내 '아빠'가 되었다. 철우는 친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나쁜 아빠'는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철우는 아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을 어린 시절 폭력적이었던 아빠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다. 그런 기억과 '아빠의 부재'라는 불완전한 가족형태가 어머니와 자신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불만도 가지고 있었다. 학생이 꿈꾸는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는 '좋은 아빠'가 필요했는데, 이제 그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새아버지는 철우에게 훌륭한 조언자이기도 하였다. 아버지에게는 주로 진로, 대인관계, 사회관계, 생활적인 측면에서 조언이나 충고를 듣는다고 하였다. 학생이 먼저 아버지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였다. 때론 친구처럼 가끔 술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인 아빠라는 점이 한국사회에 대한 조언에 신뢰를 준다고 하였다.

강철우: 잘해주시고 그래도 좀 개방적인 성격이시고 저한테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래도 롤모델이 되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지난해 12월부터 결혼중계업체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탈북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을 도와주는 업체인데, 이전에는 가끔 프리랜서로 일을 해오다가 이제 정식 직원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였고, 주말에도 자주 미팅 주선을 하면서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일에 대한 만족감이나 열의는 이제까지 해왔던 일에 비해서 높아 보였다. 이전에 식당 일도 하고 어머니와 라이브 카페를 차려서 장사도 해봤지만, 만족감도 떨어지고 자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편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결혼중개업을 하면서 북한여성들을 많이 만났고, 북한사람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시선도 관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탈북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허황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이렇게 되는데 보통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였다. 과거는 잊고 현실에 맞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어머니: 허황된 욕심.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하나원을 거치고, 또 북한에서 탈북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한국에 가면 여기서 내가 못 가졌던 걸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허황된 생각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하나원 나가자마자 자기 차도 어떤 것을 사고. 그러니까 차를 갖고 싶은 욕망이 많거든요. 북한에서 그런 걸 못 가졌으니까. 차도 레벨 높은 거 갖고 싶고 옷도 백화점 거 입고 싶고 가전제품 비싼 거 하이마트 제품 갖다 사놓고 싶고 이런 허황된 욕심이 있어요. 솔직히.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야 눈높이가 낮아져요. 옛날에 뭐 잘 살던 여자들은 북한에서 과거에 또 잘 살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때를 잊지 못하고 자꾸 그때를 대비하면서 '옛날에 나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 모양' 이런 식으로 사는 여자들도 있어요. 나는 그래요 그냥 '과거는 다 잊어라. 현실에 맞춰서 현실대로만 살아라 라고요.

2)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철우는 올해 부산에 있는 00대학 자동차학과에 입학하였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전과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즉, 대학이라는 사회진출의 전 단계에 무사히 진입하였다는 점, 가족과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학업 및 대학생활 전반에서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철우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철우의 학교 및 학과 선택은 자신과 부모님의 의견을 조율하여 원만하게 결정되었다. 철우가 자동차학과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줄곧 관심을 가졌던 사진과 관련된 학과에 진학하고자 했다면 부모님과의 마찰이 컸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권했던 일반 4년제 대학으로 진학했다면 그 역시 학생 스스로 만족하는 대학 진학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술전문대학인 00대학은 어머니가 추천해준 학교였고, 자동차학과는 학생이 원하는 학과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00대학 자동차학과라는 결정은 부모님과 학생 모두가 합의를 이룬 선택이었다. 대학 졸업 후 사회진출까지 염두에 둔 결정이었고, 부모님의 지지도 얻고 있었다. 학생은 이제 대학 2년의 시기를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생각으로 보내고 있었다.

부산에 있는 대학은 성적과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은 성적상 가기가 어려웠고 다른 소도시는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 가기가 꺼려졌다고 하였다.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가끔은 외박도 하고 저녁에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자 친구를 사귀고 있었고, 여자 친구에게는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처음부터 이야기해서 진실하게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는데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좋았다고 하였다.

강철우: 사귀기 시작해서부터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속이는 거 없이 그냥 얘기해서 진실 되게 만났던 것 같아요.
면접원: 이 친구 반응은 어때?
강철우: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상관없다는 식으로

학업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때와 확연히 다른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자동차를 배운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래서 즐겁고 적극적이었다. 수업 시간에도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에서는 교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이론 수업은 녹음하여 기숙사에서 복습도 한다고 하였다. 혼자 실습실에서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해보면서 잘 안 될 때에는 스트레스 받고 잘 되면 희열을 느낀다고 하였다.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도전한다고 할 만큼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학과 교수의 소개로 전라도 영암에 있는 F1 자동차경기장의 스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자동차는 본인의 적성에 맞으며 아마 자동차가 아니었으면 대학에 안 갔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졸업 전에 산업기사2급 자격증을 따는 것이 목표였다. 졸업 후에는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였다.

교우관계·사회관계는 철우가 약간 어려움을 느껴왔던 부분이었다.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고 쉽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철우는 심하지는 않지만 대인기피증 같은 것이 과거에 있었고, 그것이 현재는 많이 좋아졌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였다.

3) 가치관 및 정체성, 목표

철우는 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가족에 대한 애정이 컸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바람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었고, 앞으로 자신이 꾸려갈 새로운 가정에 대한 미래도 상상해본다고 하였다. 가정적인 자신과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자녀가 있는 행복한 가족이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하였다.

철우는 작년까지 '대학에 올라가면 탈북주민임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올해 대학생이 되어 오리엔테이션(OT) 때 자기소개 하면서 그 사실을 밝혔다. 다른 학생들의 "그냥 우와~ 하고 그게 끝"이었다. 말을 할까 말까 고민도 했지만 밝히고 나니 후련하고 마음도 좀 편안해졌다고 하였다. 밝히게 된 것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답답한 면도 있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그 사실을 들킬까봐 걱정도 했기 때문이었다. 철우는 중고등학교 때 그 사실을 밝혔으면 훨씬 시끄럽고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이라며, 그때에는 밝히지 않는 것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사회·한국문화 '적응'에 있어서는 아직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생활에 몇 퍼센트나 적응한 것 같은 가에 대한 질문에 철우는 10퍼센트 정도 적응을 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적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애매함이 남아있었다. '백퍼센트 한국인'에 대한 애매함도 있었다. 국적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북한 출신이라는 특수한 배경의 차이가 삶의 순간순간 떠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계속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적응' 그리고 '한국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애매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철우는 지난 5년간의 종단연구 질적 면담에 대한 평가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자신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성찰할 기회가 되었다고 여기고 있었다.

> 면접원: (조사참여) 참여하길 잘 한 것 같나요?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
> 강철우: 하다 보니까 좀 '아, 괜찮다. 이런 것도' 하는 생각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시간을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철우도 대학생이 된 지금 시점에서 탈북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철우는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동아리 활동 등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관심을 넓혀간 것이 현재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강철우: 공부만 하고 있었다면 또 계속 또 대인관계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를 안하지만, 대외활동 함으로 인해서 대인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걸 잘해서 나가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4) 특성

철우는 천천히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전망이 있는 일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 인터넷 사진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모터쇼에 출사를 나가 사진을 찍곤 했었다. 당시에는 사진이 좋아해서 출사를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사진전공을 반대했고, 철우는 자동차 전공으로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 활동을 해 본 것이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고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공부만 하지 말고 대외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철우가 종단연구 참여에 대해 언급한 바는 흥미로웠다. 1년에 한번씩, 선생님(면접원)이 와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물었던 시간이 본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하였다. 특히 면접원 교체 없이 5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본 종단연구의 설계가 이를 가능하게 한 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2015년 면접에 참여한 대학생 세 사람에게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먼저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였다. 역할모델이 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고 열심히 사는 부모로부터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었다. 대학생이 되면서 그동안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그것을 후배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조언은 구체적인 적응전략이기도 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학생이 된 후에 자신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점을 밝혔고 모두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경험을 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출신배경과 관련된 심리적인 짐을 덜어내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가정 이외에 자신의 일의 영역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독립적인 성인으로 그 부모와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았다.

4 소결

이 연구에서는 탈북학생에 대한 심층면접을 학생과 어머니,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생활 가운데 가정내 어머니와의 관계와 담임교사가 보는 학교생활이 큰 비중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탈북학생을 둘러 싼 다양한 주변인물을 면접하거나 학생에 대한 참여관찰을 하였다면 학생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전체 모습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사례들은 그동안 탈북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해서 논의되었던 많은 이슈들을 압축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본 소결에서는 전체 사례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된 내용을 중심으로 탈북학생의 적응·성장 과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통합·적응 과정 개념에 대한 재인식 필요

1주기 총 5차에 걸쳐 실시한 심층면담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탈북청소년들이 남한 사회 생활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회, 학교, 일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반 남한학생과 유사한 모습을 띄는 방식으로 적응 과정을 거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성, 즉 기초학력의 부진, 일반적이지 않는 가정환경에서 경험하는 불안정, 가정의 교육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일반 남한학생과는 다른 양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학교급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학교 학업에서는 부진이 만회되지 않아 계속 어려움을 겪지만 학업 이외의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가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남한 사회 적응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감으로써 점차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며 적응하고 있었다. 학업,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갈등이 극대화 되는 시기도 있지만 시간이 지속되면서 점차 자신만의 방식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가운데 안정을 찾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탈북학생의 남한사회 적응, 적응 과정은 이들이 학업, 관계 등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보인다거나, 이들이 남한의 일반학생과 비슷한 말, 행동, 사고를 보이거나 하는 등의 외형적인 요인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아닌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가운데 남한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일상에서 작은 성취와 안정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탈북학생의 적응, 적응 과정 개념은 남한사회, 학교가 요구하는 가치, 지식, 태도의 습득을 넘어 탈북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인식과 태도, 능력을 습득해 가는 장기적인 관점의 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학교적응 : 학업을 넘어서 다양한 차원의 적응 모색

학업과 관련, 질적연구 대상자 대부분이 학업성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성적은 학생들마다 다른데 최하위권인 경우도 있지만 중하위권인 경우가 많고, 몇몇 예외적인 경우는 상위권인 학생들도 있다. 학생들의 성적부진에 대해 교사들은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는 이들의 기초부진을 보충해줄 만한 별다를 방안이 없었다. 학원수강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사의 조언도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교 내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탈북학생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남한학생들 가운데 기초학력미달로 최저점의 성취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학업과 관련하여 더 주목하여야 할 점은, 이들의 낮은 성적이 학교생활 만족이나 교우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성적은 낮아도 친구가 있는 경우 학교생활은 즐겁고 한국사회 적응에 문제가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사회 적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보다는 또래관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부를 잘하고 친구도 많으면 가장 좋지만, 공부를 못하더라도 친구가 있으면 자기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업 뿐 아니라 관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신감을 얻고 학교,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을 최우선적 목표로 하기 보다는 “관계”형성을 가장 중요한 지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학업의 경우, 최저수준의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까지는 기초를 배울 수 있도록 학교 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탈북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에서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기초학습부진학생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탈북학생의 경우, 자신의 힘으로 친구를 사귀고 또래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단짝친구”를 맺어주거나 또래멘토링 제도 등을 활용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서 가정이 자녀를 전인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 가정에 대한 지원: 부모교육 지원

심층면담 결과를 종합한 결과, 중고등학생의 경우, 어머니와의 소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교육에서 어떤 측면을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의 질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중학생 7명 가운데 현미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학교성적이 좋지 못하였다. 특히 혁범이나 혁이, 현이, 영철이의 경우는 학업성취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하였다. 그

러나 이 아이들의 경우 학업은 부진하나 또래관계, 생활의 성실함은 문제가 없었다. 이때 어머니가 학생이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해지면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어머니와 자녀의 삶이 모두 만족스럽지만, 어머니가 자녀의 생활에서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지 않고 낮은 학업성취나 그 외에 불만스러운 면에 초점을 맞추면 갈등이 고조되거나 자녀와의 소통이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탈북학생 교육지원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연구를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번 종단연구를 통해서 그 부모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었다. 탈북학생 가정이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원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과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사회에 이주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가 한국교육의 시스템이나 교과목, 성적, 학교생활 과 관련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학부모이자 부모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이해와 가치를 습득하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지자로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탈북학생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탈북가정에서 나타나는 부모 자녀의 갈등은 자녀를 '학생'이 아닌, 전인적인 존재로 보는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남한사회에서 정착에 대한 걱정이 많은 어머니는 자녀의 진로를 자신이 정하고, 그에 부응하는 학업에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때 어머니가 자신의 정한 진로를 수정하고, 자녀와 함께 진로를 재모색하면 관계가 개선되고 소통이 재개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정한 성취 기준을 고집할 경우 자녀는 점점 무력해 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어머니가 자기 삶에 과도하게 적극적이고 삶의 의욕이 넘칠수록 자녀가 무력해지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사회에서 학부모이자 부모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이해와 가치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위한 부모의 역할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지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를 통해 발견된, 어머니 스스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현실적으로 바뀌면서 자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해하며 자기 진로를 모색할 힘을 얻는 다는 것을 고려하여 '부모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 진로탐색 : 학과 공부를 넘어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학생들이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때 다양한 체험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동호회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활동일 수도 있었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대인관계에 필요한 "눈치"가 생길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10대에 한국사회에 와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생이 된 이들의 조언은 청소년기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정보가 되었다.

이미 탈북학생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는 단회적인 경우가 많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양하게 사회적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체험 기회는 탈북청소년에게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반 한국청소년 모두에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주민은 새로운 사회구성원이므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결핍되어 있는 부분은 그 사회가 근본적으로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교 밖 사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탈북청소년 뿐만 아니라 진로를 모색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삶의 경험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 일반적인 한국청소년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면접대상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모를 뿐 아니라 고등학교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입학을 위해서는 성적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학생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기본적인 정보를 모를 때 이들은 학교 선생님과 상의하기 보다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KEDI

PART V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 과정의 특성

1. 남한 입국 전 상황
2. 남한 입국 후 적응 환경: 사회, 학교, 가정
3. 영역별 적응 과정 특성
4. 종합

V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 과정의 특성

2000년대부터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00년대 초반의 경우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201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들이 순차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현재 정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의 50.5% 가량을 중국출생 탈북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북학생의 적응 과정 특성을 북한출생 및 중국출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적응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주기 조사 연구를 통해 파악한 북한출생 및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남한 입국 전 상황

가. 거주 환경

입국전 환경에서 북한출생 학생과 중국출생 학생은 다소 상이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출생의 경우 생활을 위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출생 학생 가운데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중국 경유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생활하면서 신분 노출로 인한 북송의 위험 때문에 은신해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출생 학생의 경우에도 생활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 신분노출에 따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1〉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남한 입국 전 거주 환경의 특성

	주요 특성	비고(북한·중국 출생 차이)
북한출생	- 열악하고 불안전한 환경 거주 - 생활 기반 여건 부실 - 중국 장기 경유자의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은신) - 불안정한 거처 문제로 인한 어려움(강제 북송의 위험)	- 북한출생은 열악한 환경 거주, 중국 경유자는 신분상 불안정 - 중국출생은 중국국적이 없는 경우 불안정(발각 두려움)
중국출생	- 환경이 열악한 농촌 거주의 경우가 많음 - 거주 지역이 점차 확대 경향 - 중국국적이 없는 경우, 신분상 불안정(은신, 발각의 두려움)	

나. 가정 상황

남한 입국 전의 가정 상황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중국출생 탈북학생은 대체로 유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출생 학생의 경우, 2010년대 초반까지는 가정 생계 문제로 남한에 입국하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가족 부양을 위해 부모가 중국으로 떠나면서 이산상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였다.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62%가 평균 3년 이상 부모와 헤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출생으로 중국 경유자의 경우에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가족이 이산해 있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부모의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경제적 빈곤과 어머니가 먼저 한국에 입국한 후 나중에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이산하여 있으면서 어머니의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동일한 가정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대체로 제3국 출신 아버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가정환경면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2〉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남한 입국 전 가정 상황의 특성

	주요 특성	비고(북한·중국 출생 차이)
북한출생	- 가정의 경제적 상황 열악(2010년 초반 까지 대다수 차지) - 부모와의 이산 상태(62% 평균 3년) - 중국 경유자의 경우에도 부모와 이산 경우가 많음 - 부모로부터 충분한 양육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생계 목적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남한입국 사례 발생	- 경제적 빈곤, 어머니와의 이산으로 인해 부모의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양측이 유사 - 중국출생은 제3국 출생 아버지가 있다는 가정적 차이 있음
중국출생	- 경제적 빈곤, 어머니 부재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제3국 출신 아버지 있음	

다. 교육경험

교육 경험 측면에서, 북한출생 학생의 경우 가정환경의 열악 등으로 인해 북한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중국을 경유한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경우 많아 2014년 조사 결과, 중국경유 북한출생 학생의 63%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에서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남한에 입국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지만 대체로 학교교육 경험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업 부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온 경우가 과반 이상(77.5%, 2014)을 차지하였으나 일부의 경우만 충분한 교육을 받고 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다.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한국과는 다른 언어적, 문화적 상황에서 성장하다가 남한에 들어오는 사례에 해당하였다.

〈표 Ⅴ-3〉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남한 입국 전 교육 경험의 특성

	주요 특성	비고(북한·중국 출생 차이)
북한출생	–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중국 경유자 또한 중국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경우가 과반 이상(63%, 2014) – 학업부진 잠재 – 최근 들어 정상적 학업 이수 후 입국 사례 생김	– 북한출생 학생의 경우, 학업경험 부족으로 교육공백 – 중국출생 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공백은 적으나 언어적 문화적 차이 경험
중국출생	– 중국학교 재학 경험자 다수(77%) – 충분한 교육을 받고 오는 경우는 일부에 해당 – 언어적, 문화적 차이	

라. 남한 입국 과정

남한 입국 과정의 특성 면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은 극히 일부의 경우 북한에서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중국 등의 제3국을 경유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입국 과정에서 중국, 북한 공안 등에 발각될 경우 강제 북송되는 극도의 위험을 동반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인근 국가로 이동하여 난민신청을 하여 남한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남한 입국시 하나원 교육을 수료한다.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중국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국가로 이동하여 난민신청을 통해 남한으로 입국한다. 중국국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입국한

어머니의 초청을 통해 중도입국 자녀 형식으로 입국한다. 부모와 동반입국한 경우에는 하나원 교육을 이수하지만 동반입국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원을 거치지 않게 되고 학교에서 이뤄지는 통계조사에서 출신배경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4〉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남한 입국 과정의 특성

	주요 특성	비고(북한·중국 출생 차이)
북한출생	- 일반적으로 제3국 경유 입국 - 입국 과정에서 신분노출, 가족 이별, 생명의 위험 등의 심리적 위험 상황 직면 - 남한입국 후 하나원 교육 수료	- 남한입국 과정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 - 중국출생 탈북학생은 입국 후 교육지원 사각지대 노출 위험
중국출생	- 중국국적 있는 경우 중도입국 자녀 형식 입국 - 중국국적 없는 경우, 인근 국가로 이동 후 난민신청 - 부모동반 아닌 경우 하나원 교육 미이수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 노출	

2 남한 입국 후 적응 환경: 사회, 학교, 가정

가. 사회 환경

남한 입국 후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이 접하는 사회환경의 특성은 대체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탈북학생들은 대체로 70% 가량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교육부, 2015), 조사 대상 탈북학생 가운데 북한출생 탈북학생들은 한국에 입국한지 5년 이내인 경우가 59.1%(강구섭, 2014)를 차지하였다. 중국출생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회적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재학학교에서 매년 시행하는 탈북학생 통계조사를 통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시 교육지원에서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출생, 중국출생 공히 북한이탈주민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제한된 사회관계망 속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Ⅴ-5〉 남한 입국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이 경험하는 사회환경의 특성

	주요 특성	비고(북한·중국 출생 차이)
북한출생	– 하나센터 등 지역의 관련 기관에서 적응 지원 – 한국 입국 5년 이내인 경우가 다수	– 양측이 유사한 상황 – 교육지원은 동일, 적응지원은 차이 – 하나원 비경유 중국출생 학생의 경우 정착지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을 시 교육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중국출생	– 다수가 수도권 임대아파트 단지 거주 – 교육지원은 동일하지만 정착지원에서는 차이 있음 – 부모동반 입국 아닐 시 교육지원 누락 경우 발생	

나. 학교 환경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중국출생 탈북학생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환경의 학교에 편입학하여 생활하면서 학업부진 및 학교급 상승에 따른 학업부진의 누적, 문화적 차이 등의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경험하는 특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자신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상급학년에 올라가서도 계속 나타난다. 반면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자신을 북한이 아닌 중국출신으로 차별화하면서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비교할 때 출신배경에 따른 어려움을 다소 적게 경험한다. 그렇지만 탈북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신분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입국 초기에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여 언어의 차이로 인해 학업을 따라 가거나 생활을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언어 차이에 따른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아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다른 일반 학생이 하지 못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어 구사능력이 강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다르게 대학 진학시 특례입학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방식의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북한출생, 중국출생 탈북학생 공히 남한학교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입학 초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적응과정에서 학교 멘토교사, 친구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Ⅴ-6〉 남한 입국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이 경험하는 학교환경의 특성

	주요 특성	비고(북한·중국 출생 차이)
북한출생	- 학교교육과정, 용어, 내용의 차이 - 남한학교에 대한 경험 부재 - 교육경험 부재로 인한 어려움 - 출신배경 공개에 대한 두려움	- 환경적으로 양측이 유사 - 북한출생은 출신배경 비공개로 인한 어려움 - 중국출생은 자신을 중국인으로 인식, 대학 특례 입학 불가능
중국출생	- 문화적 차이 - 자신을 북한이 아닌 중국출신으로 인식 - 입국 초기 언어에 따른 어려움 - 중국어 구사의 강점 - 대학 특례입학 불가능	

다. 가정 환경

가정환경 특성 면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중국출생 탈북학생은 가정의 해체, 재구성 등으로 인한 가정환경의 불안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양측 공히 가정으로부터 학교 및 남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63.6%, 2014)이 중국출생 탈북학생 가정(54.9%, 2014)의 경우보다 다소 높고 특히 부-부재, 모-동거 가정의 비율(43.3%, 2014)도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33.7%, 2014) 보다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중국인 아버지가 입국한 경우가 많아 부모 동거의 비율이 64.2%이고 모-동거, 부-부재의 비율도 33.3%(2014)로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비교할 때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비중이 북한출생 탈북학생 보다 높고 특히 아버지가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중국출생 탈북학생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7〉 남한 입국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이 경험하는 가정환경의 특성

	주요 특성	비고(북한·중국 출생 차이)
북한출생	- 가정의 해체, 재구성 사례 빈번 - 아버지 부재 상황 다수(43.3%, 2104) - 가정의 교육 지원 미비 -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63.6%	-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중국출생의 경우보다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음
중국출생	- 가정의 해체, 재구성 사례 빈번 - 아버지 부재 33.7%, 부모동거 64.2%(2014)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54.9% - 아버지(한족)가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 많음	

3 영역별 적응 과정 특성

가. 학습 영역

학습영역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중국출생 탈북학생은 동일하게 기초학력 부진, 편입학에 따른 남북한 내용의 차이, 용어의 차이 등에 따른 학업부진, 학교급 상승에 따른 학업부진의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계속된 학업부진으로 인해 수업이해정도, 내재적 학습동기 등이 감소하는 등 학업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학교급이 올라가도 계속 해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입국 초기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올라가도 학업부진이 계속 해소되지 않고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국 초기에는 남북한의 차이로 인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이외에 국어, 사회 등 여러 가지 교과의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에서 어려움 겪으며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남한의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수학, 영어 등의 교과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8〉 남한 입국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학습영역 적응과정의 특성

	주요 특성	비고(북한·중국 출생 차이)
북한출생	- 학업부진의 누적, 수업이해정도 감소 - 내재적 학습동기의 지속적 감소 - 도구적 학습동기의 지속적 증가 - 용어의 차이, 문화적 차이	- 양측 모두 학업부진 지속적 누진은 동일 - 중국출생은 중국어 능력 강점
중국출생	- 학업부진의 누적 경향 - 한국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 중국어 가능	

나. 심리 영역

심리영역 측면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중국출생 탈북학생 모두 탈북과정의 경험, 가정의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학생의 경우 전문적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트레스, 우울, 건강 등의 측면에서 북한출신 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 자기개념, 주관적 안녕감 등에서 중국출생 탈북학생이 다

소 긍정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경향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피차별 경험의 유무가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9〉 남한 입국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심리영역 적응과정의 특성

	주요 특성	비고(북한·중국 출생 차이)
북한출생	- 가정의 불안정으로 인한 어려움 - 일부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적 도움 필요 - 고등학생 단계의 공적자기개념, 주관적 안녕감이 중학생 단계 보다 낮음	- 양측이 유사한 특성을 보임 - 가정의 안정이 심리적 안정에 중요 - 피차별 경험 유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
중국출생	- 가정의 불안정으로 인한 어려움 - 일부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적 도움 필요 - 공적자기개념, 주관적 안녕감 북한출신보다 양호	

다. 관계 영역

관계영역의 측면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은 출신배경을 밝히지 않으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출신배경 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차츰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자신을 중국인으로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출신배경의 문제를 다루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의 배경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친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는 양측에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10〉 남한 입국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관계영역 적응과정의 특성

	주요 특성	비고(북한·중국 출생 차이)
북한출생	- 출신배경은 계속 비공개 경향(차별 우려) - 친구 수 점차 증가 - 교사와의 관계 개선	- 출신배경 공개 관련, 북한출생이 더 많은 어려움 겪음
중국출생	- 자신을 중국출신으로 차별화 - 어머니 배경 공개 우려 - 교사와의 관계 개선	

라. 사회 영역

사회영역 측면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중국출생 탈북학생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별경험의 유무에서 북한출생, 중국출생 탈북학생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체로 차별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차별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은 계속 내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별 경험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로 측면에서 북한출생탈북학생의 진로활동이 다소 활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중국출생의 경우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비교할 때 진로교육 활동이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11〉 남한 입국 북한 및 중국 출생 탈북학생의 사회영역 적응과정의 특성

	주요 특성	비고(북한·중국 출생 차이)
북한출생	- 차별 경험 비율 점차 감소, 차별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 내재 - 진로유형에서 대학진학 다수(대학특례입학제도 활용)	- 차별 경험 유무가 한국에 대한 인식, 준법정신에 영향을 미침
중국출생	- 대학 특례입학 불가능 - 진로교육 관련 참여수준, 북한출생보다 미비	

4 종합

1주기 조사 연구를 종합하면 북한출생(중국 경유자 포함) 탈북학생과 중국출생 탈북학생은 적응 과정 특성에서 대체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출생 탈북학생이 다소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탈북학생의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사한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중국출생 탈북학생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고유한 적응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상이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국 전 상황 측면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중국출생 탈북학생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부모와의 장기간 이산, 중국에서의 불안한 체류, 한국 입국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북한출생 탈북학생이 다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영역별 특성을 보면, 환경 측면에서 양측이 공통적으로 낙후된 상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출생 탈북학생들은 신분노출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가정상황 측면에서 양측 공

히 부모와의 이산 경험과 이로 인해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출생 탈북학생들의 경우가 부모와 이산의 상황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중국출생의 경우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이 한국에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경험의 측면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국출생의 경우에는 학교를 다닌 비율은 높지만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한 입국 과정에서 북한출생은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면서 신분 노출의 위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중국출생은 중국국적 유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남한에 입국하였다.

남한입국 후 적응 환경 측면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중국출생 탈북학생은 사회, 학교, 가정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지만 신분공개의 어려움, 가정환경 상황으로 인해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학교 환경에서 자신의 출신배경 공개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자신의 배경은 중국출신으로 차별화하였지만 부모의 배경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국출생 학생의 경우 입국 초기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측면에서 북한출생은 중국출생 탈북학생과 비교할 때 아버지 부재 상황이 더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북한출생 탈북학생 가정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응 영역 측면에서, 학습이나 사회 영역에서는 양측이 유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심리, 관계 영역 등에서는 심리적 어려움, 출신배경 공개의 부담 등으로 인해 북한출생 탈북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 영역의 경우 북한출생, 중국출생 학생이 공통적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부진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누적된 학습부진을 만회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 영역에서 북한출생, 중국출생 공히 일부 학생의 경우 전문가 및 기관을 통한 초기단계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북한출생 고등학생의 공적자기기념, 주관적 안녕감 등이 중국출생 고등학생 뿐 아니라 자신의 중학교 시절 때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영역 측면에서, 친구 수 증가, 교사 관계 개선 등의 측면에서 양측이 유사하지만 대체로 북한출신 탈북학생은 출신배경 공개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사회 영역 측면에서, 양측에서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고, 진로교육 관련 고등학교 단계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진로관련 활동이 미진하다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PART VI

결 론

1. 요약
2. 정책 제언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Ⅵ 결 론

1 요약

가. 연구 목적 및 내용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을 조사·분석하는 연구로서 첫째,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 과정의 심층 조사·분석, 둘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셋째, 탈북청소년의 적응 과정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하여 관련 연구의 활성화 기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에 실시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년 간 실시하는 연구의 5년차 조사이다. 2010년의 기초연구에서 연구 설계 및 조사지 개발을 실시하였고, 이후 매년 이뤄지는 반복 조사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탈북경험, 가정 및 학교 환경, 적응 양상 등 탈북학생의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나. 연구방법 및 패널 구성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사회 및 학교 적응 상황을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양적 및 질적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양적조사는 크게 횡단분석과 종단분석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횡단분석은 5차년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실시하였고, 종단분석은 1~5차의 전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응답자의 배경변인과 5차에 걸쳐 실시된 종단연구 조사 시기 간의 상호작용과 응답자 배경변인 및 종단연구 조사시기의 주효과 분석(two-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다변량 검정을 실시하였다.

1주기 마지막 조사인 2015년 질적 조사 및 분석은 지금까지 조사에 참여한 패널을 대상으로 5년간의 생활을 종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학생, 학부모, 교사 인터뷰 녹취록 등의 면담 자료를 숙독한 후, 학생과 가족의 삶의 궤적을 재구성하고 지난 5년 간 있었던 삶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다. 양적 조사 결과

5차년도 양적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횡단분석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학생에서 북한출생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중국출생 학생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둘째, 가족 현황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모-동거, 부-부재의 비율이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이산해 있던 기간도 평균 55개월(4.5년)으로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출생 탈북학생 가정보다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과 이해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국어과에 대한 이해도(대부분 이해하거나 거의 이해)는 60.52%로 높은 반면, 영어, 수학과의 경우에는 각각 25.97%, 24.67%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다수가 다른 반 교사, 외부 선생님 등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다양한 주체를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수 등의 다양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신의 출신배경을 밝힐 것인가에 대한 공개 현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피차별 경험의 비율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가져온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탈북학생이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교교육지원 측면에서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학교의 교육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국출생 학생의 학교지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5차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시한 종단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차수별로 탈북학생이 인식하는 '가족 유대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차 조사시기에서 상승되었다가 4,5차 조사시기에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국출생 학생의 경우 북한출생 학생보다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 영역의 교사의 심리적지지 변수에 대한 조사 차수와 배경 변인의 상호작용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5차 조사시기에 4차 조사시기보다 다소 상승하였으나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영역 변수 중에서 수업이해정도에서 북한출생 학생의 경우 3, 4차 조사에서 감소하다가 5차 조사에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출생 학생의 경우 2,3,4차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5차 조사에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배경변인과 탈북까지의 기간, 입국 이후의 기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은 1,2차 조사에서는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감소하였고, 입국이후의 기간의 경우에는 기간이 길수록 감소하였다. 3차 조사시기에서는 두 개 기간 모두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였다. 다섯째, 스

트레스 및 우울, 공적자기 개념, 주관적 안녕감 등에서 '탈북부터 입국까지의 기간'과는 지속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입국 이후 기간'과의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라. 질적 조사 결과

본 연구의 질적 연구를 통해 발견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주기 총 5차에 걸쳐 실시한 심층면담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 생활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회, 학교, 일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반 남한학생과 유사한 모습을 띄는 방식으로 적응 과정을 거치지만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성, 즉 기초학력의 부진, 가정환경에서 경험하는 불안정, 가정의 교육지원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일반 남한학생과는 다른 양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탈북학생의 남한사회 적응, 적응 과정은 이들이 학업, 관계 등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보인다거나, 남한의 일반학생과 비슷한 말, 행동, 사고를 보이는 등의 외형적인 요인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가운데 남한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작은 성취와 안정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학업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저학업 성취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이수하도록 하는 동시에 탈북학생의 낮은 학업성취 수준이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다는 것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의 안정을 위해 학업과 함께 "관계"형성을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탈북학생 가정이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에 이주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탈북학부모에게 그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한국교육의 시스템이나 교과목, 성적,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교육"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학부모이자 부모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이해와 가치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지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부모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면접대상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생각보다 정보가 부족하였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모를 뿐 아니라, 고등학교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입학을 위해서는 성적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학생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진학과 관련된 정보

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고 적절히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탈북청소년 적응 과정 특성 종합

탈북청소년의 적응 과정을 북한출생(중국 경유자 포함) 탈북학생과 중국출생 탈북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은 대체로 유사한 적응 과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출생 탈북학생이 다소 더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들의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탈북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중국출생 탈북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적응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상이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국 전 상황 측면에서, 양측 탈북학생은 대체로 유사한 환경 특성에 놓여 있는 가운데 북한출생 탈북학생이 다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 환경 측면에서 양측이 공통적으로 낙후된 상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출생 탈북학생들은 신분노출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가정상황 측면에서 부모와의 이산 경험과 이로 인해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이산 경험이 더 많았다.

남한입국 후 적응 환경 측면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중국출생 탈북학생은 사회, 학교, 가정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지만 신분공개의 어려움, 가정환경 상황으로 인해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학교 환경에서 자신의 출신배경 공개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자신의 배경을 중국출신으로 차별화하였지만 부모의 배경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출생 학생 가정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응 영역 측면에서, 학습이나 사회 영역에서는 양측이 유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심리, 관계 영역 등에서는 심리적 어려움, 출신배경 공개의 부담 등으로 인해 북한출생 탈북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 영역의 경우 북한출생, 중국출생 학생 공히 공통적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부진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누적된 학습부진을 만회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 영역에서 북한출생 고등학생의 공적자기기념, 주관적 안녕감 등이 중국출생 고등학생 뿐 아니라 자신의 중학교 시절 때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영역 측면에서, 친구 수 증가, 교사 관계 개선 등의 측면에서 양측이 유사하지만 대체로 북한출신 탈북학생은 출신배경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영역 측면에서, 양측에서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고, 진로교육 관련 고등학교 단계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진로관련 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 제언

1주기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의 사회, 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반 남한학생과 유사한 가치, 행동방식을 습득하는 방식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해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출신배경과 그에 따른 다양한 특성 등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조건의 영향으로 일반 남한학생의 경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출생 탈북학생과 중국출생 탈북학생은 적응 과정 상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동시에 일부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탈북학생의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 과정에 대한 지원은 이들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유사한 특성과 각기 고유한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탈북학생 학습 적응 지원 방안

■ 학습부진 완화를 위한 최저성취 수준 설정

탈북학생의 학습부진 완화를 통해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북한출생 및 중국출생 탈북학생이 공통적으로 기초학습 부진을 겪고 있고 이러한 양상은 시간이 경과하고 학교급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로설정을 권장하는 현 추세에서 학업성취가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업부진에 따른 의욕저하가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학업에서의 성취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업은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부진으로 인한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업부진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학습 부진의 문제는 상급학년 및 학교 진학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각 학년 및 학교급 별로 해당 수준에서 반드시 학습을 해야 하는 내용과 수준 범위를 선정한 후 해당 학년에서 이에 대한 완벽한 학습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기초학습

부진을 완화하는 동시에 상급학교에서의 원활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초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탈북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학급 운영, 특별 수업 방식 적용 등이 필요하다. 현재 탈북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일부 학교에서 탈북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는 특별학급, 특별수업 등의 사례는 이를 위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남한입국 초기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 신장을 위해 한국어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탈북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 기준 적용

일반적으로 탈북학생의 경우 학업성취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학업에서 성취를 보이더라도 하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강하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업성취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간과되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학생을 포함한 전체 집단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와 무관하게 탈북학생이 학업을 통해 거두는 지속적인 성취는 탈북학생이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학업 성취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탈북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고유한 기준으로 학생의 성취를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습동기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탈북학생의 학습동기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출생 학생의 경우, 수업이해정도, 내재적 학습동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것이 학습에 대한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부진한 학업성과(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탈북학생의 학습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도구적 학업 동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학습에서 지속적으로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하고 성취 결과가 탈북학생에게 가시적인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업성취를 위한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되 단기적으로 확인된 학업에서의 성취가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학업동기를 제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출생 학생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어 능력을 적극 활용하게 함으로써 전체 학업에 대한 자신감, 흥미를 가지게 하는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중국어 능력의 유지 및 향상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탈북학생 심리 적응 지원 방안

■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심리 적응 지원 강화

탈북학생 가운데 체계적인 심리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중국에서의 불안한 생활 경험 및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위기상황 경험의 후유증으로 남한 입국 초기, 심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북한출생 탈북학생, 중국출생 탈북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가정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탈북과정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극단적 경험으로 인해 남한 입국 이후의 안정적 상황에서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전체 탈북학생에 대한 전문적 검사를 통해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체 학생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고위험군 대상자를 비롯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기존의 학교관련 체제 내 심리상담 지원체계(Wee클래스, Wee센터 등)와 학교 밖의 심리지원 체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탈북학생의 경우 출신배경의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한 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학업 및 남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서적 안정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실시 필요

탈북학생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주기 종단연구 결과,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공적 자기개념이 중학교에서 보다 고등학교에서 낮게 나타나는 등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자신에 대한 개념이 다소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적 자기 개념과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 확신과 직결되어 타인과의 관계,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심리적 측면을 떠나 원활한 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공적 자기 개념,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적 안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활동 뿐 아니라 문화, 체육 활동을 비롯한 예체능 활동,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 및 소질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장·단기적 측면에서 자신의 내·외면적 발전과 성취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 사회 등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탈북학생 관계 적응 지원 방안

■ 관계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탈북학생의 학교 내 관계의 형성 및 긍정적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착지 학교 편입 초기에 있는 탈북학생의 경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인위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 보다는 평상시 이뤄지는 다양한 일상적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급에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도우미 친구를 한시적으로 선정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탈북학생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탈북학생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일반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서 느끼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탈북학생이 속해 있는 다양한 또래 집단이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학생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전체 또래를 대상으로 한 학습, 문화 활동 등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과업을 인지하고 그를 위해 개인에게 요구되는 활동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적응력 신장을 위한 지원 필요

탈북학생이 자신의 출신배경 공개 관련,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주기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탈북학생이 자신의 출신배경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개 시 겪게 될지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부담으로 여전히 출신 배경 공개에 대한 거부 정서가 적지 않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출생 학생의 경우 자신을 중국인으로 차별화하면서 북한출생 학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어머니)의 배경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탈북학생의 남한사회 생활 기간이 늘어나면서 언어 등 외형적인 측면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면서 출신 배경 또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탈북학생의 출신배경 공개는 자신의 상황을 있는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개 여부 자체를 탈북학생의 적응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자기수용태도와 자신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자

신의 출신배경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탈북학생 스스로 적합한 시점과 상황에서 자신의 출신 배경을 자연스럽게 공개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탈북학생 사회 적응 지원 방안

■ 피차별 인식 해소 및 안정적 생활을 위한 체계적 접근 필요

탈북학생이 학교 내에서 원만한 관계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여 피차별 의식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주기 조사 결과, 북한출생 및 중국출생 탈북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차별을 실제로 경험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관련 사례를 간접적으로 접하거나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탈북학생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담감을 완화하고 원만한 학급생활을 통해 안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급 급우, 일반 학생 등 다양한 대상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 학생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에서 편안하게 생활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반 학생과의 함께 생활하는 것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극복하고 학급 및 학교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진로진학 프로그램 실시

탈북학생의 진로설정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주기 연구 결과, 탈북학생의 경우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직업세계에 대한 경험 및 이해 부족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진로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진로진학과 관련된 활동이 북한출생 탈북학생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특례입학 기회의 부재 등 북한출생 탈북학생의 경우와 상이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진로진학과 관련된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학습이나 자료 접근 기회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탈북학생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학생의 경우 학교를 통해 제공받는 진로진학교육, 관련정보가 진로관련 활동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학교를 통한 다양한 진로진학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기존의 한국어 자료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한국어 외에 외국어(중국어)로 관련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자료를 탈북학생에게 직접 제

공하는 것 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직접 찾고 발굴하고 제작하게 함으로써 전체 과정을 통해 진로 관련 다양한 경험을 스스로 쌓을 수 있도록 체험형 진로직업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탈북학생 가정 지원 방안

■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 제공 필요

탈북학생 학부모가 가정에서 요구되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학생의 사회 및 학교 적응을 위해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 탈북학생 가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탈북학부모의 심리 정서적 불안정의 문제가 가정의 안정적 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탈북학부모가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의 상흔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경우,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기관의 연계를 통해 탈북학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탈북학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자녀의 학교 및 남한 생활에서 필요한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탈북학부모가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학부모의 경우, 남한생활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교육이나 학교에 대한 이해 미비로 인해 여전히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교육, 진로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이나 진로설정 등의 측면에서 탈북학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출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북한출생 자녀와는 다른 정착지원 정책이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를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학생 학부모의 경우 자신에 대한 표현, 의사소통 등에서 상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여 남한의 사회 분위기나 개인, 교

육과 관련된 인식과 가치, 자녀의 의사와 태도를 존중하는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이해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탈북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이해하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안팎에서 복지관, 각종 상담 기관 등 지역에 있는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며 탈북학생, 학부모 뿐 아니라 일반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사회적 체제 수립

■ 북한이탈주민, 탈북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탈북학생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탈북학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노력이 필요하다. 1주기 연구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탈북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이슈가 빈번히 발생하는 남한사회에서 탈북청소년은 북한, 북한주민과 동일시되어 크고 작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이들의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영역에서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제로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의 일반 주민, 학생의 입장에서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을 실제로 접하거나 경험할 기회가 제한되어, 이것이 탈북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이 고착, 강화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남한의 일반인 및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간에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들의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이 남한의 일반 학생, 주민과의 일상에서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인식을 습득하고 자연스럽게 남한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생계 등의 문제로 프로그램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여가, 여행 등을 연계한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이탈주민, 탈북학생의 자체 활동을 통한 이미지 개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의 다양한 자체 활동을 통해 남한사회와 소통·교류하는 가운데 자체적인 이미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학생,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부 북한이탈주민 간의 제한된 교류를 하거나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와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남한 주민, 학생과의 접촉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 간에 이뤄지는 다양한 교류와 접촉이 그들의 정서적 안정 및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러한 모임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만남이나 모임이 단순한 친목도모를 넘어 그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남한사회 적응 및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봉사를 비롯한 각종 사업을 통해 이들이 남한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소 고립된 방식으로 이뤄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연계가 개선되어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국출생 탈북학생에 대한 체계적 교육지원을 위한 체제 정비

중국출생 탈북학생이 남한 사회 및 학교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 정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주기 조사 결과, 중국에서 출생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모(어머니)와 함께 남한에 동반 입국하지 않는 중국출생 탈북학생은 일반적으로 입국초기보호시설(하나원)을 거치지 않게 되는데 정착지 편입학 학교에서 시행하는 탈북학생 통계조사에서 누락될 경우 남한 사회 및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입국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탈북학생이 남한 사회 및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관련기관, 학교 등 유관 기관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기본연구 기간을 포함하여 총 6년간 추진된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성과와 함께 한계점, 향후과제 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양적 및 질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한계, 향후 과제 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종단연구 1주기 양적 연구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과제

1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양적 조사의 성과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탈북학생의 사회, 학교 및 가정 생활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것에 있다. 2011년 1차 조사 실시 당시 초4학년에서 중3학년에 걸쳐 분포했던 패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매해 400명 이상의 탈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적으로 탈북청소년 관련 조사 연구는 단회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본 연구와 같이 단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한 경우는 드물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양적 조사 결과는 탈북청소년 연구 관련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추후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학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탈북청소년에 대한 심층연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주기 종단연구 양적조사와 관련된 한계점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조사 기간 동안 조사 대상 패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탈북학생 및 탈북학생을 둘러싼 환경의 특성상, 학생의 잦은 이동, 개명 등으로 인해 조사가 용이하지 않았다. 또한 매년 반복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적응으로 인한 노출 부담 때문에 조사 참여를 거부하거나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거부하는 등의 상반된 이유로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패널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외에 전체 모집단의 규모가 매우 작고 이에 따라 각 학년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북한출생 탈북학생, 북한출생 중국경유 탈북학생, 중국출생 탈북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탈북학생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본 규모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일반 조사대상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실시가 어려운 탈북학생 대상 연구를 실시하면서 조사 실시, 데이터 분석 및 관리 등의 기초 내용 이외에 유실패널에 대한 심층 분석 등과 같이 연구 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추가 내용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수행하게 될 2주기 탈북청소년 종단 연구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면 국내 입국 탈북청소년

의 특성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반면 1주기 종단연구에 참여한 패널 학생의 순차적 학년 진급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패널이 부재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존의 1주기 조사 참여 패널 대상 이 외에 초등학생, 중학생 패널을 신규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 패널 구성 시, 모집단의 규모가 매우 작은 탈북학생 가운데 일부를 패널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학년 전체를 패널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1주기 조사 착수 시점과 비교할 때 정규학교 재학 탈북학생의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총 6개의 학년으로 구성했던 1주기 조사의 경우와 같이 여러 학년으로 패널을 구성하기보다 패널 대상 학년 수를 최소화하여 조사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연구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하여 활용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 종단연구 1주기 질적 연구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과제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질적 연구의 성과는 종단연구에서 사용하지 않는 심층면담이라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양적 조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적응과정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매년 일정한 규모의 학생과 학생의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의 삶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질적 조사와 관련하여 전문적 훈련을 받은 면접원이 5년 동안 교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층면담에 참여함으로써 5년간 정기적으로 실시한 면담 자체가 심층면담에 참여한 탈북학생 및 학부모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추할 수 있는 중요한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반면 질적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탈북학생의 적응과 성장 과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1년 단위로 파악하는 것은 다소 짧다는 의견에 따라 격년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심층면담 참여 패널의 안정적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특히 연구예산의 제한으로 심층면담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학생의 특성상 원활한 적응과정을 거치고 있는 경우 계속 심층면담 대상자로 남아 있지만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경우에는 패널로 유지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상 학생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서 양적 연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1주기 종단 연구에 참여한 패널 학생의 학교급이 상승하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가 공백 상태라는 것을 고려하여 초등, 중등 단계 학생을 신규 패널로 구성하여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탈북학생의 유형이 출생국, 학교 재학 경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패널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적 연구의 특성을 살려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탈북학생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 마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1주기 질적 조사를 통해 생성·축적한 질적 연구 자료를 추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본 조사에서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 방법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 및 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구섭·김윤영·김현철·이향규·한만길(2014).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V).**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2015), 2015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15.4 기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2013), **탈북청소년 교육원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길은배·문성호(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김경준·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2008).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미숙(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연구부(2013). **2013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서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2006).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강주·한만길·이향규·김윤영(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I).** 한국교육개발원.

이기영(2001).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에 관한 유형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수정(2009). 북한이탈청소년 현황과 대책: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통일학연구원 봄 학술회의 : 탈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의 대안과 전략. 3-23.

이향규·이강주·김윤영·한만길(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정병호(2002).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병호·양계민·이향규·임후남·황순택(2007). **새터민 청소년 :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연구.** 경기도 교육청.

한만길·이향규·김윤영·채정민(2010).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강구섭·김일혁·이향규·김윤영(2013).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Ⅳ).** 한국교육개발원.

A Longitudinal Study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 in South Korea

Researcher Gu Sup Kang
Hyun Chul Kim
Hyang Kue Lee
Mann Gil Han
Asisstant Seong Cheol Park

A longitudinal study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 in South Korea pursues the following specific goals:

Firstly, it analyzes an adjustment process of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to South Korean society and school. Secondly, it draws implications on making educational support policy for them. Thirdly, it provides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educational support based on the gathered data about them. Lastly, it contributes for further studies regarding education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study uses a combination of quantitative data gathering method and qualitative approach, which are designed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circumstances around and adjustment process of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in South Korea.

The preliminary research was conducted in 2010 when the research model was designed and specific survey items were developed. Then, the first survey was carried out in 2011 and the next ones have been conducted five times annually until 2015.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urvey, wrapping up the 5-year-old research project, the students who were born in North Korea encountered more difficulties than those who were born in China in terms of the condition and category of their adjustment period (studies, mental state, relations, socialization) as they entered the South Korean society. More specifically, those who were born in North Korea suffered more than those who were born in China with respect to ‘domestic environment’, ‘studies’ and

‘relations’ considering their adjustment process in South Korea.

In conclusion, it shows that it needs to establish a certain support system to provide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the appropriate educational assistance. It needs to maintain a systematic learning supportfrom the lower graders at school to assist the slow-achieving students, and peer relation-promotingsystem to develop interpersonal relationshipskills among them.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provide the North Korean migrantstudents active and systematic mentoring of their teachers and educational aid to their parents as well.

Keywords: North Korean Refugee, Adaptation,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부 록

부록1 학생용 설문지
부록2 고교졸업 1년차용 설문지
부록3 담임교사용 설문지
부록4 학생평가용 설문지

부록 1 학생용 설문지

탈북청소년교육종단연구 조사지(학생용)

LIST ID : | | | | | | |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에 온 후,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년간 반복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해주신 내용들은 **여러분을 돕는데 필요한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나 신상에 대한 비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각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정확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한국교육개발원장

※ 이번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강구섭 연구위원(02-3460-0679)
■ 실사담당자: 조선미 팀장(02-3484-3053) / 실사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 담당연구원: 박주희 연구원(joohee690@kedi.re.kr), 서현창 연구원(hcseo2@randr.co.kr)
■ 주소 :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sid (리스트참고)	
연락처	집)	휴대전화)	
학교명	중 / 고등 학교	면접일시	___월 ___일 ____시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 합니다	면접원 성명 : ID _____	S/V 확인 _____	검증원 확인 _____	에디터확인 _____

※ 다음 중 가장 맞는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 학교, 학년, 반, 이름

_____학교 _____학년 _____반 이름:_____

(담임선생님 성함: _____)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태어난 때: _____년 _____월 _____ 일

4. 태어난 곳: ① 북한 ② 중국 ③ 기타_____

5. 가족사항 :

해당 칸에 모두 ○표시하여 주세요	없음	어머니	아버지	언니/누나	오빠/형	남동생	여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기타
1) 아직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은 누구인가요?	1	2	3	4	5	6	7	8	9	10	11
2) 남한에서 처음 가족이 되어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1	2	3	4	5	6	7	8	9	10	11
3)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1	2	3	4	5	6	7	8	9	10	11

6.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면 얼마 만에 만났나요?

① _____년 _____개월 만에 만났다.

⑧ 해당없음

7. 현재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직업이 없다.

② 단순노무직(가사도우미, 청소원, 배달원, 건설일용직 등)

③ 서비스직(식당종업원, 판매원, 간병인 등)

④ 기능직(전기, 기계, 자동차정비 등)

⑤ 사무직(비서, 경리, 일반 사무직원 등)

⑥ 전문관리직(관리자, 교수, 교사, 의사 등)

⑦ 기타 _____

8. 현재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직업이 없다

② 단순노무직(가사도우미, 청소원, 배달원, 건설일용직 등)

③ 서비스직(식당종업원, 판매원, 간병인 등)

④ 기능직(전기, 기계, 자동차정비 등)

⑤ 사무직(비서, 경리, 일반 사무직원 등)

⑥ 전문관리직(관리자, 교수, 교사, 의사 등)

⑦ 기타 _____

9. 현재 가족의 전체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_____만원

※ 10번부터 12번까지는 북한에서 산 적이 있는 경우에만 답하세요.

SQ1.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나요? ① 있음 ② 없음(☞ **SQ2로 이동**)

10. 북한에서 살 때 생활은 어땠나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불안했다	1	2	3	4	5
2) 힘들었다	1	2	3	4	5
3) 즐거웠다	1	2	3	4	5
4) 행복했다	1	2	3	4	5

11. 북한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그 때 학교생활은 어땠나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부를 많이 했다	1	2	3	4	5
2) 학교생활이 즐거웠다	1	2	3	4	5
3) 학교 가는 것이 싫었다	1	2	3	4	5
4) 학교에 매일 갔다	1	2	3	4	5
5)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1	2	3	4	5

12. 빈칸에 쓰고 싶은 말을 써서 짧은 글을 완성해 보아요.

나는 북한을 생각하면

_____

※ 13번부터 15번까지는 중국에서 산 적이 있는 경우에만 답하세요.

SQ2. 중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나요? ① 있음 ② 없음(☞ **문16번으로 이동**)

13. 중국에서 살 때 생활은 어땠나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불안했다	1	2	3	4	5
2) 힘들었다	1	2	3	4	5
3) 즐거웠다	1	2	3	4	5
4) 행복했다	1	2	3	4	5

14.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그 때 학교생활은 어땠나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부를 많이 했다	1	2	3	4	5
2) 학교생활이 즐거웠다	1	2	3	4	5
3) 학교 가는 것이 싫었다	1	2	3	4	5
4) 학교에 매일 갔다	1	2	3	4	5
5)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1	2	3	4	5

15. 빈칸에 쓰고 싶은 말을 써서 짧은 글을 완성해 보아요.

나는 중국을 생각하면

_____

※ 16번부터 18번까지는 모두 답해 주세요.

16.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남조선)은 어떤 사회라고 생각했나요?

내 용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1) 잘 사는 곳이다	1	2	3
2) 부자가 많다	1	2	3
3) 거지가 많다	1	2	3
4) 빈부격차가 심하	1	2	3
5) 경쟁이 심하다	1	2	3
6) 사람들이 친절하다	1	2	3
7) 자유가 많다	1	2	3
8) 희망이 있다	1	2	3
9) 공부를 많이 한다	1	2	3

※ 빈칸에 쓰고 싶은 말을 써서 짧은 글을 완성해 보세요.

17. 한국에 오는 길이 참

_____

18.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_____

다음은 여러분이 한국에 온 후의 생활입니다. 가장 맞는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19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19. 여러분의 부모님(보호자)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음 내용을 어느 정도로 해주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하신다	1	2	3	4	5
2) 공부를 직접 가르쳐 주신다	1	2	3	4	5
3) 준비물을 챙겨주신다	1	2	3	4	5
4)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신다	1	2	3	4	5
5) 잘하라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신다	1	2	3	4	5

20.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한다	1	2	3	4	5
2) 가족은 나를 자주 칭찬한다	1	2	3	4	5
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과 상의한다	1	2	3	4	5
4) 나는 가족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1	2	3	4	5

20-1) 여러분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은 누구인가요? (모두 표시하세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언니(누나) ④ 오빠(형)
⑤ 동생 ⑥ 할머니
⑦ 할아버지 ⑧ 친척들(적어주세요:)
⑨ 없다

※ 21번부터 33번까지는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선생님은 내 기분을 이해하면서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1	2	3	4	5
2) 선생님은 나의 조그만 행동에도 칭찬을 해주신다	1	2	3	4	5
3) 선생님은 나를 잘 가르쳐주신다	1	2	3	4	5

22. 여러분은 학교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3. 여러분은 학교에서 공부를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방과 후에 학교에서 선생님과 공부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문24번으로 이동**)

23-1) 방과 후에 어느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주시나요?

① 담임선생님 ② 다른 반 선생님
③ 학교 밖에서 오신 선생님 ④ 기타_____

23-2) 무슨 과목을 공부하나요? 과목: _____

23-3) 1주일 당 공부 시간 : _____시간

24. 학교 하교 후에는 복지관 방과 후 교실에 다니나요?.....

① 예　　② 아니오(☞**문25번으로 이동)**

24-1) 복지관 방과 후 교실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_____

24-2) 1주일 당 공부 시간 :　　시간

25. 학교 하교 후에 학원에 다니나요?.....

① 예　　② 아니오(☞문26번으로 이동)

25-1) 무슨 학원에 다니나요? _____

25-2) 1주일 당 학원 수업 시간 :　　시간

26. 그 밖에 공부하는 곳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문27번으로 이동)

26-1) 그 곳이 어디인가요?_____

26-2) 1주일 당 공부 시간 :　　시간

27. 여러분은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 또는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각각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내 용	받은 적이 없다	교육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1) 1:1 멘토링(선생님의 1대1 지도)	0	1	2	3	4	5
2) 부진한 과목에 대한 학습지도	0	1	2	3	4	5
3) 문화체험 활동	0	1	2	3	4	5

28.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1	2	3	4	5
2) 새로운 지식을 알고 싶어서	1	2	3	4	5
3) 어려운 공부를 잘해냈을 때 기분이 좋아서	1	2	3	4	5
4)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1	2	3	4	5
5)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1	2	3	4	5
6) 미래에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1	2	3	4	5
7) 선생님께 인정받기 위해	1	2	3	4	5
8)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려고	1	2	3	4	5

29. 수업태도와 수업준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 날 배운 것을 복습한다	1	2	3	4	5
2) 나는 앞으로 배울 내용을 예습한다	1	2	3	4	5
3) 나는 선생님이 내 주신 숙제를 꼬박꼬박 해간다	1	2	3	4	5
4) 나는 준비물을 꼭 챙겨간다	1	2	3	4	5
5) 나는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듣는다	1	2	3	4	5

30. 학교에서 다음 과목의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과 목	거의 이해 못함	별로 이해 못함	반쯤 이해함	대부분 이해함	거의 다 이해함
1) 국어	1	2	3	4	5
2) 수학	1	2	3	4	5
3) 영어	1	2	3	4	5

31. 다음의 내용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습내용 중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2)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3) 학교에서 내준 과제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1	2	3	4	5
4) 배운 내용들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1	2	3	4	5

32. 여러분의 경험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적이 올라서 기뻤던 적이 있다	1	2	3	4	5
2)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아 기뻤던 적이 있다	1	2	3	4	5
3)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아 기뻤던 적이 있다	1	2	3	4	5
4) 공부 말고 다른 것으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내가 잘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다	1	2	3	4	5

33.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2) 나는 학교생활이 따분하다	1	2	3	4	5
3) 나는 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	1	2	3	4	5
4) 나는 이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괴롭다	1	2	3	4	5
5) 나는 학교가기가 싫다	1	2	3	4	5
6) 나는 수업시간이 견디기 힘들다	1	2	3	4	5

※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것입니다.

34. 현재 나의 몸 건강 상태는?

①	②	③	④	⑤
아주 아프다	조금 아프다	보통이다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

35. 요즈음 내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불안하다	1	2	3	4	5
2) 자꾸 짜증이 난다	1	2	3	4	5
3) 자주 배가 아프다	1	2	3	4	5
4) 기운이 별로 없다	1	2	3	4	5
5) 입맛이 없다	1	2	3	4	5
6)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1	2	3	4	5
7) 슬프다	1	2	3	4	5
8) 걱정이 많다	1	2	3	4	5
9)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	1	2	3	4	5
10) 자꾸 나쁜 꿈을 꾼다	1	2	3	4	5

36.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2) 나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남보다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1	2	3	4	5
4) 나는 학급 반장이 될 자격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남보다 뛰어난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5

37.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주 쉽게 당황한다	1	2	3	4	5
2)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될 때 불안하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쓴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을 자세히 생각해볼 때가 있다	1	2	3	4	5

38.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	1	2	3	4	5
2) 내가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을 보면 내가 먼저 다가간다	1	2	3	4	5
3) 처음 보기에 좀 무관심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귀어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4) 나는 친구모임에서 잘 어울리지 못한다	1	2	3	4	5

39. 최근 1년 동안 대체로 어떻게 느끼고 살았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미있었다	1	2	3	4	5
2) 즐거웠다	1	2	3	4	5
3) 가치있었다	1	2	3	4	5
4) 사람들과 친했다	1	2	3	4	5
5) 희망적이었다	1	2	3	4	5
6) 만족스럽다	1	2	3	4	5

40. 학교에서의 친구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1	2	3	4	5
2)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3) 나는 학교에서 외톨이 같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	1	2	3	4	5

41. 여러분은 주변에 친한 친구가 몇 명쯤 있나요?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10명 ⑤ 10명~20명 ⑥ 20명~30명
⑦ 30명 이상

42. 학교 친구들은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③ 잘 모르겠다

43. 만일 다른 학교에 전학 간다면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리겠습니까?

① 알리겠다 ② 알리지 않겠다 ③ 잘 모르겠다

44. 숙제나 공부할 때 모르는 것은 주로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 오빠, 누나, 언니
④ 할아버지, 할머니 ⑤ 친척 ⑥ 친구
⑦ 학교 선생님 ⑧ 기타 _____

45. 여러분은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이야기하나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 오빠, 누나, 언니
④ 할아버지, 할머니 ⑤ 친척 ⑥ 친구
⑦ 학교 선생님 ⑧ 기타 _____

46. 여러분은 어느 학교까지 다니고 싶은가요?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학 ④ 대학교
⑤ 대학원

47. 다음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1	2	3	4	5
2) 진로문제(진학 또는 직업선택)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1	2	3	4	5
3)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1	2	3	4	5
4) 나는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48.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차별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없는 경우는 문49번으로 이동**)

48-1) 차별받은 경우, 누가 차별하였나요? (모두 표시하세요)

① 한국 친구들 ② 학교 선생님

③ 이웃 ④ 기타(적어주세요)_____

48-2) 어떻게 차별을 받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그런 적 없다	가끔 그런다	자주 그런다
1) 놀린다	1	2	3
2) 때리거나 밀친다	1	2	3
3) 무시한다	1	2	3
4) 욕한다	1	2	3
5) 안 놀아준다	1	2	3

49.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교통질서 등)를 지키지 않는다	1	2	3	4	5
2)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1	2	3	4	5
3) 내 생각에는 법,질서,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1	2	3	4	5

50. 한국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에서 살다보니 후회할 일이 많다	1	2	3	4	5
2) 한국에서 사는 것이 희망이 있다	1	2	3	4	5
3)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1	2	3	4	5
4)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겠다	1	2	3	4	5

51. 1년 전에 비하여 지금을 생각하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나요?

내 용	매우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	비슷하다	약간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1) 국어과목 수업을 이해하는 정도	1	2	3	4	5
2) 수학과목 수업을 이해하는 정도	1	2	3	4	5
3) 영어과목 수업을 이해하는 정도	1	2	3	4	5
4) 혼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	1	2	3	4	5
5) 학교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1	2	3	4	5
6) 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1	2	3	4	5
7)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1	2	3	4	5
8) 몸에 아픈 데 없이 건강한 것	1	2	3	4	5
9) 불안 없이 즐겁게 생활하는 것	1	2	3	4	5
10) 나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는 것	1	2	3	4	5

52.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다음페이지 SQ3으로 이동)

52-1) 그 직업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적되, 결정된 직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_____

52-2) 그 직업을 희망하는 중요한 이유를 순서대로 두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②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서
③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될 것 같아서
④ 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⑤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⑥ 여가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 같아서
⑦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⑧ 창의성 및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⑨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⑩ 기타 _____

52-3) 그 직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부모님 ② 형제·자매 ③ 친구
④ 선·후배 또는 지인 ⑤ 학교 선생님 ⑥ 친지
⑦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중학생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설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3번부터 60번까지는 고등학생만 답하는 질문입니다.

SQ3.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나요?

① 예 ② 아니오(☞**조사종료**)

53. 고등학생이 된 이후 학교에서 진로와 관련된 다음 내용을 해본 적(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내 용	받은 적이 없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진로(진학)관련 상담	0	1	2	3	4	5
2) 진로관련 검사(전공적성 검사 등)	0	1	2	3	4	5
3) 진로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등)	0	1	2	3	4	5
4) 대학교 및 학과 안내	0	1	2	3	4	5
5) 직업체험 프로그램	0	1	2	3	4	5

54.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① 대학 진학 ② 취업 또는 창업 ③ 아직 결정하지 못함

54-1) 대학을 진학할 계획인 경우,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전공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예 (_____ 계열 _____학과) ② 아니오

54-2)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서 ② 주변(부모님, 선생님,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
③ 특성화된 교육과정 때문에 ④ 사회생활을 위한 선후배 인맥 형성 때문에
⑤ 졸업 후 취업이 잘 되서 ⑥ 가정형편 때문에
⑦ 성적에 맞춰서 ⑧ 종교적 이유 때문에
⑨ 잘 모르겠다 ⑩ 기타(_____)

※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설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5번부터 57번까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생만 답하는 질문입니다.

SQ4. **(고등학교 3학년 학생만 응답)**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을 선택해 주세요.

① 대학 진학 ② 취업(☞**문58번으로 이동**)

55.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이후 학교에서 진로와 관련된 다음 내용을 해본 적(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내 용	받은 적이 없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진로(진학)관련 상담	0	1	2	3	4	5
2) 진로관련 검사(전공적성 검사 등)	0	1	2	3	4	5
3) 진로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등)	0	1	2	3	4	5
4) 대학교 및 학과 안내	0	1	2	3	4	5
5) 직업체험 프로그램	0	1	2	3	4	5

56. 대학 진학의 이유로 다음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학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1	2	3	4	5
2) 고등학교 졸업으로는 좋은 취직자리가 없어서	1	2	3	4	5
3)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1	2	3	4	5
4) 갖고 싶은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려고	1	2	3	4	5
5)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1	2	3	4	5
6) 친구들이 모두 진학하므로	1	2	3	4	5
7) 진학하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	2	3	4	5
8) 많은 사람들과 사귈 수 있어서	1	2	3	4	5
9) 가족과 선생님께서 권해서	1	2	3	4	5
10) 아직 취직하고 싶지 않아서	1	2	3	4	5

57. 진학과 관련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① 가족 혹은 친척에게서

② 친구나 선배에게서

③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선생님 혹은 학교에서 주는 진학정보를 통해

④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⑤ 진학관련 웹사이트 혹은 진학정보 제공기관(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⑥ 학원 혹은 입시컨설팅 기관에서

⑦ 진학관련 서적을 찾아보면서

⑧ 기타 ( )

※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설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8번부터 60번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3학년생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이후** 학교에서 진로와 관련된 다음 내용을 해본 적(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내 용	받은 적이 없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진로(진학)관련 상담	0	1	2	3	4	5
2) 진로관련 검사(전공적성 검사 등)	0	1	2	3	4	5
3) 진로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등)	0	1	2	3	4	5
4) 대학교 및 학과 안내	0	1	2	3	4	5
5) 직업체험 프로그램	0	1	2	3	4	5

59.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하고 싶어서
② 대학에 진학할 실력이 안 되어서
③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④ 공부하기 싫어서
⑤ 돈을 벌고 싶어서
⑥ 대학을 나와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⑦ 기타 ( )

60.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① 가족 혹은 친척에게서
② 친구나 선배에게서
③ 진로정보제공 전문기관
④ 취업관련 서적
⑤ 학교 진로상담부, 학원 상담실
⑥ 직업훈련기관
⑦ 복지관
⑧ 기타 ( )
⑨ 참고한 적이 없음

※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설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2 고교졸업 1년차용 설문지

탈북청소년교육종단연구 조사지(고교졸업 1년차용)

LIST ID : | | | | | | |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에 온 후,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년간 반복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해주신 내용들은 **여러분을 돕는데 필요한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나 신상에 대한 비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각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정확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한국교육개발원장

※ 이번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강구섭 연구위원(02-3460-0679)
■ 실사담당자: 조선미 팀장(02-3484-3053) / 실사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 담당연구원: 박주희 연구원(joohee690@kedi.re.kr), 서현창 연구원(hcseo2@randr.co.kr)
■ 주소 :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 다음 중 가장 맞는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 소속기관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문2번으로 이동)

1-1. 소속기관은?(학교, 학원, 직장 등)

학교: _____학교 _____학과

직장: _____

학원: _____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태어난 때: _____년 _____월 _____ 일

4. 태어난 곳: ① 북한 ② 중국 ③ 기타_____

※ 다음은 여러분이 한국에 온 후의 생활입니다.
가장 맞는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5.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한다	1	2	3	4	5
2) 가족은 나를 자주 칭찬한다	1	2	3	4	5
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과 상의한다	1	2	3	4	5
4) 나는 가족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1	2	3	4	5

6. 여러분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은 누구인가요? **(모두 표시하세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언니(누나) ④ 오빠(형)
⑤ 동생 ⑥ 할머니
⑦ 할아버지 ⑧ 친척들(적어주세요:)
⑨ 없다

※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것입니다.

7. 현재 나의 몸 건강 상태는?

①	②	③	④	⑤
아주 아프다	조금 아프다	보통이다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

8. 요즈음 내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불안하다	1	2	3	4	5
2) 자꾸 짜증이 난다	1	2	3	4	5
3) 자주 배가 아프다	1	2	3	4	5
4) 기운이 별로 없다	1	2	3	4	5
5) 입맛이 없다	1	2	3	4	5
6)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1	2	3	4	5
7) 슬프다	1	2	3	4	5
8) 걱정이 많다	1	2	3	4	5
9)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	1	2	3	4	5
10) 자꾸 나쁜 꿈을 꾼다	1	2	3	4	5

9.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2) 나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남보다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1	2	3	4	5
4)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남보다 뛰어난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5

10.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주 쉽게 당황한다	1	2	3	4	5
2)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될 때 불안하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쓴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을 자세히 생각해볼 때가 있다	1	2	3	4	5

11.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	1	2	3	4	5
2) 내가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을 보면 내가 먼저 다가간다	1	2	3	4	5
3) 처음 보기에 좀 무관심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사귀어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4) 나는 친구모임에서 잘 어울리지 못한다	1	2	3	4	5

12. 최근 1년 동안 대체로 어떻게 느끼고 살았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미있었다	1	2	3	4	5
2) 즐거웠다	1	2	3	4	5
3) 가치있었다	1	2	3	4	5
4) 사람들과 친했다	1	2	3	4	5
5) 희망적이었다	1	2	3	4	5
6) 만족스럽다	1	2	3	4	5

13. 다음은 친구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1	2	3	4	5
2)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3) 나는 때때로 외톨이 같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	1	2	3	4	5

14. 여러분은 주변에 친한 친구(또는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가 몇 명쯤 있나요?

①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10명 ⑤ 10명~20명 ⑥ 20명~30명
⑦ 30명 이상

15. 주변 친구(동료)들은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③ 잘 모르겠다

16. 만일 새로운 친구(동료)들을 만난다면 여러분과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리겠습니까?

① 알리겠다 ② 알리지 않겠다 ③ 잘 모르겠다

17. 여러분은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이야기하나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 오빠, 누나, 언니
④ 할아버지, 할머니 ⑤ 친척 ⑥ 친구
⑦ 기타(적어주세요)_____

18. 다음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1	2	3	4	5
2) 진로문제(진학 또는 직업선택)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1	2	3	4	5
3)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1	2	3	4	5
4) 나는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19. 부모님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차별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없는 경우는 문20번으로 이동)**

19-1) 차별받은 경우, 누가 차별하였나요? (모두 표시하세요)

① 한국 친구들 ② 이웃 ③ 기타(적어주세요)_____

19-2) 어떻게 차별을 받았나요?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그런 적 없다	가끔 그런다	자주 그런다
1) 놀린다	1	2	3
2) 무시한다	1	2	3
3) 욕한다	1	2	3
4) 안 어울린다	1	2	3

20.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질서(교통질서 등)를 지키지 않는다	1	2	3	4	5
2)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1	2	3	4	5
3) 내 생각에는 법,질서,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1	2	3	4	5

21. 한국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당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에서 살다보니 후회할 일이 많다	1	2	3	4	5
2) 한국에서 사는 것이 희망이 있다	1	2	3	4	5
3)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1	2	3	4	5
4)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겠다	1	2	3	4	5

22. 1년 전에 비하여 지금을 생각하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나요?

내 용	매우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	비슷하다	약간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1)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1	2	3	4	5
2) 주변어른들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1	2	3	4	5
3)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1	2	3	4	5
4) 몸에 아픈 데 없이 건강한 것	1	2	3	4	5
5) 불안 없이 즐겁게 생활하는 것	1	2	3	4	5
6) 나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는 것	1	2	3	4	5

※ 대학생, 대학 진학 준비자 (☞문23번으로 이동)
취업자, 취업 준비자 (☞문37번으로 이동)

대학생·대학 진학준비자용

※ 다음 중 가장 맞는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23번에서 23-3번까지는 대학교에 진학했거나,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23.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4번으로 이동)**

23-1) 그 직업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적되, 결정된 직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_____

23-2) 그 직업을 희망하는 중요한 이유를 순서대로 두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②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서
③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될 것 같아서
④ 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⑤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⑥ 여가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 같아서
⑦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⑧ 창의성 및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⑨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⑩ 기타(적어주세요) _____

23-3) 그 직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부모님 ② 형제·자매 ③ 친구
④ 선·후배 또는 지인 ⑤ 친지 ⑥ 선생님·교수님
⑦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대학생 (☞문24번으로 이동)
대학 진학 준비자 (☞문32번으로 이동)

※ 24~31번까지는 대학에 진학한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24. 귀하는 **지난 1학기 동안** 학습과 관련하여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내 용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1) 수업시간에 질문한다	1	2	3	4	5
2)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	1	2	3	4	5
3)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에 도전한다	1	2	3	4	5
4) 자발적으로 글쓰기를 연습한다	1	2	3	4	5
5) 학술논문이나 자료를 찾아본다	1	2	3	4	5
6) 개인적으로 흥미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공부한다	1	2	3	4	5
7) 실수도 배우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인다	1	2	3	4	5
8) 내가 한 일이나 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5. 귀하는 **지난 1학기 동안 수업(온라인 강의포함)**과 관련해서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였습니까?

내 용	매우 소극적	소극적	보통	적극적	매우 적극적
1) 토론 참여	1	2	3	4	5
2) 질문	1	2	3	4	5
3) 팀 프로젝트 참여	1	2	3	4	5
4) 발표	1	2	3	4	5
5) 수업 준비	1	2	3	4	5

26. 귀하는 **지난 1학기 동안** 다음의 행동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

내 용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1) 이유 없이 수업을 빠진다	1	2	3	4	5
2) 지각을 한다	1	2	3	4	5
3) 과제물을 늦게 제출한다	1	2	3	4	5
4) 수업시간에 졸거나 잠을 잔다	1	2	3	4	5
5)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잡담을 한다	1	2	3	4	5
6) 출석만 확인하고 나간다	1	2	3	4	5
7) 수업시간에 몰래 음악을 듣는다	1	2	3	4	5
8) 수업시간에 수업과 관계없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1	2	3	4	5
9) 수업시간에 문자를 주고받거나 채팅을 한다	1	2	3	4	5
10)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한다	1	2	3	4	5
11) 과제를 베껴서 제출한다	1	2	3	4	5
12)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해 준 과제를 제출한다	1	2	3	4	5
13) 대리출석을 부탁한다	1	2	3	4	5

27. 귀하는 **지난 1학기 동안** 대학생활을 하면서 다음 각각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과(학부 또는 계열)에 소속감을 느낀다	1	2	3	4	5
2)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	1	2	3	4	5
3) 내가 다니는 학과(학부 또는 계열)가 자랑스럽다	1	2	3	4	5
4) 내가 다니는 대학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5) 학과(학부 또는 계열)에서 소외되고 있다	1	2	3	4	5
6) 동료학생들과 어울리기 싫다	1	2	3	4	5
7)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1	2	3	4	5
8)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귄다	1	2	3	4	5
9) 대학생활을 잘 한다	1	2	3	4	5

28. 귀하는 **지난 1학기 동안**의 학교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에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1	2	3	4	5
2) 수업과 과제가 어렵게 느껴졌다	1	2	3	4	5
3)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다	1	2	3	4	5
4) 대학에서 학업과 다양한 활동(친구와의 교류, 진로탐색, 취미 활동 등)을 함께하는 것이 쉬웠다	1	2	3	4	5
5)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1	2	3	4	5
6) 대학교육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다	1	2	3	4	5
7)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흥미롭고 유익한 것 같았다	1	2	3	4	5
8)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대학 내에 있다	1	2	3	4	5

29. 귀하께서는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다음 활동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어느 정도 있다	많이 있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를 옮긴다	1	2	3	4	5
2) 전공분야를 바꾼다	1	2	3	4	5
3) 희망하는 진로를 바꾼다	1	2	3	4	5
4) 휴학한다	1	2	3	4	5
5) 학교를 그만둔다	1	2	3	4	5
6) 학비를 벌기 위해 일이나 아르바이트를 한다	1	2	3	4	5
7)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	2	3	4	5
8) 외국 대학 또는 외국 대학원으로 유학간다	1	2	3	4	5
9) 주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을 이수한다	1	2	3	4	5

30.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의 부족(영어, 글쓰기 능력)	1	2	3	4	5
2) 한국의 사회, 문화 등 기초 지식의 부족	1	2	3	4	5
3)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의 부족	1	2	3	4	5
4) 친구 사귀기 어려움	1	2	3	4	5
5) 경제적 어려움	1	2	3	4	5
6) 기타 :	1	2	3	4	5

31. 원만한 대학생활을 위해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업 능력 보충 교육 기회(영어, 글쓰기 능력)	1	2	3	4	5
2) 대학생활에 대한 안내를 해줄 멘토	1	2	3	4	5
3)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모임	1	2	3	4	5
4) 경제적 지원(장학금, 생활비 등)	1	2	3	4	5
5) 기타 :	1	2	3	4	5

※ 마지막 페이지 응답자 기본사항을 기입하고 종료해 주십시오.

※ 32~36번은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경우에만 응답하십시오.

32. 대학을 진학할 계획인 경우,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나 전공을 선택하였습니까?

① 예 (**1순위**:_____계열_____학과 / **2순위**:_____계열_____학과)

② 아니오

33.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흥미와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② 주변(부모님, 선생님,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

③ 특성화된 교육과정 때문에 ④ 사회생활을 위한 선후배 인맥 형성 때문에

⑤ 졸업 후 취업이 잘 되서 ⑥ 가정형편 때문에

⑦ 성적에 맞춰서 ⑧ 종교적 이유 때문에

⑨ 잘 모르겠다 ⑩ 기타(_____)

34. 대학을 진학하는 이유로, 다음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학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1	2	3	4	5
2) 고등학교 졸업으로는 좋은 취직자리가 없어서	1	2	3	4	5
3)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1	2	3	4	5
4) 갖고 싶은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려고	1	2	3	4	5
5)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1	2	3	4	5
6) 친구들이 모두 진학하기 때문에	1	2	3	4	5
7) 진학하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	2	3	4	5
8) 많은 사람들과 사귈 수 있어서	1	2	3	4	5
9) 가족과 선생님께서 권해서	1	2	3	4	5
10) 아직 취직하고 싶지 않아서	1	2	3	4	5

35. 대학 진학과 관련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① 가족 혹은 친척에게서

② 친구나 선배에게서

③ 현재 다니는 대안교육시설의 선생님

④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⑤ 진학관련 웹사이트 혹은 진학정보 제공기관(대학교육협의회)을 통해

⑥ 학원 혹은 입시컨설팅 기관에서

⑦ 진학관련 서적을 찾아보면서

⑧ 기타 ( )

36. 대학 진학 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① 입시 학원 수강

② 대안학교에 다니며 준비

③ 혼자 준비

④ 기타( )

※ 마지막 페이지 응답자 기본사항을 기입하고 종료해 주십시오.

취업자·취업 준비자용

※ 취업하였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37.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응답)**

① 돈을 벌고 싶어서
②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하고 싶어서
③ 자신의 능력을 보다 빨리 발휘하기 위해서
④ 대학에 진학할 성적이 부족해서
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⑥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⑦ 대학을 나와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⑧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⑨ 가업을 잇기 위해
⑩ 기타(_____)

38. 취업준비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경험은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내 용	경험여부		경험한 적이 있다면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었다	보통 이었다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직업훈련	①	②	1	2	3	4	5
2) 면접훈련	①	②	1	2	3	4	5
3) 자격증 취득	①	②	1	2	3	4	5
4) 직업적성검사, 흥미검사	①	②	1	2	3	4	5
5) 취업 정보 검색	①	②	1	2	3	4	5
6) 취업박람회 참여	①	②	1	2	3	4	5
7) 지인에게 취업 부탁	①	②	1	2	3	4	5
8) 나의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게시	①	②	1	2	3	4	5
9) 직접 방문하여 취업 부탁	①	②	1	2	3	4	5

39. 취업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아래 보기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골라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신문, TV 등 언론매체(인터넷 제외)
② 부모, 친인척, 친구, 선후배
③ 대안교육시설 선생님
④ 직업소개소, 학원 등(사설기관)
⑤ 고용센터(공공취업전문기관)
⑥ 인터넷
⑦ 취업박람회
⑧ 기타(_____)

※ 취업자 (☞문40번으로 이동)
취업 준비자 (☞문49번으로 이동)

※ 40~48번은 취업한 경우에만 응답하십시오

40.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① 공개 채용 ② 학교 또는 선생님의 추천 ③ 가족 또는 친지의 추천
④ 인턴 또는 현장실습 ⑤ 창업 또는 가족사업 ⑥ 기타( )

41. 직장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부모님 ② 형제·자매 ③ 친구
④ 선·후배 또는 지인 ⑤ 친지 ⑥ 선생님
⑦ 기타(적어주세요 _____)

42.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급여	1	2	3	4	5
2) 안정적인 고용	1	2	3	4	5
3) 직원복지	1	2	3	4	5
4) 근무 내용	1	2	3	4	5
5) 근무시간 및 업무량	1	2	3	4	5
6) 근무환경	1	2	3	4	5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1	2	3	4	5
8) 개인의 발전 가능성	1	2	3	4	5
9) 전반적인 만족도	1	2	3	4	5

43. 현재 근무하는 직장은 본인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직업)와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①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②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③ 어느 정도 일치한다 ④ 매우 일치한다

44. **(문43에서 ①, ② 응답자만)** 위 문43에서 ①과 ②에 응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취업정보 부족 ② 취업준비 부족(자격증, 경력 등) ③ 업무수행능력 부족

④ 학력 기준 미달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45.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업 능력의 부족	1	2	3	4	5
2)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기초 지식(용어 등)의 부족	1	2	3	4	5
3) 남한 조직 생활에 대한 이해 부족	1	2	3	4	5
4) 직장 동료와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1	2	3	4	5
5) 기타 :	1	2	3	4	5

46.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간단히 쓰세요:_____)

47. 귀하는 현재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48번으로 이동)**

47-1. 다른 일자리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2개를 골라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직장의 발전 전망이 없어서 ② 보수가 적어서

③ 동료 및 윗사람과의 불화 ④ 고용상태가 불안해서

⑤ 나의 발전가능성이 불투명해서 ⑥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⑦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⑧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⑨ 근무시간이 불만족스러워서 ⑩ 기타(_____)

48. 향후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응답자 기본사항 기입 후 조사종료)**

48-1) 진학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유형의 대학에 진학할 계획입니까?

① 전문대학 ② 일반대학교 ③ 산업대학 ④ 교육대학

⑤ 원격대학(사이버대, 방송대) ⑥ 기술대학 ⑦ 각종학교 ⑧ 기타(_____)

48-2) 진학할 계획이 있다면 직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할 계획이다 ②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할 계획이다

48-3) 진학을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②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③ 승진을 위해

④ 순수 학문 탐구를 위해 ⑤ 학력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⑥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⑦ 기타(_____)

※ 마지막 페이지 응답자 기본사항을 기입하고 종료해 주십시오.

※ 아래의 질문은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만 응답하십시오

49. 장래의 직업을 결정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응답자 기본사항 기입 후 조사종료)**

49-1) 그 직업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적되, 결정된 직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_____

49-2) 그 직업을 희망하는 중요한 이유를 순서대로 두 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②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서
③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될 것 같아서
④ 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⑤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⑥ 여가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많을 것 같아서
⑦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⑧ 창의성 및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⑨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⑩ 기타 _____

49-3) 그 직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부모님 ② 형제·자매 ③ 친구
④ 선·후배 또는 지인 ⑤ 친지 ⑥ 선생님
⑦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마지막 페이지 응답자 기본사항을 기입하고 종료해 주십시오.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sid (리스트참고)	
연락처	집)	휴대전화)	
소속기관명 (학교, 학원, 직장 등)		면접일시	____월 ____일 _____시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 합니다	면접원 성명 : ID _____	S/V 확인 _____	검증원 확인 _____	에디터확인 _____

※ 설문을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3 담임교사용 설문지

탈북청소년교육종단연구 조사지(담임교사용)

LIST ID : | | | | | | |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이 한국 입국 후,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년간 반복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해주신 내용들은 **탈북청소년들을 돕는데 필요한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교사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나 신상에 대한 비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각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한국교육개발원장

※ 이번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강구섭 연구위원(02-3460-0679)
■ 실사담당자: 조선미 팀장(02-3484-3053) / 실사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 담당연구원: 박주희 연구원(joohee690@kedi.re.kr), 서현창 연구원(hcseo2@randr.co.kr)
■ 주소 :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응답자 기본 사항					
교사명		학생명		sid (리스트참고)	
학교명	중 / 고등 학교		면접일시	___월 ___일 ____시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 합니다	면접원 성명 : ID _____	S/V 확인 _____	검증원 확인 _____	에디터확인 _____

※ 면접원께: 본 설문지는 담임교사(학교 상황에 따라 탈북청소년담당교사(또는 멘토교사) 응답가능)당 1부만 완료합니다. 대상 학생 및 sid는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해주세요

다음은 선생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2. 출생 년도: _____년

3. 전체 교직경력: _____년 근무

4. 본교 재직경력: _____년 근무

다음은 선생님의 교직 경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5. 이전에도 탈북학생을 지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1) **(문5에서 ① 응답자만)**탈북학생 지도 경험이 있으신 경우 몇 년간 몇 명 정도 지도하셨습니까?　_____년간　_____명

6. 선생님께서는 탈북학생 지도와 관련하여 교사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1) **(문6에서 ① 응답자만)** 연수 총 시간은 몇 시간이었습니까? (_____시간)

6-2) **(문6에서 ① 응답자만)** 탈북학생 지도 관련 연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간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7. 다음 질문에 대해 선생님께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탈북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탈북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탈북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탈북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를 만들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탈북 주민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2	3	4	5
7) 나는 남북한 출신 학생들 간의 상호 존중심을 함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남북한 출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학생들이 타민족 집단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2	3	4	5
10) 나는 북한출신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2	3	4	5

※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4 학생평가용 설문지

탈북청소년교육종단연구 조사지(담임교사용: 학생평가지)

LIST ID :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이 한국 입국 후,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년간 반복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해주신 내용들은 **탈북청소년들을 돕는데 필요한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교사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나 신상에 대한 비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각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한국교육개발원장

※ 이번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강구섭 연구위원(02-3460-0679)
■ 실사담당자: 조선미 팀장(02-3484-3053) / 실사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 담당연구원: 박주희 연구원(joohee690@kedi.re.kr), 서현창 연구원(hcseo2@randr.co.kr)
■ 주소 :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

응답자 기본 사항					
교사명		학생명		sid (리스트참고)	
학교명	중 / 고등 학교		면접일시	___월 ___일 ____시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 합니다	면접원 성명 : ID _____	S/V 확인 _____	검증원 확인 _____	에디터확인 _____

※ **면접원께**: 본 설문지는 **담임교사(학교 상황에 따라 탈북청소년담당교사(또는 멘토교사) 응답가능)**당 1부만 완료합니다. 대상 학생 및 sid는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입해주세요

다음은 선생님이 관찰하신 학생의 특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 담당하는 학생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　　)

2.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태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1	2	3	4	5
2) 이 학생은 학교생활, 진로, 신상문제 등에 대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	1	2	3	4	5
3) 이 학생은 수업에 집중한다	1	2	3	4	5
4) 이 학생은 학급에서 수업분위기를 흐린다	1	2	3	4	5
5) 학생은 숙제를 꼬박꼬박 해온다	1	2	3	4	5
6) 준비물을 꼭 챙겨온다	1	2	3	4	5
7) 이 학생은 스스로 공부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다	1	2	3	4	5

3. 학생의 수업이해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은 다음 과목의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것에 ○표 하세요.

과　목	20% 이하 거의 이해 못함	21~40% 별로 이해 못함	41~60% 반쯤 이해함	61~80% 대부분 이해함	81% 이상 거의 다 이해함
1) 국어	1	2	3	4	5
2) 수학	1	2	3	4	5
3) 영어	1	2	3	4	5
4) 사회	1	2	3	4	5
5) 과학	1	2	3	4	5

4. 학생의 현재 학교에서 성적은 어느 정도 인가요?

과 목	구체적 점수	20점 미만	20점 이상 ~ 40점 미만	40점 이상 ~ 60점 미만	60점 이상 ~ 80점 미만	80점 이상
1) 국어	점	1	2	3	4	5
2) 수학	점	1	2	3	4	5
3) 영어	점	1	2	3	4	5
4) 사회	점	1	2	3	4	5
5) 과학	점	1	2	3	4	5

註: 구체적인 점수는 가장 최근에 공식적으로 성적이 발표된 시험 기준으로 기입 부탁드립니다.

註: 구체적인 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정수로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 현재 학생의 신체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아주 아프다	조금 아프다	보통이다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

6. 학생의 교우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서 쉽게 친구를 사귀는 것 같다	1	2	3	4	5
2)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것 같다	1	2	3	4	5
3)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는 것 같다	1	2	3	4	5
4) 학생이 외톨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1	2	3	4	5
5)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잘 지낸다.	1	2	3	4	5

7. 이 학생의 행동적 특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급 일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1	2	3	4	5
2) 이 학생은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내성적이다	1	2	3	4	5

8. 한 학기 동안 이 학생의 결석, 지각, 조퇴 횟수는 각각 몇 회입니까?

8-1) 결석 ① 없음 ② 있음 _____(회)

8-2) 지각 ① 없음 ② 있음 _____(회)

8-3) 조퇴 ① 없음 ② 있음 _____(회)

9. 이 학생은 올해 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 항목에 모두 ○표 하세요.

① 선도처분 ② 교내봉사

③ 사회봉사 ④ 특별이수교육

⑤ 등교정지(가정학습) ⑥ 징계를 받은 적 없음

10. 학생은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까?.....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은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하거나 빈 칸에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1. 이 학생은 이번학기 동안 아래와 같은 교육 또는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각각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내 용	받은 적이 없음	교육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이다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1) 1:1 멘토링(선생님의 1대1 지도)	⓪	1	2	3	4	5
2) 부진한 과목에 대한 학습지도	⓪	1	2	3	4	5
3) 문화체험 활동	⓪	1	2	3	4	5

11-1) **(문11번 1)의 ①~⑤ 응답자만)** 1 : 1 멘토링(선생님의 1대1 지도)을 받는 경우, 학생의 멘토교사는 누구입니까?

① 담임교사

② 교내 다른 교사

③ 지역사회교육전문가(학교 복지사)

④ 기타 _____

11-2) **(문11번 2)의 ①~⑤ 응답자만)** 부진한 과목에 대한 학습지도를 받는 경우, 교사는 누구입니까?

① 담임교사

② 교내 다른 교사

③ 지역사회교육전문가

④ 기타 _____

12. 학생은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나요?

① 한다 ② 하지 않는다

12-1) **(문12의 ① 응답자만)**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나요?_____

13. 이 학생은 이번 학기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선생님과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1) 학업관련(학습, 성적, 시험 등)	1	2
2) 자기이해 관련(적성, 흥미, 성격, 심리 등)	1	2
3) 대인관계 관련(친구, 이성, 부모, 교사 등)	1	2
4) 진로 및 직업 정보 제공 및 상담	1	2

13-1) 선생님은 이번 학기동안 학생 보호자와 교육상담을 한 적이 있으시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3-2) 선생님은 이번 학기동안 이 학생 보호자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1) 학생의 학업 성적	1	2
2) 학생의 학교생활	1	2
3) 학생의 진학 문제	1	2

14. 2015년 3월 전국 실시한 교과학습 진단평가에서 아래 과목별로 학생이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과 목	구체적 점수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도달	해당없음
1) 국어	점	1	2	3
2) 영어	점	1	2	3
3) 수학	점	1	2	3
4) 사회	점	1	2	3
5) 과학	점	1	2	3

*註: 구체적인 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정수로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보고 RR 2015-13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Ⅵ): 학교, 사회 적응 과정 분석 및 정책 방안

발행일 : 2015년 12월
발행인 : 윤종혁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 (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우면동)
전화:02)3460-0114
FAX:02)3461-0121
http://www.kedi.re.kr
등 록 : 1973. 6. 13, 제16-35호
인 쇄 : 경성문화사 02)786-2999
ISBN :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